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56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11월 4일(음력 9월 18일) 수요일(주간)

종교평화 블로거가 지킨다

종평위 · 불교아카데미, 온라인서 종교차별 대응 모색

'인류역사상 가장 손쉽고 편안하며 비용이 적게 드는 효과적인 여론형성 수단.' '블로그(blog:1인 인터넷 언론)'의 힘은 개인의 이미지(상품) 홍보에서 촛불문화제 등 사회운동 현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에서 이미 입증됐다.

1인 미디어 시대를 주도하는 블로거들이 종교평화 운동에 나섰다. 블로그의 전파력과 편의성을 종교편화 홍보와 사례적발, 대안 모색 등의 창구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종교평화 블로거의 첫 주자들은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공동위원장 세영 · 손안식)와 불교아카데미(원장 박희택)가 8월 19일부터 진행해 온 '종교평화블로거 양성교육'에 참가한 45명의 수강생들이다.

이들은 그동안 온라인을 통해 종교평화 운동을 전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웠다. 모두 12강으로 진행된 교육의 핵심은 '종교의 위기와 종교차별의 이해'에서 '내 블로그 성공전략'까지 블로그 활용의 전반이다.

예를 들면 '종교평화블로거 활용전략' 제9강의 경우 기술, 사회관계, 미디어의 측면을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즉, 다양한 예제 활용과



블로거는 사회현상에 대해 사실에 기반한 자신의 느낌과 의견을 게재해 사회문제를 중요사안으로 부각시킨다.

콘텐츠 관리 요령, 블로거들간의 강한 유대감형성, 상호 커뮤니티를 통한 문제의식 소통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교육됐다.

강사로 나선 윤남진 NGO리서치 소장은 "올바른 논증의 구조와 원칙을 확립해 나가는 연습과 일관성 있는 글쓰기로 공중관계의 원활한 소통을 이뤄야한다"며 논리적 글쓰기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한기남 불교아카데미 사무처장도 강의에서 "사찰에 가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우리 절의 따뜻한 이야기, 길가다 보이는 종교차별행위든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쓰면서 적극적인 불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봉간 유저스토리랩 기획팀장은 "이제 전 세계 어디서든 사건이 터지면 신문과 방송보다 블로그를 통해 실시간으로 소식이 전해지고, 블로그에 올라온 의견이 일부는 공론화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블로그가 언론의 주요기능인 의제설정(議題設定, agenda-setting)기능을 해 사회적 문제를 강조, 보도함으로써 그것을 사회의 중요한 이슈(issue)로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종교평화블로거 양성교육을 수강한 불자들은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제작한 블로그에 일기 칼럼 기사 등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출판 · 개인방송 · 커뮤니티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 일종의 1인 미디어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을 주관한 종교평화위원회와 불교아카데미 측은 "종교 차별에 대한 기존 언론의 보도태도는 조심스러워 블로그를 통해 종교차별 근절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교와 세상이 만나는 불교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이 결국 불교계의 '디지털 인맥'을 형성할 것이다"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박선주 기자 sunjoo0802@naver.com



"종단 환골탈태 힘 모아달라"

태고종 제24대 총무원장 인공 스님 취임

열반의 언덕을 향해 생사 고해를 건너는 '한국불교태고종'이 10월 28일 제24대 총무원장 인공 스님(사진 왼쪽) 취임식을 기해 새 돛을 올렸다.

태고종 총본산 신촌 봉원사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지관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해 내외빈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취임법회에서는 행정부원장 청봉, 교무부원장 법현, 재정부원장 화경 스님의 임명식도 함께 열려 24대 집행부의 출범을 알렸다.

인공 스님은 취임사에서 "안정과 화합 위에 종단발전을 위한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환골탈태하는 종단 발전에 종도들의 뜻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인공 스님은 이날 △종지종풍 확립으로 종단 정체성 정립 △승풍 진작과 원융화합종단 구현 △제도개혁 통한 구조적 모순점 개선 △사회적 역할 확대 등 4대 종책기조도 제시했다.

이날 취임법회에서는 제23대 총무원장 운산 스님의 이임식도 진행됐다.

글=노덕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법구경

좋은 일을 했다면 거듭거듭
되풀이해 그 좋은 일 속에서
기쁨을 느끼게 하라.

현대불교@장터
HyunbulShop.com
문의전화 02)2004-8215~6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02)3672-7181~5
불교서적총판
운 주 사

<PR>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복장의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실물크기(3.5×5cm) 금강경 23매
용도:상량식, 봉사 복장의식, 영가천도
문의 02)722-1850

문젠 명상 센터
선 / 명상 / 요가
임산부 요가
02-956-2460



열대과일 두리안 전문
행다원
보이茶, 각종 茶器 생활 도자기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금주의 Hot·····



빛고을아카데미
혜인 스님
14지상중계



中 동화선사
만행 스님
12수행현장



신임 포교사단장
임희웅
08불자들

'한국전통사상총서' 한글역 7권 발간

조계종 전통사상서 간행위 10월 28일 봉정법회… 영역본은 내년에 출간

한국불교 문화의 정수(精髓)를 책으로 모은 <한국전통사상총서> 불교편 한글역 7권이 발간됐다.

조계종 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위원장 지관 · 총무원장)는 10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전통사상총서> 불교편 13권 중 7권이 출간됐다고 밝히고, 28일 봉정법회를 봉행했다.

지관 스님은 "세계가 한 집안인 시대에서 해외에 한국불교를 널리 알리고자 3년 여에 걸쳐 한국 고승이 남긴 금지옥엽 같은 귀중한 저술을 모아 우리말과 영어로 번역해왔다"고 말했다.



한국전통사상총서 중 10월 28일 발간 · 봉정된 7권.

<한국전통사상총서> 발간 사업은 조계종이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아 총사업비 30여 억원 규모로 2006년 12월부터 진행돼 왔다.

원효 지눌 휴정 등 한국불교 대표 스님 저술과 화엄 등 제교학, 공안집과 선어록 등 선서(禪書), 문화, 비문(碑文), 계율 등 13권으로 구성했다. 한글과 영어 동시 번역 · 출간되는 책은 모두 26권이다.

이번에 발간된 한글역은 원효(권1) 지눌(권2) 화엄2(권5) 제교학(권6) 선어록(권8) 시선집(권9) 문화(권10) 등 7권이다. 휴정(권3) 화엄1(권4) 공안집(권7) 계율1 · 2(권11~12) 비문집(권13) 등 나머지 5권의 한글역은 올해 안에 발간된다.

영역본은 2010년 출간되며, 영역본 출간과 동시에 <한국전통사상총서>를 PDF 파일로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전통사상총서>는 '다자간(多者間) 번역시스템'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다자간 번역시스템은 기존의 대부분 번역서가 1~2인의 번역자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공동번역 · 교정 작업을 통해 자의적 해석에 따른 오류를 줄이고 교차검토 등 수차례 확인 · 검증을 거쳐 국내외 연구성과를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글역에는 해주 스님(동국대)과 고옥 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 연구실장), 원철 스님(前 해인사 강사) 등 학승과 정병삼 숙명여대 교수, 이진오 부산대 교수, 김영욱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참가했다.

영역본은 안준영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를 비롯해 로버스 버스웰 교수(美 UCLA), 챨스 뮐러 교수(日 동경대), 존 조르겐센 교수(濠, 그리피스대) 등이 번역을 맡았다.

한글역과 영역본의 대조 · 교열자로는 미산 · 정덕 스님(중앙승가대)과 일미 스님(美 듀크대) 등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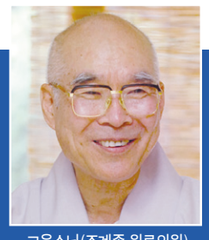
조동섭 기자

백양사 야단법석에서 깨달음의 길을 찾는다

황벽스님이 어느 날 백장선사에게 물었다.
"대대로 내려오는 禪의 진수를 어떻게 가르치렵니까?"
백장선사가 잠자코(良久)있자 황벽이 다그치듯 말했다.
"스승께서는 뒷사람들로 하여금 禪을 단절시키지는 마십시오."
스승은 한 마디를 던지고 방장실로 들어갔다.
"자네가 禪을 단절시키는 사람이네."

修行의 目的은 깨달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불교에서는 깨달음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법을 논하라. 아니면 침묵하라."
우리는 희론(戱論)과 침묵에서 벗어나 법을 논하고자 합니다.
여기 열린 마당에 모여 '깨달음의 길'을 찾습니다.

[주제와 강사]
1. 실천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길 – **고우스님**(조계종 원로의원)
2. 대승경전을 통한 깨달음의 길 – **시몽스님**(백양사 주지)
3. 생명평화운동을 통한 깨달음의 길 – **도법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4. 동사섭을 통한 깨달음의 길 – **용타스님**(사단법인 동사섭 이사장)
5. 간화선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길 – **월암스님**(함양 벽송사 벽송선원장)
6. 초기경전을 통한 깨달음의 길 – **각묵스님**(실상사 화엄학림 강사)
7. 조사어록을 통한 깨달음의 길 – **향봉스님**(익산 사자암 주지)


고우스님(조계종 원로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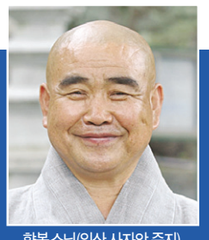

시몽스님(백양사 주지)


도법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용타스님(사단법인 동사섭 이사장)


월암스님(함양 벽송사 벽송선원장)


각묵스님(실상사 화엄학림 강사)


향봉스님(익산 사자암 주지)

야단법석 일정표

	오전 8-11시	오후 2-5시	오후 7-9시
11월 21일 (첫째 날)	·	고우스님	시몽스님
11월 22일 (둘째 날)	각묵스님	용타스님	용타스님
11월 23일 (셋째 날)	도법스님	월암스님	월암스님
11월 24일 (넷째 날)	시몽스님	향봉스님	향봉스님
11월 25일	도법스님	·	·

■ 장 소 : **고불총림 백양사**
■ 집 결 : **2009년 11월 21일(토) 낮 12시**
■ 입 재 : **2009년 11월 21일(토) 오후 2시**
(백양사 방장 **수산 큰스님** 입재 법어)
■ 회 향 : 11월 25일(수) 오전 11시(4박 5일)
■ 대상자 : 사부대중 누구나, 선착순 200명
■ 동참비 : 출가자 – 10만원 / 재가자 – 20만원
■ 접수계좌 : 농협 645117-51-017109 (예금주 : 백양사)
■ 주 최 : 고불총림 백양사 ■ 후 원 : 현대불교신문사
■ 접수처 : 백양사 종무소
■ 문 의 : ☎ 061)392-7502, 전송 061)392-2081
■ 동절기이므로 개인침구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번지
고 불 총 림 백 양 사



죽비와 목탁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동국대와 금강대의 시선차

10월 23일 동국대 학술문화관 초허당 세미나실에서는 세계적인 석학인 타케무라 마키오 일본 동양대 총장의 특강이 열렸다.

유식학 대가라 불리는 타케무라 총장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인성)의 초청으로 방한해 '<성유식론>의 연기사상'을 주제로 강연했다.

몇몇 교수와 불교문화연구원 소속 연구원, 대학원생 등이 자리해 2시간 여 동안 진행된 행사에서 강연 후 첫 질문은 자료집 오역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플로어에 있던 일본통인 불교대 소속 한 교수가 통역자를 대신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졌다.

타케무라 총장이 어떤 생각이었을지는 쉽게 짐작이 간다. 게다가 강연 전 예정됐던 타케무라 마키오 총장과 불교대 교수들과의 점심식사는 대다수 교수가 불참을 통보했고, 저녁식사는 몇몇 관계자만이 타케무라 총장과 함께했다.

학자를 불러놓고 학술적 담론이 아닌 통역 문제로 시비가 걸리고, 외국에서 먼 길을 찾아온 손님 접대에 대한 기본매너까지 엉망인 행사였다.

이보다 앞선 13~15일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천학)는 독일 출신인 할뭇트 뷰셔 박사를 초청해 '아뢰야식 개념의 기원에 대한 입장의 비판적 재검토'를 주제로 집중워크숍을 개최했다. 할뭇트 박사는 3일간 세차례에 걸쳐 2~3시간씩 열린 강연과 토론을 통해 자신의 학설을 금강대 연구원을 비롯해 서울에서 금강대까지 찾아온 동국대 서울대 고려대 대학원생 등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금강대 성낙승 총장도 자리해 불교학 지원에 대한 관심을 표시해 눈길을 끌었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석길암 연구교수는 "집중워크숍을 통해 학술대회나 특강에서는 얻을 수 없던 깊이 있는 대화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석 연구교수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형식적인) 국제학술대회를 최소화하고 매년 5~6회 이상 집중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이번 타케무라 마키오 총장 특강과 할뭇트 부셔 박사의 집중워크숍은 행사 운영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동국대와 금강대의 불교학을 대하는 시각의 차이가 아닐까?

건학 104주년을 맞는 동국대가 개교 10돌을 갓 앞둔 금강대에 불교학 분야에서 추월당하지 않으려면 세계화, 국제화의 방법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대불교로 최상의 공양 法보시를…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바르게 설하고 설명하고 고찰하며 바른 법을 온전히 지키는 법공양(法供養)이 가장 수승한 공양이라 하셨습니다. 한 장의 '현대불교'를 이웃과 어려운 이들에게 법보시하는 것은 다함께 깨닫는 세상을 만드는 형상 없는 불사(佛事)가 될 것입니다.

▶ 법보시 대상
군법당, 병원, 교도소, 각급 학교 및 공공 도서관, 관공서

▶ 법보시 후원 안내
법보시는 1구좌 1000원이상
월 구독료는 5000원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2004-8200

승가 수행 종풍 진작 큰역할

조계종 32대 집행부 막내려… 종단 내부 화합은 과제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퇴임과 함께 32대 집행부가 막을 내렸다.

지관 스님의 32대 집행부는 1994년 종단개혁 이후 첫 4년 임기를 채운 점에서 '원만히 회향한 것 자체로 종단안정 등에 큰 족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관 스님은 32대 선거 당시, 공약사항으로 △종단 안정의 기틀 마련 △중앙과 교구의 조화로운 발전 △'나눔의 장'으로 존경받는 종단 구현 △한국불교 정보화 · 세계화의 4대 운영기조와 △수행종풍 진작 △교구본사 역량강화 등 10대 종책을 내걸고 당선됐다.

이중 '종지종풍 확립 및 수행종풍 진작' '문화포교 기반 구축' '대사회 활동 강화'는 눈에 띄게 진척된 점이다. 특히 '결계 및 포살'의 시행을 비롯해 '조계종 표준금강경' 편찬 및 '통일가사'가 제정돼 승가 수행 체제 및 종풍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 조계종조 도의조사 다례재를 매년 실시하고 총본산 조계사 정비사업을 시작하는 등 94년 종단개혁 이후 종단의 정통성 확립과 안정을 꾀했다는 평가다. 포교 기반 확대를 위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완공을 비롯해 전법회관(중앙신도회관), 템플스테이정보센터, 공주 전통불교문화원, 목동 국제선센터, 낙산사 복원사업 등 굵직한 불사도 원만 회향됐다.

또 32대 집행부는 각 사회 현안에 불교계 목소리를 드높였다. 10 · 27 법난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며, 국립공원 내 사찰경내지와 관련한 통도사 결의대회, 종교편향 정국의 8 · 27범불교 도대회를 주도하는 등 불교계 권익을 위해 정부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태안 기름 유출 피해지역 자원봉사활동, 스리랑카 복지타운 건립과 미얀마 사이클론 피해 복구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해외구호사업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특히 2008년 발족된 교계 첫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은 국민 인식을 높이는 토대를 만들었다는데 큰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동국대 신정아 사건' 등으로 표출됐 듯 종단 내부 갈등은 상반된 평가를 받게 한다. 지관 스님을 지지한 종단내 여권과 야권의 반목은 내부적으로 제도정비 등의 지장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2대 임기 내 화두였던 '승려노후복지제도 확립'과 '선거법 개정' 등 법령 및 제도정비는 각 계파간 이견으로 좌절 또는 연기됐다.

특히 '중앙 종권의 지역교구 이양과 관리감독 강화'는 미흡했다는 평가다. 각 본사들이 각종 비위 사실들로 인해 사회법에 의해 사법처리 된 점은 각 권한의 이양과 더불어 중앙사법기구의 사정권한 강화 등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남북불교교류 또한 신계사 복원불사 완공 이후 정치권의 경색구도의 영향으로 정체됐으며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용산참사 등 각 사안에 원칙을 잃은 대응도 '흠'으로 낳는다.

이러한 상반된 평가 속에 조계종 총무원 32대 집행부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함께한 조계종의 4년>이란 제목의 성과자료집을 통해 못다한 종책집행을 차기 집행부에 당부했다. 32대 집행부는 성과자료집을 통해 △조계종 표준금강경 편찬 △결계 포살 시행 등 10개 분야에 대한 집행과정을 설명했으며 △결계 포살의 지속 추진 △승가복지제도 마련 △해외특별교구 설치 △신도시 포교 거점 도량 확보 등 과제를 제시했다.

수많은 공과 속에 조계종은 제33대 집행부 체제를 맞게 됐다. 중앙종회 각 계파의 연대 속에 탄생한 새 집행부는 32대 집행부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또 다른 비전을 제시할 지 불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포교역량 키우자…포교결집대회

조계종 포교원 14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서

전국 포교 · 신도단체의 자생적 포교역량강화를 시도하는 대규모 포교결집대회가 열린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11월 14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한국불교 역사상 최초로 1만 5000여 불자가 함께하는 포교결집대회를 봉행한다.

'포교가 희망입니다. 우리가 희망입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포교원이 올 초부터 기획해온 핵심 사업이다.

행사는 사물(四物) 공연과 LMB싱어즈, 연합합창단, 뉴트리팝스오케스트라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1만 불자 경전 독송회를 실시한다. 이는 백고좌, 만승법회, 염불결사 등의 역사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단체 신행문화의 수립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주요행사인 포교결집법회에 이어 포교역량 한마당에서는 2009년 포교대상 시상식과 포교 · 신행단체의 공연, 유명 불자연예인 초청 공연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불교의 미래 동량인 어린이 ·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어린이 살사댄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율동,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율동 공연 등이 펼쳐진다. 또 참가자들의 행사진행모습 및 행사장 전경을 찍은 디카, 폰카 사진 작품들을 공모하고 선정된 사진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금과 상품도 지급할 계획이다.

포교부장 계성 스님은 "제1회 포교결집대회는 각 산하단체의 1년 농사 결실이다. 결집대회를 위해서는 포교원 산하기관의 자체적 운용능력과 실질적인 힘이 필요하다"며 "세대, 계층, 직종을 아우르는 네트워크 구축으로 모든 신행 · 포교 단체가 정체성과 생명력을 가진 조직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국민 계도 위해 더욱 정진" 당부

조계종 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 퇴임



지관 스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제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불교계 첫 4년 임기를 마친 공덕을 불자들에게 회향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10월 30일 퇴임식을 끝으로 4년 동안의 소임을 마감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개최된 스님의 마지막 일정에는 원로의원 혜정 스님을 비롯해 포교원장 혜총 스님, 교육원장대행 법장 스님, 중앙승가대학 총장 태원 스님,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등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과 32대 집행부 교역직 스님들, 이상득 국회부의장과 최병국 국회 정각회장, 박재완 청불회장, 종무원 등 관계자 350여 명이 동참했다.

지관 스님은 퇴임사를 통해 "40리 가는 차를 타고 가다 보니 내릴 때가 됐다. 팥을 쒀도 팥인 것처럼 원래 오고 가는 것은 없듯 감회가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지관 스님은 "4년동안 동안 정부와 국민이 염려해주고, 안으로는 전 종도들이 뜻을 모아줘 원만했다"며 "한국불교는 끝이 아니고 연속이기 때문에 국민계도를 위해 더욱 정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퇴임식 직후 4층 총무원장실에서는 33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무원장 인수인계식이 열렸다.

지관 스님은 자승 스님에게 총무원 업무 관련 서류와 사회복지재단, 아름다운동행 등 산하 기관 자료를 인계했다.

이 자리에서 지관 스님은 "목동 국제선센터 건립 불사와 한국전통사상총서 간행 사업을 잘 마무리 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자승 스님은 "새 소임 스님들과 함께 잘 처리 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절차 이후 지관 스님은 조계사 대웅전을 찾아 헌향하고 삼배를 올리며 한국불교 진흥을 거듭 기원했다. 지관 스님은 배웅을 위해 나온 총무원 전 종무원과 교역직 스님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환송 속에 총무원 청사를 나섰다.

노덕현 기자

'대중결계록' 발간

조계종 제32대 집행부의 핵심 종책 사업 중 하나인 '결계 및 포살 시행'을 집대성한 <대중결계록>이 발간됐다.

'결계'와 '포살'은 2008년 3월 20일 종회 법안이 통과된 이후 당해 5월부터 전국 선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번 대중결계록은 각 교구를 비롯해, 종립학교와 해외선원 등의 대중결계과 5대 총림선원 등 각 선원의 수선안거 대중결계록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은 승려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언론에 비공개됐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 위드쌍용 협약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지관)과 (주)위드쌍용(회장 명호근)은 10월 15일 조계종 총무원장실에서 보험업무 지정협약을 체결했다.

보험 협약에 따라 위드쌍용은 조계종 총무원 소유 및 관리자산과 직할 사찰 관리자산에 대한 보험컨설팅 등을 진행하게 된다.

교계에서는 부석사 무량수전 등 중요불교문화재 99건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국정감사 이후 불교 자산 보호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인해 삼보정재 보존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조 계 사

주 지 세 민

사부대중일동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전화 : 02-732-2115
팩스 : 02-720-1391 http://www.jogyesa.org



초기불교 수행 한국에 뿌리내려

(사)한국테라와다불교 창립… 상가라자에 도성 스님 추대

주 '테라와다(Theravada)'는 장로(長老) 또는 연장자의 의미로, 테라와다불교는 주로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 남방 지역의 불교를 말한다.

1990년대 초부터 남방불교에서 비구계를 받고 수행한 스님들과 재가 수행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테라와다불교(이사장 빤냐와로)가 10월 31일 BBS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한국테라와다불교 창립법회 및 까티나 행사'를 개최했다.

3개월간의 안거를 마친 비구스님들에게 가사를 공양하는 까티나 축제를 겸해 열린 이날 법회에는 부산 태종사 조실 도성 스님을 비롯해 국내 테라와다불교 스님 20여 명과 신도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는 개회 타종 및 삼보예찬, 보리수선원장 붓다락키타 스님의 경과 보고, 이사장 빤냐와로 스님의 인사말,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과 경우 스님, 가산 스님의 축사에 이어 상가라자 추대식 및 법문, 공로패 증정, 자애경 독송 등으로 진행됐다.


한국테라와다불교 창립법회에 앞서 10월 29일 기자회견을 가진 이사장 빤냐와로 스님과 붓다락키다 스님, 담마 위하라 스님(오른쪽부터).

법회에서 한국테라와다불교 공동체의 상징인 상가라자에 추대된 도성(뿐냐산또) 스님은 1972년 태국 방콕 왓벤자마보핏 사원에서 비구계를 받았다. 스님은 미얀마의 마하시 선원, 태국의 웨웍아솜 위빠사나 명상센터, 스리랑카 비구아일랜드 등에서 수행한 후 귀국해 근본불교를 전하고 있다. 해인사 주지, 대흥사 주지, 조계종 전국본사주지연합회 회장과 태국 마하 쫄라롱콘대학 한국분원 학장을 역임했으며, 2003년 스리랑카 상가로부터 '삼붓다 사사나 조띠까 마하테라'라는 최고의 칭호를 수여받았다.

상가라자 추대식에 앞서 빤냐와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한국테라와다불교가 종교단체로 설립된 것을 내외에 알리고 2500여년 전통의 테라와다불교의 고유 행사인 까티나 가사 봉행 법석을 거행하면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전승하며 정통 수행법인 위빠사나를 대중에게 전하려 한다"고 말했다.

2008년 12월 31일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한국테라와다불교에는 부산 붓다의길따라선원의 빤냐와로 스님, 경주 마하보디선원의 냐나로까 스님, 과천 보리수선원의 붓다락키타 스님, 산청 도성사의 빤냐완따 스님, 봉화 연방죽선원의 담마위하라 법주 스님, 하동 (사)붓다와 함께 이사장 자공 스님, 빨리문헌연구소의 마성 스님, 김제의 사사나 스님 등 남방불교에서 비구계를 받은 스님 대부분과 재가 수행자들이 동참하고 있다.

국내에 위빠사나 수행이 전래된 지 20여년만에 이뤄진 이번 한국테라와다불교의 창립은 사실상의 국내 테라와다불교 교단의 태동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테라와다불교 스님들의 선원 운영과 활동이 법적인 보장을 받게 됐으며, 초기불교의 부처님 법대로 사는 청정수행 가풍의 확산과 위빠사나 명상 붐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02)517-2841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진각회당외국어校 스리랑카에 설립

진각종과 스리랑카JGO 교육복지재단은 10월 28일 스리랑카JGO센터에서 진각회당외국어학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르면 진각종은 학교 건립비를 지원하고 교육복지재단 이사회 임원추천권을 갖게 된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 직후 봉행된 기공식을 시작으로 회당외국어학교는 3년 동안 3억 2000여 만원을 투자해 3층 규모에 500여 학생을 수용하는 규모로 건립된다.

진각종은 "외국어학교 시설 내 심인당과 연계해 스리랑카 학생들이 심인진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장은지·김수경양 최우수상

청소년련 제1기 환경학교 모니터요원 시상

(사)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총재 현성)는 10월 17일 불교역사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기 환경학교 청소년 지구환경모니터요원 시상식 및 수료식을 봉행했다.



제1기 환경학교 수료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총재 현성 스님.

시상에는 모니터요원 교육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온 장은지(동대부여중 2) 학생, 김수경(장은중 2) 학생에게 최우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이날 총재 현성 스님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파괴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며 "우리의 미래는 청소년에게 달려있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제1기 환경학교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8월 8일~9월 27일 매주 토요일 청소년 지구환경모니터요원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이상언 기자

"10·27 진실규명" 실천승가회 성명서

실천불교전국승가회(대표 법안, 이하 실천승가회)는 10월 27일 10·27 법난 29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10·27 법난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실천승가회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단체들과 불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원회' 구성으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천승가회는 "기대해왔던 10·27 위원회의 활동이 기념관 부지 선정과 근거 없는 보상금 문제로 휩싸이는 과정을 보며 당혹스러웠다"며 "무엇보다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실천승가회는 특별법시행과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역사적 과제 해결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현 정부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실천승가회는 "제33대 총무원 집행부도 수많은 종도들이 간절히 염원하는 방향으로 10·27법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박선주 기자

2010년 귀농을 꿈꾸다

인드라망 제5기 귀농학교 학생 모집

'귀농운동'을 펼치고 있는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가 제5기 귀농학교 학생을 모집한다.

2010년에 활동할 제5기 현장귀농학교의 입학 지원자격은 이론과정 및 실습과정의 귀농학교를 마친 사람으로, 모집기간은 2010년 1월까지다.

선발절차는 지원서(자기소개서, 입학원서, 귀농계획서 포함)제출 후 면담과정을 거친 뒤 지역을 선정하고 2010년에 학기가 시작된다.

귀농학교의 교육 내용은△지역별 특성에 맞는 농사 교육과 실습 △농민, 마을주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마음자세와 주민들과 관계 맺기 △다른 지역학교와의 교류, 농사, 대안의료, 발효, 가공, 유통 등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는 워크숍을 연 3~4회 갖는다. (02)576-1886 박선주 기자

진흥원·승가대 지원 협약 체결

대원학술기금 매년 1억원 지원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이 10월 28일 마포 다보빌딩에서 중앙승가대학교(총장 태원)에 '대원학술기금' 1억원 지원을 협약 체결했다.


대원학술기금 지원협약식을 가진 불교진흥원 민병천 이사장과 중앙승가대 총장 태원 스님.

이날 체결식에서 민병천 이사장은 "4년제 정식대학으로서 최고 승가 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에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은 컸지만 지원을 못해왔다. 크지 않은 액수지만 성의로 받아주길 바란다"며 "총장님 이하 임직원의 노력으로 중앙승가대가 좋은 대학으로 거듭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태원 스님은 "기금으로 승가대의 학풍 진작과 선지식 배양에 적극 투자하겠다"며 "故 장경호 거사와의 인연이 민병천 이사장으로 이어져 후원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총장으로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화답했다.

대원학술기금은 중앙승가대 연구기관(연구자), 학부생, 중앙승가대대원학술상 등에 매년 1억원 지원된다. △부설 연구기관의 학술행사, 연구논문집 발간 △학술 및 신행 증진 장학금 △우수학위논문, 해외유학승, 우수 저서 및 학술 논문 시상 분야에 사용된다.

이상언 기자

한국문화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꿈을이루는사람들 10월 25일 한국문화체험

"오늘처럼 좋은 날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국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스리랑카 이주노동자 마헤시·29)


이주노동자들은 삼국시대 왕이나 귀족이 쓰던 왕관을 만들며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한 발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 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 진오)은 10월 25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중부지역본부와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베트남 3개국 이주노동자 70여명과 함께 경주밀레니엄파크와 감포에서 한국문화체험 행사를 가졌다.

이날 이주노동자들은 화랑공연을 관람하고 한국전통음식을 맛보며 한국의 역사를 체험했다. 또 금관만들기, 에밀레타워, 토우공원 등을 거닐면서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꿈을이루는사람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힘든 근로환경에서 벗어나 휴식의 기회를 주고 싶었다"며 행사 취지를 밝혔다. 박선주 기자

社告

2009빛고을불교아카데미

여래의 使者를 만나다—한국불교 포교의 신화를 일구는 스님들

일시:
2009년 10월 27(화)~12월1일(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장소:
광주 동구 KT문화관 대강당

공동주최:
광주불교사암연합회
불교TV
현대불교

1강	10/27	신심과 원력의 길	혜인스님(제주 약천사 회주)
2강	11/3	업력의 삶과 원력의 삶	정락스님(前조계종 포교원장)
3강	11/10	도심 속 천년사찰을 깨우다	명진스님(봉은사 주지)
4강	11/17	아름다운 불광공동체	지홍스님(불광사 회주)
5강	11/24	수행,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찾다	법륜스님(정토회 지도법사)
6강	12/1	시심(詩心)으로 세상을 깨우다	청화스님(前 조계종 교육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자승스님 취임법회

소통·화합 그리고 발원
한국불교의 중흥이 시작됩니다.

• 일시 _ 불기 2553(2009)년 11월 5일 오전11시 • 장소 _ 조계사 대웅전 앞

* 화환은 받지 않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취임법회 준비위원회

종파·지역 넘어 포교 전략 공유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10월 25일 제1회 포교전진대회 '성황'

전국 불교교양대학 포교사와 재가불자들이 종파와 지역을 넘어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실천적인 포교 활동의 확산과 포교전략을 공유하는 포교전진대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서울 동산불교대학, 대전 보현불교대학 등 전국 30여 불교교양대학 연합체인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회장 안동일, 이하 한불연)는 10월 25일 대전 보문고등학교에서 제1회 포교전진대회를 봉행했다. 신종 플루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포교전진대회는 1000여 재가자들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오른쪽에서부터 제1회 한불연 포교전진대회에 참석한 정병조 교수, 안동일 회장, 활안 스님, 오상현 한불연 포교전진대회 준비위원장.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지구촌공생회 이사장), 한국불교금강선원 총재 활안 스님, 안동일 회장, 동국대 정병조 교수, 대전 보문고등학교 양근환 교장, 한불연 연합포교사 김갑선 단장 등 한불연 소속 포교사 및 신도 등이 참석했다.

활안 스님은 격려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종단을 초월한 결집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은 포교사들의 뜻이 모여 불국토를 이루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포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자신, 내 가족, 이웃과 사회, 국가, 민족 등 주변 인부터 포교하는데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정병조 교수는 축사에서 "다종교 시대에서도 꾸준히 교세가 확장되는 것은 불교교양대학의 지적이고 현대적인 포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다변화 사회에서 각계각층에 불교를 전하려면 재가불교의 확산만이 첩경"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 교수는 "종교는 현 시대에 사람들이 표방하는 진리의 세계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서느냐에 있다"며 "세계화시대에 맞춰 다문화 가정 등 국제화된 포교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동일 회장은 재가불자들의 실천적 포교로 재도약하는 불교운동 전개를 위한 3가지 행동지침을 제안하고 한불연이 사회의 중심에 설 것을 당부했다. 안 회장은 "법보시의 실천, 불경 읽기와 자신의 사회적 영역에서 모범을 보이는 불교의 생활화, 사회의 정토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에 앞장 설 것"을 당부했다.

월주 스님은 '깨어있는 불자의 삶'을 주제로 한 법어에서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복지사업 등 사회참여를 통한 포교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월주 스님은 "열린 마음을 갖고 포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포교사는 각자 근기에 맞는 수행을 선행하고 불법을 중생들에게 전하는데 참 의미가 있다. 나만 깨달아 법열에 젖어있지 않고 중생교화를 위해 사회에 뛰어들어 보현행을 행하면 지혜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스님은 △체계적인 불교교리 공부 △이웃종교의 성전 공부 △기본적인 상식공부 △계행을 통한 철저한 자기관리도 병행할 것을 당부했다. 월주 스님은 언설, 문서, 매체포교 외 '의식(儀式)포교'와 복지사업을 통한 사회참여를 거듭 강조했다. 스님은 "병원, 학교 건설 등 대중포교와 사회복지사업, 사회참여를 통해 대승보살도의 실천이라는 불교 본래적인 자산을 충분히 발현하라"며 포교사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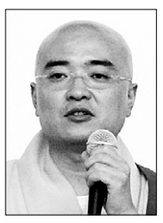
이날 포교전진대회에서는 김기성·이인섭(동산불교대학), 오영배·조관식(보현불교대학), 이경희(덕산불교대학), 장순연(금강불교대학), 구정완(부산불교전법대학) 포교사가 제1회 포교대상을 수상했다. 한편 전국 불교 교양대학과 신행단체 대표들이 포교에 앞장서자는 취지로 2002년 결성된 한불연은 현재까지 614명의 포교사를 배출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어떻게 살아야 잘 살고 잘 죽는 것?

불교여성개발원 웰다잉본부 웰다잉 교육 2월 17일까지

잘 살기에만 급급한 현대인들에게 잘 죽는 웰다잉(well-dying) 교육이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잘 살고자 노력해도 잘 살아지지 않고, 잘 죽는 것도 힘든 것이 우리네 삶이지만 무엇이 잘 죽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생사에 대한 근원적인 답 찾기에 불교여성개발원 웰다잉본부(본부장 이인자)가 나섰다.



10월 29일 은산 스님(행복한절 주지·사진)의 '마음을 여는 길' 첫 교육이 실시됐다.

은산 스님은 "잘 죽는다는 것은 '해탈'이지만 현실적으로 삶과 죽음을 뛰어넘기란 어렵다. 막연하고 모호한 개념적 정의에서 벗어나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 고통스럽지 않게 죽는 것과 같이 현실적으로 접근하자"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현재의 삶에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나와 너' '불변과 가변' '색(色)과 공(空)'을 둘로 봐 분별, 경계, 양변적 사고로 살아온 삶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산 스님은 "웰다잉이라는 것은 웰빙이다. 잘 죽는 것은 죽음을 직시해서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돼야 가능하며 이 노력으로 죽음과 동시에 삶을 이해하게 된다. 죽음에 대한 깊은 고민은 결국 어떻게 잘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인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 내 경험한계에서 사는 삶을 무명의 삶, 꿈이라 밝힌 스님은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웰빙과 해탈의 관계는 마음과 마음의 문제다. 삶과 죽음이라는 것도 하나의 표현에 대한 의식작용에 따른 분별에 지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를 마음으로 받아드리는 데서 진정한 웰빙과 웰다잉이 이뤄진다. 결국 내가 '안다'는 인식작용은 독이 된다."

어떻게 사는 삶이 잘 사는 것인가? 스님은 '놓아버림' '무아'에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나'도 없고 '너'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래서 '너'를 위하는 것이 소중한 '나'를 위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을 당부했다.

은산 스님은 마지막으로 "'나'라는 것을 놓아버리면 산다. 우리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고 얻으며 붙잡으려고만 했다. 지난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놓으면 더 자유롭고 편안하다. 겸허한 삶의 자세를 지니고 선(禪)을 통한 직시, 좋은 스승을 만나 지도받으며 살라"고 말했다.

웰다잉 교육은 △4대 종교가 말하는 죽음(수필가 맹난자) △웰다잉에 대한 불교적 고찰(쌍계사 주지 월호스님) △죽음명상·자비명상(능인선원 김기호 지도법사) △배려와 사랑·용서와 이해(동국대 황수경 강사) △기계적 죽음과 자연적 죽음(불교방송 '거룩한 만남' 진행자 지현스님) △유족의 심리치료와 애도 안내(동국대 이범수 강사) △상속과 유언(홍영호 변호사) △삶과 죽음, 둘 아닌 도리(자비선 수행 지도법사 지운 스님) 등이 2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에서 실시된다. (02)722-2101

이상언 기자

채식전문요리사 파견 사업 모색

지혜로운여성·여성부 9일 세미나 열어

최고의 웰빙식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통사찰음식을 재조명하고 채식전문조리사 파견사업의 장기적인 사업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11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열린다.

채식전문요리사 파견 사업은 지혜로운여성(이사장 이은영)과 여성부(장관 백희영)의 공동사업이다. 채식전문요리사는 지난 8월 30명을 선발해 양성 교육 후, 9월에 소외계층 대상 급식시설에 처음으로 파견했다. 이 사업은 채식음식의 대중화와 소외계층의 건강증진 지원과 여성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세미나에서는 △남혜정 채식조리사파견센터장이 채식요리사와 파견사업의 의미와 전망, 장기적인 사업방향을 모색한다.

△선재사찰음식연구원장 선재 스님은 건강식으로서의 사찰음식 대중화, 고열량식과 간편식 위주의 식생활로 인한 성인병 예방, 육식문화의 확산으로 탄소발생량 증가에 따른 환경 문제 등을 다룬다.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장 적문 스님은 전통 사찰음식이 가지는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통문화의 한 장르로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다. (02)722-2101

이상언 기자

"성철 스님 사상 정수 만나요"

불교인재원 24일부터 '백일법문' 강좌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는 11월 24일 불교인재원 교육관에서 성철 스님의 정수가 담긴 <백일법문> 강좌를 실시한다.

이번 강좌는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 성철 스님을 25년간 모신 원택 스님, 원철 스님(전 해인사 강사), 서재영 박사(조계종 불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변희욱 박사(서울대 강사) 등이 강사로 나선다. 본 강의 외에 '성철 스님의 생애와 전서(全書)'에 대해 박사 논문을 쓴 서명원 신부(서강대 교수)의 '나의 화두참선 입문기'를 주제로한 특강도 실시한다. 또 참가자들은 성철 스님이 주석했던 해인사 대적광전과 백련암에서 1박2일 템플스테이 참가 기회도 주어진다.

<백일법문>은 1967년 해인총림 방장에 취임한 성철 스님이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총림 대중들에게 백일 동안 법문한 내용 중 교리적인 부분을 정리해 펴낸 책이다. 종교의 목적과 정의, 부처님의 깨달음과 초기불교, 중관, 유식, 천태, 화엄 사상과 선종사상에 이르기 까지 불교사상사를 중도로 꿰고 있는 교리공부 교재다.

강의는 11월 24일~2010년 2월 7일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된다. 선착순 40명 접수받으며 참가비는 12만원이다. (02)735-2428

이상언 기자

신행게시판

●**위빠사나 실수행체험**=부산 가람사선원은 매주 목요일 오후 2~4시 위빠사나 이론 및 실수행 체험과 인터뷰를 진행한다. 지도법사는 도오 스님, 정인 스님으로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055)383-3340

●**삼천배 철야정진 기도**=서울 동국대 정각원은 11월 7~8일 저녁 8시 30분 교내 정각원 법당에서 삼천배 철야정진 기도를 실시한다. 철야정진은 108배 예불 대참회문, 요가, 독경 및 소참법문 등이 기도 정진 45분, 휴식 15분으로 진행된다. 별도의 신청은 받지 않으며 누구나 참가가능하다. (02)2260-3016

●**월암 스님 '육조단경' 강설**=군포 법해사는 매달 넷째주 토요일 오후 3시 벽송사 선원장 월암 스님의 <육조단경>강설을 마련했다. 강연 후에는 법해사 주지 영경 스님이 참선 수행지도도 병행한다. 참가비는 1년 회비 30만원으로 누구나 참가가능. (031)394-7253

●**위빠사나 수행 기초과정 개강**=상좌불교한국명상원은 11월 23일~2010년 3월 17일 매주 월, 수 오후 2시 위빠사나 수행 기초과정을 개강한다. 수업은 수행에 대한 이론 60분, 경행 30분, 좌선 60분, 면담의 순서로 이종숙 명상원 지도자가 진행한다. (02)512-5258, cafe.daum.net/vipassanacenter

명상문화연구원 설립

11일 고불법회

한국전통명상문화를 연구 보급할 명상문화연구원이 설립됐다.

(사)명상문화연구원(이사장 세민)은 '명상은 삶의 본질'이라는 기본 정신을 토대로 불교 명상을 비롯한 전통명상문화를 연구 보급에 나선다. 연구원은 쉽고 효과적인 명상수행프로그램의 다양한 개발, 명상의 대중화, 수행과 봉사적 삶을 제시할 계획이다.

11월 1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설립기념 고불법회 및 초청강연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금봉암 주석)의 '명상의 효과와 가치', 혜봉 법사(명상아카데미 원장)의 '명상의 필요성과 실천방안'에 대한 초청강연이 마련됐다. 한국불교학회 김선근 회장은 '명상과 삶, 그 효과적인 대안을 찾아서'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상언 기자



시인·교육자·종교인으로 재조명

영담 김어수 법사 탄생 100주년 기념시비 영월에 제막

한국현대시조의 거장이자 애국지사였던 영담 김어수 법사 탄생 100주년 기념식 및 기념시비 제막식이 10월 24일 김어수 법사 생가터인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직동리에서 거행됐다. 영월문화원(원장 엄태성)이 주최하고 '김어수 시인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위원회'(선양회장 신대식)가 주관했다. 이날 행사는 박선규 영월군수, 장경재 영월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영월군 지역인사와 직동리 마을 주민들, 김어수 법사의 제자 상욱 스님(남양주 불암사), 전국 각지에서 모인 문인, 불교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연회, 시낭송회, 기념시비제막식, 기념식 ,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김어수 시인의 '봄비'가 새겨진 기념시비를 제막식 참석자들이 보고 있다.

기념 강연회에서 동국대 김동준 명예교수는 "김어수 시인은 한국시사의 큰 물줄기를 틀어놓은 현대시조시인의 영역 뿐만 아니라 항일청년운동으로 옥고를 치룬 애국지사, 교육자, 종교인 등 네 가지 영역에서 새롭게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월출신 시인 유정의 사회로 열린 김어수 시인 시낭송회가 열렸다. 김어수 기념공원에 새롭게 김어수 시인 기념시비가 세워졌다. 기존에 세워진 시비가 시조의 율격에 맞지 않아 다시 세우게 된 것이다. 특히 김어수 시인의 시 '봄비'를 새긴 이 시비는 63톤에 이르는 보기 드문 거석으로 지역 주민들에 의해 생가터 인근에서 발견돼 이번에 세워지게 됐다.

식전행사에 이어 영월지역 태생인 문태성 시인의 사회로 열린 기념식에서 엄태성 영월문화원장은 짧은 시간에 많은 자료를 발굴한 관계자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박선규 영월군수는 축사에서 "김어수 시인 선양 사업은 영월군이 지속적으로 일궈 나갈 것"이라 말하고 축사 끝 말미에 김어수 시인의 미발표 유작이었던 '영산(影山)'을 낭송했다.

장경재 영월군의회의장 역시 선양사업에 최대한 협조할 것임을 밝혀 김어수 시인 선양사업은 이번 기념식을 기점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장에서 김어수 법사의 제자 상욱 스님은 미발표 유작시 '설야를 태우는 정' '영산'을 발표했고 신대식 선양회장은 "김어수 시인께서 해방을 맞아 귀국한 김구 선생 귀국장에 한국문단을 대표하여 영접을 나간 새로운 사실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행사장 주변에는 경봉 큰스님이 김어수 법사에게 내린 시를 비롯해 제자 상욱 스님이 소장하고 있는 김어수 법사의 작품들이 전시됐다.

영월군 중동면 단풍산 밑에 자리한 김어수 시인 기념동산은 맑은 계곡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태백산맥 중턱의 좋은 휴식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영월에서 태어난 김어수 법사는 부친이 일제강점의 부당성을 상소한 후 왜경의 눈을 피해 부산으로 옮겨 살게 됐다.

이후 범어사에 출가해 25년간 승려생활을 했고 불교청년동맹 문화부장으로 항일청년운동을 하다 발각되어 6개월간 옥고를 치뤘다. 중앙불교전문학교(현 동국대)를 졸업하고 주로 부산지역에서 교직생활과 포교활동을 했고 1969년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초대 중앙상임포교사로 임명됐으며 1985년 1월7일 입적했다.

이극래 강원지사장

휴휴암서 수륙영가 천도재 봉행

11월 10일… "산 자가 죽은 자에 베푸는 자비 축제"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이 끊이지 않는 1000일 철야기도 도량, 몸도 마음도 쉬어가는 양양 휴휴암에서 수륙영가 천도재가 봉행된다.

양양 휴휴암(회주 홍법)은 11월 10일 경내에서 수륙영가 천도재를 봉행한다.

수륙영가 천도재는 수륙재로도 불린다. 모든 물과 물에 사는 미물중생과 축생 등의 죄업을 씻기 위해 치러지는 의례인 수륙재는 특히 인간이 뭇 생명에 부처님 법을 통해 자비를 베푸는 행위로 알려져 있다.

관세음보살이 바위로 나툰 관음성지 현신도량 휴휴암은 해마다 음력 9월 24일 관음재일이면 성대하게 수륙영가 천도재를 봉행해왔다.


휴휴암 지혜 관세음보살상.

홍법 스님은 "수륙영가 천도재는 산 자가 죽은 자에게 베풀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나누는 자비의 축제"라며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휴휴암은 경내 동쪽에 조성중인 지혜관세음보살 접안식을 2010년 5월 7일(음력 3월 24일) 봉행한다. 이에 앞서 2009년 12월 31일에는 새해맞이 소원등을 밝히는 철야기도를 한다. (033)671-0093

조동섭 기자

"보살계 지키는 청정불자 되기를"

축서사 · 직지사서 보살계 수계법회

봉화 축서사와 김천 직지사에서 보살계 수계대법회가 잇따라 거행됐다.

봉화 축서사(주지 무여)는 10월 24일 경내 금강계단에서 보살계 수계 대법회를 봉행했다.

무여 스님이 전계대화상을, 도일 스님이 갈마아사리, 철우 스님이 교수 아사리를 맡아 진행된 행사에는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을 비롯해 엄태항 봉화군수 등 3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타종으로 시작된 법회는 1,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는 삼귀의례와 보현행원, 헌공, 신도회장의 환영사, 고운사 주지 스님과 봉화군수의 축사, 무여 스님의 법어, 바라밀합창단의 축가, 발원문 등이 진행됐다. 2부에는 수계의식과 철우 스님의 법어, 연비, 계첩수여 등이 이어졌다.

무여 스님은 법어에서 "보살은 스스로 자기의 이상인 불도를 완성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자기보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남에게 봉사하는 갸륵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보살계는 악을 그치고 선을 닦아서 위없는 보리를 이루고 성스러운 도를 성취하는데 기초가 된다"며 "항상 계를 지키는 청정한 사람이 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8일에는 김천 직지사(주지 성웅)에서 제12회 대승보살계 수계대법회가 봉행됐다.

경내 만덕전(금강계단)에서 열린 행사에는 1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불공 및 축원을 시작으로 보살계 수계법회가 진행됐다. 참석한 대중들은 전계대화상 녹원 스님, 갈마아사리에 도원 스님, 교수아사리에 성웅 스님을 모시고 보살계를 받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마침내 부처를 이룰 것을 서원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박영애 영주지국장

"생명 존엄사상 마음에 새기자"

강릉 현덕사, 동식물 영혼 천도재 봉행

강릉 현덕사(주지 현종)는 10월 24일 제10회 동식물 영혼 천도재를 봉행했다.


동식물 영혼천도 추모공연 모습.

창건 10주년 기념대법회와 함께 봉행된 천도재에는 동식물 영혼천도와 생명의 소중함을 위한 추모공연, 동식물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식 및 방생이 봉행됐다. 또한 극락전 기공식과 지역 어르신 500명을 초청한 가운데 경로잔치가 함께 열렸다.

동식물 영혼천도재는 현덕사가 인간의 이기심과 편리함을 충족하기 위해 죽어간 동식물과 전국 도로 위에서 무참하게 생명을 잃고 있는 동물, 실험용으로 숨져간 동물 등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매년 봉행해 왔다.

현종 스님은 "현덕사가 동식물 영가 천도재를 마련한 것은 불성을 지녔던 동식물 부처님들을 위로하고, 이제부터라도 모든 생명의 존엄사상을 마음 깊이 새기고자 하는 뜻"이라며 "모든 존재가 더불어 살아가고, 서로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일깨우는 자리가 돼 달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 출범

영월 법흥사서 의식개혁 운동 첫발

의식개혁 운동단체인 '평화로운 세상만들기(대표이사 도완 · 법흥사 주지)'는 10월 23일 영월 법흥사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10만등 밝히기 대법회와 함께 봉행된 이날 행사에는 지역사회 인사들과 불교신도, 주천고교 불교학생회원 등 7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법회, 현판식, 축하공연 순으로 열렸다.

도완 스님은 "대립과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회혼란의 주된 원인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의 견해를 배척하는데 있다"면서 "나를 변화시켜 가정과 사회를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고 설립취지를 밝혔다.

이어 스님은 "그간 민주주의 학습을 통해 권리의식은 크게 성장했지만 책임의식은 결여돼 왔다"면서 "나를 새롭게 바꾸는 것이 곧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로운 세상만들기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덕목으로 △매일 가족과 5분 이상 눈 마주하며 이야기하기 △어제 즐거웠던 일 하나 떠 올리기 △하루 10분 '나는 누구인가' 명상하기 △하루 한번 다른 사람 칭찬해주기 △하루 한 가지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기 등을 제시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 1단계 사업으로 내년 2월 평화아카데미를 개최하고 6월경 서울경기지역본부 설치, 8월경 제1회 청소년 평화캠프를 계획했다. (033) 375-9173

이극래 강원지사장

가평군 불교사암연합회 창립

14일 가평문화예술회관서 창립법회

가평군 불교사암연합회(회장 승원 · 백련사 주지)는 11월 14일 오후 2시 가평 문화예술회관에서 창립기념대법회를 봉행한다.

가평군은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춰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도기계화보병사단과 66보병사단, 야전수송교육단 등 많은 군부대가 위치해 전법과 교화에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가평에는 60여 사찰이 있지만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사암연합회가 결성되지 못했다.

승원 스님은 "가평군 발전과 불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가평 불교사암연합회를 창립하게 됐다"며 "지역복지활동, 포교와 관련한 연대활동, 환경운동, 종교간 대화활동 등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前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법문하고, 자비와 나눔으로 하나되는 가평을 위해 10kg들이 쌀 500포가 지역 불우이웃에 전달될 예정이다. (031)585-0686

조동섭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자승 큰스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본사
효찰대본산
용 주 사

주 지 정 호
특 보 성 로
부주지 성 직

총무국장 성 무 교무국장 탄 웅 재무국장 응 진
사회국장 덕 조 포교국장 덕 본 박물관장 보 승

■ 부설 : 효행박물관 경기불교대학 효행교육원 용주사 템플스테이



총무원 :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88 ☎ 031)234-0040 / 팩스 031)234-2818 www.yongjoosa.or.kr

이웃 종교 RELIGION

"잔혹범죄자에 재생기회 줘야"

불교·가톨릭·개신교·원불교 사형제 폐지 촉구 공동성명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대표가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10월 26일 발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강우일 주교(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권오성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성택 교무(교정원장)는 성명서를 통해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법이 정한 처벌은 엄정하게 이뤄져야 하며 범죄를 막기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 역시 필요하지만 사형처럼 극단적인 형벌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며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도 진정한 속죄와 양심의 재생기회를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한국은 이미 지난 12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가 분류하는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가 됐다. 이제 국회가 입법을 통해 사형을 폐지하는 절차만 남았으며, 우리는 가장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각 교단 대표들은 "정부는 더 이상 사형집행 재개 등을 언급하지 말고 사형제도 폐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국회는 제15대, 16대, 17대 국회에 이어 발의된 사형폐지특별법이 18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 2007년 12월 30일 국제사회의 분류대로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됐고, 지난 2년간도 사형집행은 없었다.

유엔은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 의정서'를 채택하고 전 세계 국가의 사형폐지를 선언한 지 20년이 넘었으며, 유엔 총회는 이미 두 차례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을 선언했다.

이나은 기자

"종교지도자가 '우리' 생각할 때"

KCRP, 만해마을서 종교간 대화… 미래 종교 역할 모색

"인간은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종교의 순기능을 기대하지만 지금 우리사회는 종교의 근본과는 다르게 사회 분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종교가 사회건강에 이바지하려면 우리 종교가 본래 기능을 되찾아야 합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orean Conference on Religion and Peace, 이하 KCRP)가 서로 다른 종교를 이해하고 종교간 공감의 폭을 넓히고자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각 교단 교역자들은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만해 스님의 자유정신이 깃들어 있는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 만해마을에서 '한국사회의 종교간 대화협력을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서강대 박광서 교수는 '혼자만의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함께 하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폴 발레리(프안스 시인)의 말을 빌리며 '한국사회 종교자유 문제와 종교평화의 길'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종교자유 실현을 위해 "종교지도자들이 먼저 '개인'을 버리고 '우리'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주최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만해마을에서 종교간 협력과 발전을 위한 대화캠프가 열렸다.

"앞으로 종교지도자는 종교를 넘어선 영성을 선도하는 새로운 지도력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서강대 길희성 교수는 "한국사회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종교와 무관하게 '종교적 영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만큼 내재적 초월을 강조하는 동양종교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것이고 기독교신학 역시 이런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며 미래의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강의했다.

한국사회 종교간 협력을 위한 2박3일 간의 여정은 각 종단의 교단운영과 미래비전 소개와 발표를 비롯해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백담사(오세암), 수렴동 계곡 및 양양 낙산사를 거닐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선주 기자

서울시 복지조례 교계 대응책 마련

조계종복지재단 '2009 불교 사회복지법인 간담회'서 조달현 서울시의원 주문

서울시의회에 상정중인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불교계 복지시설 다수의 운영주체가 일반 시민단체 등으로 변경될 위기에 놓일 것으로 드러났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은 10월 27일 AW컨벤션센터에서 '2009 불교 사회복지법인 오찬 간담회'를 통해 30여 주요 불교계 복지법인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불교 사회복지법인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불교계 복지법인 실무자들 모습. 원내는 조달현 서울시 의원.

이날 모임에 참석한 조달현 서울시의원(보건복지위원)은 "서울시가 민간위탁의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재 시의회에 제출한 조례 개정안의 개선사항에 대한 열띤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서울시 조례가 국가시행령과 비슷한 위력을 발휘하는 만큼 민간위탁조례안이 상정될 경우 제도는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불교계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현재 사회복지계에서 조례안과 관련해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위탁관리 계약기간을 현재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는 방안(개정안 제11조 제2항) △같은 수탁기관에 3회 연속 위탁했거나 위탁기간이 10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재계약을 제한하는 방안(제12조 2항) △장기간 운영해온 수탁업체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모집으로 전환해 신규단체와 동일한 조건하에 공모입찰 경쟁하는 방안(제22조 2항)이다.

복지계는 위탁관리 계약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에 대해 기존의 3년 운영기간에서 2년을 운영하고 1년간 준비해 심사받았던 재위탁 심사일정과 비교해 개선된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제는 제12조, 제22조가 상정될 경우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불교계 산하 복지법인시설을 이웃종교 또는 시민단체 등 민간법인이 운영할 수 있게 돼 20년간 일궈온 불교복지계의 입지가 더욱 약해질 전망이다.

복지계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재수탁 마지막 3회 차에 직원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지속적인 복지서비스가 차단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삼는다.

조계종 복지재단 최종환 사무국장은 "은평구 소년의집을 가톨릭에서 20~30년 운영해왔는데 제12조 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면 당장 시설을 내놓게 된다. 불교계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조달현 의원은 "복지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고 있으나, 시민사회에서는 시설이 종교행사를 하는 곳이 아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안이 생긴 것은 민간위탁이 모든 사회복지서비스의 최선이 아닌 다각적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일부 시민사회의 지속적 문제제기에 의한 것이다.

시민단체는 재위탁시 공개경쟁을 할 경우 △지속적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매너리즘 차단 △부실한 법인 퇴출 △건실한 신규 법인 진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이호영 사무국장은 "국내 복지시설 중 50%가 종교재단에서 운영되는 만큼 조례안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서는 각 기초자치단체와 해당시설, 협회, 법인 등에 의견들을 수렴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종교계 법인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해 왜곡되게 인식하는 부분을 개선하도록 종교계시설들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불교계복지시설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발전하는 것만이 대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오 스님, 불교사회복지법인연합회 사무총장 이암 스님을 비롯해 연꽃마을, 인덕원, 승가원, 통도사자비원 등 30여 종단법인 실무책임자가 참여했다.

이나은 기자

초등 공부습관 특강

3~24일 증산정보도서관

초등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어린 자녀들이 올바른 공부습관을 갖기 위한 특강이 마련됐다.

서울은평구립증산정보도서관(대표 성운)은 11월 3~24일 '한 번 익혀 평생 가는 초등 공부습관' 특별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초등학생 때 꼭 잡아줘야 할 3대 공부습관과 그 효용에 대한 강의를 위주로 진행된다.

김영사 무한지식충전소 손병목 소장이 강사로 나서 △부모 역할 훈련 시간 △예습복습을 통한 자기 주도 학습법 등을 가르친다. (02)307-6030

이나은 기자

맞춤노인전문요양시설서 쉬세요

10월 23일 진각복지센터 개관

진각종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혜정)이 10월 23일 설립 10주년을 맞아 노인요양시설인 진각복지센터 개관식을 봉행했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한 진각복지센터는 지하 2층, 지상 5층의 연면적 4429.25㎡의 규모로 건립됐다.

선진국형 맞춤노인전문요양시설을 지향하는 진각복지센터는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 및 재활치료, 다양한 사회적응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입소대상은 노인장기요양 1, 2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로 모집정원은 120명이다.


진각종 관계자들이 진각복지센터 개관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이날 개관식에서 혜정 정사는 "진각복지재단 설립 10년이라는 짧은 역사임에도 과거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세우기 위해 센터를 건립했다"며 "이웃과 사회를 위한 불교복지센터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행사에는 일정 정사 등 원로스승들과 진각종 종의회의장 성초 정사, 사감원장 효운 정사, 서찬교 성북구청장, 배도순 위덕대 총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복지재단은 서울특별시 후원, 문화복지연대 주최로 10월 24일 진각종 총인원 앞마당에서 월곡동 지역문화축제 '월곡동 이야기'를 열었다. (02)942-0149

이나은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www.beomeo.kr

大韓佛教 曹溪宗 第14教區 本寺
禪刹大本山 金井山 梵魚寺

조 실 지 유
주 지 정 여

선원장 인 각 박물관장 경 선 강 주 용 학
총무국장 도 관 교무국장 승 련 재무국장 정 현
사회국장 법 귀 포교국장 일 광 호법국장 돈 각
연수국장 도 명 원 주 정 오 도 감 도우·효원
신도회장 이 윤 희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 종무소 ☎ 051)508-3122~5 FAX 051)508-3229 원주실 508-3636 템플스테이 508-5726 범어사불교대학 양정불교회관 4층 TEL.866-7277 FAX.864-7290 성보박물관 TEL.508-6139 사회복지법인 범어 · (재)범어청소년동네 TEL.508-8822

승가 지도력이 포교 · 호법 필수 요건

조계종 불학연구소 '승려 의식성향과 승가상' 주제 학술세미나 열려



현대는 다종교 경쟁사회다. 더욱이 종교편향 등 이웃종교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때 불교의 주요 구성원인 스님의 사회적 지도력과 영향력이 약화되면 불교의 종교적 지위마저도 위태로워진다. 과거 계율을 지키고 수행으로써 간접적인 지도력을 발휘했던 승가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제는 승가의 지도력이 홍법과 포교는 물론 불교계 권익보호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현종)가 10월 19일 발표한 '바람직한 승가상 정립을 위한 조계종 승려 의식성향 조사 결과'에서도 승가의 지도력은 강조됐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사진)는 28일 템플스테이정보센터에서 '조계종 승려의 의식성향과 바람직한 승가상'을 주제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승가 지도력 강화를 위해 교육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조사에서 스님들이 갖춰야할 가장 중요한 능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청정한 계행의 실천'(29.2%)과, '사회적 약자 중생에 대한 자비'(22.3%),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과 통찰'(12.9%), '참선 수행 이력'(12.7%), '교리에 대한 지식'(10.2%), 상담능력(4.3%), 설법능력(3.0%), '갈등조정능력'(1.8%) 순으로 답했다.

김 교수는 "응답한 스님들이 생각하는 '스님들의 능력'은 자질론에 많이 치우치고 있다"며 "스님들의 능력은 수행적 자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계율의 실천, 참선 등을 통해 자비심과 통찰력을 갖추기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또, 김응철 교수는 "응답분포로 볼 때 스님들이 생각하는 지도력은 간접적 지도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승가의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스님의 자질 향상'(35.6%)을 꼽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바람직한 승려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응답자 다수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정진'(38.6%)을 꼽았다.

김 교수는 "조사 결과를 보면 스님들은 전통적인 승가상에 더해 새로운 승가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하지만 승가상의 변화기에서 아직 확고한 방향은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응철 교수는 승가상의 변화기를 교육체계 개선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승가교육을 통해 계행의 실천과 사회적 회향의 정신을 강조하고 그것에 필요한 교육 내용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승가의 위상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승가교육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새로운 승가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승가교육은 맞춤형 전문교육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응철 교수는 "새로운 승가 교육제도는 수행에 필요한 일반적 자질을 함양하는 보편적 교육에 더해 개인의 약점을 보완하고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맞춤형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수는 "승가교육 변화를 위해서는 교육기관별 소집단 이기주의와 문중과 교구중심적 사고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한국사회의 종교적 균열과 한국 승려의 사회적 역할' 등을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안성두 교수 선정

불교평론 올해의 논문상

안성두 서울대 교수가 불교평론이 제정한 '2009 올해의 논문상'에 선정됐다.

불교평론(편집인 홍사성)은 10월 26일 '2009 올해의 논문상' 수상자로 논문 '원칙 <해심밀경소(解深密經疎)> 티벳 역의 성격과 의의'(인도철학 제27집 게재)를 쓴 안성두 교수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안 교수는 "오늘날 불교학 연구에는 타학문 분야와 같은 통섭적이고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졸고가 선정된 것은 바로 원전이해를 위한 문헌학적 작업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자 선생님들의 공통된 인식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두 교수는 "불교학에서 통합적 이상의 실현은 불교고전문헌의 이해에서 나올 수 있다고 믿는다. 때문에 논문에서 법성(法成)의 티벳 역과 같이 우수하지 않은 번역조차도 원전인 <해심밀경소>의 교정과 이해를 위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논문상 수상자인 안 교수에게는 12월 11일 오후 6시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상금 500만원이 수여된다.

조동섭 기자

"업설, 공업 개념으로 확장시켜야"

박경준 교수 '불교학보' 기고논문에서 주장



불교의 업설은 개인에 국한돼 숙명론으로 오해되기 쉽다. 전생의 업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개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국한된 업설을 공업(共業) 개념으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의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박경준 동국대 교수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인성)이 최근 발간한 <불교학보> 제52집에 주제논문 '불교 공업설의 사회학적 함의'를 기고했다.

박 교수는 "지금까지 업사상이 개인적으로 국한된 면이 없지 않다. 이런 업설은 윤회사상과 결합해 일종의 숙명설로 곡해됐고, 불교계의 사회관계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실천에 걸림돌이 됐다"고 말했다.

<잡아함경>에서 부처님은 A가 행하고 A가 과보를 받는 것을 상견(常見)의 극단에 떨어지는 것으로, A가 행하고 B가 과보를 받는 것은 단견(斷見)의 극단에 떨어진다고 경계했다.

박경준 교수는 "불교의 업보윤회설은 업을 짓고 과보를 받는 동일한 인격적 주체로서의 통속적인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불교 업설은 신, 숙명, 우연을 부정하며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바탕한 창조적 노력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반경>에서 인간의 고락(苦樂)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제시된 4대(四大), 시절, 토지, 인민은 기세간(器世間)의 범주에 포함된다"며 "4대와 토지는 자연환경으로 시절과 인민은 사회환경을 뜻한다"고 말했다.

업의 과보는 사적이고 신비적인 방식 외에 사회적 법과 제도로도 나타난다.

박 교수는 "불교의 윤리적 분석들은 개인의 업, 고통의 원인을 개인적 무지[무명]에만 초점을 맞춰왔다"며 "(업설을 바로 이해해) 불교도들이 사회적 문제의 관점에서 더 많이 생각하고, 인간이 만든 제도들이 고통을 야기시키는 방식들에 대해 생각하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 그 제도들을 변화시키는 집단적 방식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한국불교와 사찰경영

5일 선학원 학술회의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은 11월 5일 온양관광호텔에서 '21세기 한국불교와 사찰경영'을 주제로 제4회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법진 스님의 기조연설을 비롯해 고명석 조계종 포교원 선임연구원이 '신도교육과 신도조직관리의 효율적 방안'을,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사찰 재정의 관리방안'을, 조기룡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가 '사찰경영의 모범적 사례와 사회적 평가'를 발표한다.

또, 토론자로는 손혁재 경기대 교수, 이준 건국대 명예교수, 박수호 중앙승가대 불교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석한다.

한편, 6일에는 온양관광호텔에서 선학원 전국 분원장 회의가 열린다. 회의에서는 2009년 재단 운영 및 경과에 대한 보고와 분원장 스님들이 지역사찰의 고민을 정리해 발표하는 등 대안을 모색한다.

조동섭 기자

백제 왕궁성 후원·제석사 규모 확인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발굴조사 자문회의서 소개

백제 왕궁성 후원(後苑)과 제석사가람 규모가 확인됐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김용민)는 10월 30일 익산 왕궁리유적(사적 제408호)과 제석사지(사적 제405호) 발굴현장에서 발굴조사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자문회의에서는 1989년부터 진행돼온 익산 왕궁리유적 발굴조사 과정에서 국내최초로 확인된 백제시대 궁성 내부 후원(後苑)의 존재와 물길(曲水路), 보도시설(步道施設), 석축시설(石築施設) 및 건물터 등으로 구성된 내부 시설이 소개됐다.

또, 제석사지 제2차 조사에서는 가람 배치가 기본적으로 사비기 백제의 사찰과 동일하며, 그 규모가 매우 컸음이 확인됐다. 목탑 등 기단 기초부의 특이한 조성 방식도 규명됐다.

제석사지에서는 이미 확인된 목탑지, 금당지, 강당지 이외에 회랑지, 중문지, 동 · 서건물지가 새로 확인됐다. 목탑지의 중심에서 동쪽으로 42.2m 떨어진 지점에서 확인된 동회랑지의 폭은 7.8m로 미륵사지 회랑(폭 6.8m) 등 지금까지 확인된 백제 사찰의 회랑 중 가장 넓다.



제석사지 목탑 주변 항공 사진.

자문회의에서는 목탑지와 금당지 사이 서편에서 목탑과 규모 및 축조수법이 동일한 방형 건물의 기초부(동서 21.5m, 남북 20.8m)가 확인됐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김용민 소장은 "향후 제석사지의 성격 규명을 위해서는 사적 범위의 확대와 제석사지 인근의 폐기장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연구도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삼매 갖추면 염불선

대주 스님 주장

"일심불난 · 삼매 · 성적등지 · 무념 등 조건을 갖추고 염불을 할 때 염불선이 된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10월 24일 법련사에서 '선과 염불'을 주제로 제88차 월례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주 스님(동국대 강사)은 주제발표 '염불선 수행에 대한 재조명'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스님은 "염불선은 칭명염불, 참구염불 등 수행자의 근기에 맞는 염불법을 택한 후 마음을 염불에 집중해 일심불난이 되게 하고 무념의 경지에 도달시켜 해탈열반을 성취하는 선수행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묘경 스님(동국대 박사과정 수료)은 '사조도신의 안심사상과 그 실천'을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관세음보살과 정병, 그 조화로움

국립경주博, 12월 6일까지 전시

관세음보살과 그 지물(持物)인 정병을 주제로 전시회가 열린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은 10월 27일~12월 6일 '관음보살과 정병' 전을 개최한다.

전시는 '관음보살, 자비의 화신'을 소주제로 불상과 불화의 소재가 됐던 관세음보살을, '정병, 관음보살의 상징'을 소주제로 불교 의식구이자 일상생활 용품이던 정병을 깊이 있게 조명했다.

특별전을 위해 백제 불상인 국보 제247호 공주 의당 출토 금동관음보살입상이 옛 신라 땅인 경주를 찾는다. 또,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고려시대 정병인 국보 제92호 청동은입사포류수금문정병(靑銅銀入絲蒲柳水禽文淨甁)도 경주지역에 처음 선보인다. 보물 제1204호 조선시대 수월관음도(한국불교미술박물관 소장)는 불화승으로 유명한 의겸(義謙) 화사가 그린 것으로 고려시대 수월관음도와는 색 다른 미감을 선사한다.

정병은 인도에서 스님이 마실 물을 담던 수행도구 가운데 하나였다. 중국에 관음신앙과 함께 전파되면서 부처나 보살에게 공양 올리는 물을 담는 불교의 의식구로 그 의미와 기능이 확장됐다.

한편,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 미술관 테마전 '정병과 관음신앙'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관음보살의 특징, 관음보살의 상징인 정병을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전시품을 추가해 새롭게 구성한 전시이다. 매주 월요일 휴관. (054)740-7535

조동섭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자승 큰스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방 조 혜 혜 금 경 용 담 월 명 운 천 성 무 산 종 해 산 관 석 리과장 원 주 재 무 교 무 총 무 강 주 강원장 염불원장 선 장 율 주 회 주 실 장 지 주 장 장 장

일주문



수덕사선미술관개관기념전시회

예산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은 11월 5일까지 수덕사 선미술관 개관 2주년 기념 전시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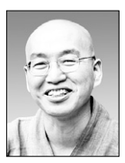
불교환경연대 자연학교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은 11월 14일 용주사와 융.건릉 일대에서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자연학교를 개설한다.



오대산 전국학생미술 · 백일장 공모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11월 6일까지 제6회 오대산 전국학생미술대회 및 백일장 출품 공모를 진행한다. www.woljeongsa.org



평화재단 열린아카데미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은 10월 30일부터 부산일보 사옥 대강당에서 제3기 열린아카데미를 개최한다.



대구 마야의집 바자회

대구 해덕암 마야의집 이사장 법춘 스님은 10월 22일 '아름다운 베품' 바자회를 개최했다. (053)744-3638



불교TV 전통식품 쇼핑몰 오픈

불교TV 구본일 사장은 10월 5일 전통식품전문 쇼핑몰 산사애(愛)(www.sansae.co.kr)를 개설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2009 정기총회

참여불교재가연대 김동건 상임대표는 11월 28일 3시 만해NGO교육센터에서 2009년 총회를 개최한다.



한기늠 조형연구소 개소

한기늠 작가가 10월 31일 부산 달맞이언덕 알렉산더 1층에서 한기늠 조형연구소와 갤러리를 오픈했다.



생명나눔 대구지역본부 창립

생명나눔실천본부 대구지역본부 박종명 본부장은 11월 7일 오후 3시 대구 동구보건소 5층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053)945-0009

화촉

금강신문사 배희정 기자가 11월 7일 오후 12시 30분 강남목화웨딩문화원 1층 아도니스홀에서 이영수 군과 화촉을 밝힌다. (02)723-1548

시스템 혁신으로 정체성 확립

제6대 포교사단장 선출된 임희웅 포교사

"순수한 포교 일념으로 불법을 홍포하고 지혜와 자비의 정신으로 중생교화와 불국정토 건설에 앞장서는 포교사단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역사상 최초로 경선을 통해 선출된 제6대 신임포교사단장 임희웅(사진 · 77) 포교사가 당선소감을 밝혔다. 임희웅 포교사는 "불교와 포교는 불가분의 관계다. 부처님이 포교사이듯 불제자로서 포교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3대 수석부단장을 하면서 팔재계를 만들고 살림을 살아본 장본인인 만큼 파사현정의 수행정신으로 청정하고 투명한 포교사단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임희웅 포교사는 포교사단의 내부갈등, 포교사의 명확한 활동 지침과 정체성 부재 등의 문제 해결에도 나설 예정이다. 그는 "각종 만남의 장을 마련해 포교사단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고 포교 영역 확대로 포교사의 위상을 높이겠다"며 "출가와 재가가 함께 발전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을 때 포교사단의 정체성이 바로 선다. 숨어있는 인재 등용, 각종 정관의 개정 보완과 운영 시스템의 제도적 보완 등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포교사는 이와 함께 조직 기반의 안정화를 위한 포교회관 조기 건립, 포교사단 100년 대계의 기초를 다지는 <포교사단 10년사> 발간도 계획하고 있다.



임희웅 포교사.

임희웅 포교사는 "포교사는 개개인의 수행과 엄격한 자기관리가 선행 돼야 한다. 출가자의 입장에서 하는 수행을 통해 승가에 대한 존엄성을 느낄 것" 이라며 "교육과 수행으로 정신건강, 재테크를 통한 물질건강, 육체건강 등 포교사 개인의 행복부터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임희웅 포교사는 국민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해병대 대위로 예편했다. (주)쌍용 부장을 거쳐 장흥산업사를 경영, 1996년 동산불교대학 졸업과 동시에 조계종 포교사 품수를 받아 서울 서부지역에서 군포교 활동을 펼쳤다. 2000년 포교사단 창단 멤버로 종교편향특별위원장, 통일분과위원장, 제3대 포교사단 수석부단장을 지냈다. 그밖에도 제19회 포교대상 원력상을 수상, 포교원 바른불교정보사업단장의 소임을 맡았다. 임 포교사는 현재 호국설악사 · 무우사 등 법회를 주관하는 등의 군포교 팀활동과 군장병 안보교육, 불교대학 강의 등 활발한 전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임희웅 포교사는 10월 23일 제6대 포교사단장 선거에 앞서 21일 서울경기지역단장선거에서 32표를 받은 임원갑 후보보다 3표를 더 얻어 서울경기지역 단장을 겸임하게 됐다. 제6대 포교사단장 임기는 2010년 1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이상언 기자

대불련 학생 특별장학금 수여

지관 스님, 대학생불자 10명에 2000여 만원 전달

퇴임을 일주일여 앞두고 지관 스님이 대학생들에게 특별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관 스님은 10월 23일 전국 대학생불자 10명을 선발해 20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전국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소속으로 신심과 원력으로 불교학생회를 이끌고, 불교활동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됐다. 2006년 총무원장 장학금 수여식 이후 두번째로 전달된 이번 장학금은 예산 책정이 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지관 스님이 퇴임 직전 청년불자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것이다.

지관 스님은 장학금 전달식에서 "장학금 전달은 한동안 단절됐던 대학생들과의 유대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며 "면학심을 내어 공부를 잘 하는 것, 부처님에 대한 향심(向心)이 깊어지는 것이 개인, 모교,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언 기자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창종

초대종정 화엄 스님 · 초대 총무원장 혜봉 스님 취임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총무원장 혜봉)은 10월 24일 총무원이 있는 포항 흥해읍 연봉사 야외법당에서 '종단 창종과 초대종정 화엄 스님 및 초대 총무원장 혜봉 스님 취임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혜월 스님(호국국사단 명예총재), 해공 스님(총효사 회주), 청암 스님(총남불교조계종 종정)을 비롯해 각 종단 지도자 및 종단 임원 사부대중 800여 명이 참석했다.

초대 종정으로 추대된 화엄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부처님의 혜명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으로 자신의 청정불성을 알아 법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창립법회에서는 원로원장 구담 스님, 사정원장 법안 스님 등 종단 각 임원에 대한 임명식과 종도들에 대한 감사패도 수여됐다. (054)262-5060

제6회 불교학연구지원사업 선정

15일, 배상환 · 정영식 박사 강남포교원서 수여식 봉행



배상환 연구교수.



정영식 연구교수.

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이사장 법상)는 최근 배상환 · 정영식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를 제6회 불교학연구지원사업 번역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 배상환 연구교수는 <프라산나파다>, 정영식 연구교수는 <대혜보각선사 보설> 번역을 위해 1000만원 씩을 지원받는다.

<프라산나파다>는 용수의 <중론게송>에 대한 주석서다. 7세기 남인도 바라문 출신으로 중관파 귀류논증법의 시조라 불리는 월칭이 지었다.

<대혜보각선사보설>은 한국과 중국에는 전하지 않고 일본에만 전하는 문헌이다. 대혜의 <서장>이 일반재가신도에게 보낸 편지글인데 비해 <대혜보각선사보설>은 재가신자를 비롯해 승려들에게 행한 설법으로 화두, 경전 구절 등에 대한 설법이 주를 이룬다.

심사위원단은 심사평을 통해 "배상환 연구교수의 <프라산나파다>는 한국에 완역이 없는 중요한 문헌"이라고 말했다. 또, "정영식 연구교수의 <대혜보각선사보설>은 대혜의 저술로는 <서장>만이 번역 · 유통되는 상황에서 송대 선종사 연구의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장학자 지원사업 수여식은 11월 5일 오후 2시 강남포교원에서 개최된다. (02)539-2631

조동섭 기자

17회 법비 광명 보살 수계 대법회

동해사, 종단 지도자 및 임원 500여명 참석

양양 동해사(주지 무일)는 10월 29일 동해사 대웅전에서 '제17회 동해사 법비광명 고승초청 보살수계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동해사 회주 의륜 스님(한국근본불교조계종 창종주), 한국불교정토종 이사장 지산 스님, 한국불교여래종 종정 인왕 스님, 한국불교대불종 총무원장 만주 스님,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일응 스님 등 각 종단 지도자 및 종단 임원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법주인 의륜 스님의 계설을 시작으로 진행된 보살계에서 400여 불자들은 계를 수지했다.



양양 동해사에서 10월 29일 봉행된 제17회 동해사 법비광명 고승보살수계 대법회에 참가한 스님들.

정토종 이사장 지산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생명같이 법을 지키는 것이 불자의 도리며 이를 위해 마음을 청정히 하고 열린 마음으로 신심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1992년부터 시작된 동해사 법비광명은 올해로 17회를 맞고 있으며 11월 20일까지 철야용맹기도를 진행한다. (033)672-2900

대한불교법상종 종도 정기 교육 및 법계품수 봉행

(사)대한불교법상종(총무원장 해월)은 10월 21~23일 법상종 총본산 안성 쌍미륵사에서 종정 자봉 스님을 모시고 '종도 정기 교육 및 단일계단 법계품수'를 봉행했다.

정기교육 회향일인 23일에는 종정 자봉 스님이 증명 법사로, 총무원장 해월 스님이 계사로 단일품계가 실시돼 107명의 종도가 법계를 품수 받았다. 법계품수에서는 종단 화합의 일환으로 황가사에서 고유 문양을 삽입한 홍갈색 가사로 통일한 가사 점안식도 열렸다.

가사 점안식에서 제14대 총무원장 해월 스님은 종도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깊은 사의를 표하며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당부했다. (031)653-1250

가산 지관 큰스님 초청

가평군 불교사암연합회 창립기념 대법회

"자비와 나눔으로 하나되는 가평!"

가산 지관 큰스님 초청 가평군 불교사암연합회 창립기념 대법회에 불자님들을 초청 하오니 무루 동참 바랍니다.

• 일 시 _ 불기 2553년(2009년) 11월 14일 토요일(음 9. 28) 오후 2시
• 장 소 _ 가평 문화예술회관(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337번지 소재)

- 주관·주최 : 가평군 불교사암연합회
- 후원 : 불교신문, 불교방송, 불교TV, 가평군재가불자연합회
- 문의 : 031-585-0686, 사무총장 010-9037-37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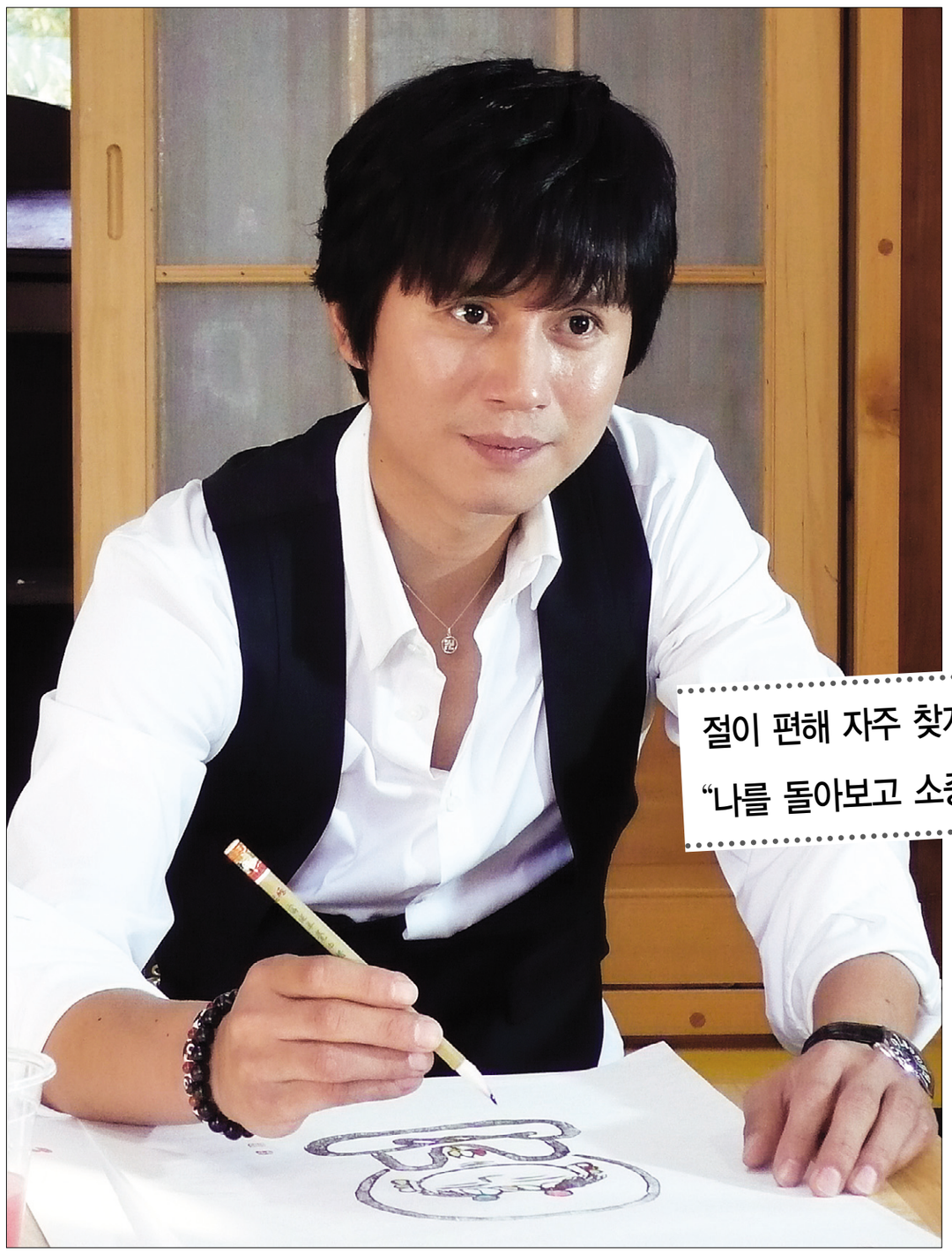
사암연합회 창립 취지 및 배경

- 불교문화의 창달과 불법 홍포
- 불교복지 및 청소년 포교사업
- 지역 포교를 위한 정보교류 및 포교연대활동
- 수행환경 및 자연환경 보호활동
- 종교평화 및 종교간 대화활동
- 불법 홍포를 위한 관내의 관공서, 군부대 및 학교 등과의 결연 및 후원사업
- 지역 내 불교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사업
- 가평지역 불교 발전을 위한 연합행사 개최
- 사찰 불사에 따른 정보교류
- 지역 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활동

가평군 불교사암연합회

김민종과 함께 하는 템플스테이 in 마곡사

마음 비우고 욕심 줄여 삶 자체가 수행


사불수행 중인 김민종.

절이 편해 자주 찾게 돼… 지선 스님 아버지 같은 분
"나를 돌아보고 소중한 추억 만드는 시간 되길 바라"

춘마곡 추갑사(春麻谷秋甲寺) 즉, 봄에는 마곡사 계곡에 핀 꽃을, 가을에는 갑사(甲寺)의 풍성함이 일색이란다. 옛말 하나 그른 것 없다고 하지만 아니다. 마곡사는 봄도 가을도 아름답다. 완숙미를 풍기는 마곡사계곡의 가을 풍취에 빠질 찰라. '찰칵 찰칵' 막바지 단풍구경을 온 관광객들로 넘쳐나는 계곡을 타고 카메라 셔터 소리와 웃음소리가 터져 나온다. 천년 세월을 간직한 마곡사 5층탑이 모습을 보이자 발걸음을 재촉하다 못해 내달려 갔다.

짜잔~! 말쑥한 외모에 훤칠한 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심플한 만(卍)자 목걸이가 돋보이는 독실한 불자 연예인 김민종이었다. 천연 감염색 조끼를 맞춰 입은 100여 여인들이 관세음보살을 만난 듯 모습을 놓칠세라 크고 작은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러댄다. 김민종을 보기위해 멀리 일본에서 달려온 불자팬들이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가 주최하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이 주관한 '김민종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in 마곡사' 가 10월 24일 마곡사(주지 원혜)와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일원에서 개최됐다.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한국 33관음성지 등 전통불교문화를 소개하고 관광객의 지방유치 확대를 위해 기획됐다. 33관음성지 순례는 일본 베이비붐 세대와 역사문화 관심층을 대상으로 유치된지 1년 만에 1만 5000여 명이 다녀가는 성과를 거둔 인기 관광 상품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꿩도 먹고 알도 먹는 고품격 관광 프로그램에 스타와 팬미팅까지 하는 기회도 잡았다.

입제가 없으면 즐거운 회향도 없는 법. 입제식에 앞서 한국 불교의례에 익숙하지 않은 일본팬들은 절하는 법 등 기본적인 사찰예절을 습득했다. 입제식에서 진경 스님(한국불교문화사업단 국장)은 "한국 불교계의 보물과 같은 관음성지 마곡사에서 소중한 추억을 쌓게 된 인연을 시작으로 양국 문화교류의 더욱 큰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 행사가 치러지게 된 것은 일상 속에서 불자로서 생활포교를 실천해 온 김민종의 덕이 크다"고 말했다.

김민종은 팬들과 함께 문수보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문수보살 채색은 내 안의 본래부처, 내 마음을 그리는 사불(寫佛) 수행이었다. "절에는 많이 왔지만 그림을 그리는 건 처음이에요. 제가 그림에는 소질이 없어요. 그래도 유아시절로 돌아가 제 마음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며 시작했던 그는 "생각보다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요"라며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기도 했다.

불화그리기를 마치고 단주만들기 시간. 무릎을 꿇고 앉는 것이 익숙한 일본인들은 다소곳이 앉아 정성스럽게 단주를 만들고 서로 마주보며 23배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절 수행, 염불 수행의 문화가 낯설게 느껴질 법도 하지만 한


김민종을 찾아온 일본팬들이 그와 함께 사불수행을 하고 있다.

치의 거부반응도 없었다. 고령인 탓에 다리가 불편한 이들은 앉아서도 죽비 1타에 원을 담아 합장반배를 올리는 모습은 여지없는 참불자의 모습이었다.

100% 한식으로 저녁 공양을 마친 참가자들은 미니 콘서트장을 향했다. 팬미팅 시간이 되자 팬들은 고대하던 시간이었다는 듯 그의 방송과 노래, 연기생활에 관한 다양한 질문들을 쏟아내며 태화산 가을밤을 물들였다.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있는 팬을 응원하는 김민종.

김민종은 팬미팅 자리에서 "일본에서 한국 33관음성지까지 성지순례하시는 불심 깊으신 참가자들이 뜻 깊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란다. 특별한 의미를 찾는다기 보다는 잠시나마 나를 돌아보고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불교문화와 정신문화를 전하는 의미있는 시간이다. 불교국가인 일본과 우리나라의 전통 불교문화 교류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연예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입제식을 마치고 참가자들과 함께 찍은 단체사진.

'품절 불자연예인' 김민종

불자스타 김민종은 외할머니가 스님이었다. 그와 불교의 지중한 인연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 김민종이 사찰을 찾는 것은 이제 하나의 습관과 같은 것이란다.

"어린 시절에는 할머니 스님께서 용돈을 많이 주셔서 가기도 했지만 지금은 마음이 편해져서 가요. 중학교 시절에는 절에서 학교를 다니기도 했고요. 주변에 불자친구가 많아 함께 등산하면서 절에 갑니다. 또 종교를 떠나 동료들과 함께 절에 오면 오히려 그들이 마음이 편해진다며 좋아해요. 술을 먹다가도 친한 스님을 찾아가 다담(茶談)을 하기도 해요. 절에 가면 집에 온 듯 하고 또 집에서 못 느끼는 편안함과 고요함을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불교가 제 성격과 맞는 것 같아요."

그는 시간이 날 때면 경기도 소재 광덕사를 찾아 마음의 고요를 얻는다. 또 1년에 한번씩은 꼭 설악산 봉정암으로 기도를 떠나고, 때때로 장성 백양사 지선 스님을 찾아뵙는다.

"개인적으로 설악산을 좋아해요. 몇 해 전 가수 강타와 함께 봉정암에 가면서 정말 고생했던 잊지 못할 추억이 있어요. 백양사 지선 스님은 제 아버지와 같은 분이세요. 스님을 뵙고 행복한 삶은 무엇인지, 어떻게 마음을 비우는지에 대해서도 듣습니다."

그에게 불교는 삶 그 자체였다. 가까운 이웃들과 어울리며 함께 하는 포교도 그의 삶에 일부였다.

"특별한 수행이라고 하기보다는 삶 그 자체가 수행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줄이면 모든 게 편해져요. 종교를 떠나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지쳐 보이고 쫓기는 삶을 사는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 절에도 가자고 하고 말이에요."

글 · 사진=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호수길 걸으며 명상에 잠기다

7일, 제1회 명상따라 걷는 부산불교 걷기대회 개최

바라보는 곳마다 단풍이 불타오르고 가을바람이 싱그러운, 이 좋은 가을이 흘러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법당 밖으로 나와 가을 속을 거닐며 명상에 잠겨보자.

제1회 '명상 따라 걷는 부산불교 걷기대회'가 11월 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성지곡 부산어린이대공원 순환도로에서 개최된다.

10월 20일 창립 1주년을 맞는 부산불교연합신도회(회장 설동근)와 부산불교연합회가 주최하고, BBS 부산불교방송(사장 박순곤)이 주관하는 이번 걷기대회는 전국 최고 규모를 자랑하는 부산지역 불교신도들의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는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에서 삼귀의, 반야심경, 설동근 회장(부산시 교육감)의 대회사, 정여 부산불교연합회장 격려사, 허남식 부산시장, 제종모 부산시의회의장, 유기준 한나라당 부산시당위원장의 축사, 참가자 몸 풀기 체조, 코스 안내 등의 순으로 30분 간 마련된다.

이어 2부 걷기대회는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을 출발해 성지곡수원지, 놀이동산, 수변공원, 동물원 등지를 돌아오는 코스로, 어린이대공원 순환도로 약 3.4km구간을 1시간여 일주하고 광장으로 돌아오면 된다.

끝으로 3부에는 무대공연 및 경품 추첨, 참가자 장기자랑 등 흥겨운 회향축제가 마련된다.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과 빵, 음료 등 간식이 제공되며, 추첨을 통해 증정될 경품으로는 자전거 108대, 코모도호텔 경주 숙박권과 뷔페이용권, 종합건강진단권, 에어부산 국내선 왕복항공권, 부산 시민회관 영화관람권, 건강식품 등이 풍성하게 준비돼 있다. 참가신청은 인근 사찰에서 1500명, 당일 현장에서 500명에 한해 선착순 모집한다.

설동근 회장은 "불교의 수행방법 중 하나인 명상을 걷기와 접목해 타 걷기대회와는 차별화를 두고 있다"며 "깊어가는 가을, 아름다운 호수와 단풍으로 물든 숲길을 걸으며 건강도 증진하고 여유로운 명상에 잠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051) 861-8800 www.baob.kr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부산여자상업고 합창단 대상

제2회 전국청소년합창경연대회 개최



대상을 수상한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합창단.

제2회 전국청소년합창경연대회에서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김창덕) 합창단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협회장 백명숙)는 10월 24일 금정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제2회 전국청소년합창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파라미타에 소속된 전국 종립학교 합창단 중 예선 심사를 거쳐 통과한 총 9개 학교 합창단이 본선무대에 올랐다.

1부 개회식 및 창립13주년 기념식을 시작으로 2부 합창경연대회, 3부 시상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백명숙 협회장은 "부산파라미타는 교원특수분야 직무연수를 6년 여에 걸쳐 훌륭히 해나고 있고, 파라미타캠프를 비롯한 청소년문화탐방 프로그램 등으로 전국의 파라미타에 모범이 되고 있다"며 13주년을 평가했다.

수상자는 금상 김해 월산중(교장 박승호)와 김해 중앙여자중(교장 민성기), 은상 전주 서신중(교장 한병갑)와 부산 해동중(교장 손태석), 동상 양산 신주중(교장 이복귀)와 광주 정광중(교장 형남성), 장려상 울산 제일고(교장 이순익)와 부산 금정중(교장 현익채) 등이 각각 차지했다.

파라미타 부산지부 총재 정여 스님은 "청소년의 문화활동에 적극 동참해 준 파라미타 소속 학교장 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전국청소년합창경연대회가 맑고 고운 화음을 불자 및 비불자 청소년들에게 선사하는 법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지원 기자

"계는 마음 깨끗하게 하는 것"

금정중 학생 73% 교직원 100% 오계 수계



금정중학교 학생들이 범어사 스님에게 연비를 받고 있다.

금정중학교(교장 현익채)는 10월 27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제35회 수계식을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회에서는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을 계사로 학생 328명, 교직원 8명, 학부모 18명 등 총 354명이 수계를 받았다. 이로써 금정중학교 재학생 73%, 교직원은 100% 전원이 오계를 수지하게 됐다.

주지 정여 스님은 "계를 받는 것은 모든 악한 것에 섞이지 않고 착한 일을 행하고 스스로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가꾸는 것"이라며 "오늘 받은 오계가 앞으로 나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울타리를 쳐줄 테니 항상 잊지 말라"는 법문과 함께 수계증과 기념 염주를 전달했다.

박지원 기자

교학연구발표회

23일, 해동중학교서

교학불사에 노심초사하는 전국 불교종립학교 교장선생님과 교법사들이 10월 23일 해동중학교(교장 손태석)에 모였다.

올해 제39회를 맞은 교학연구발표회는 청소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도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회는 환희지 법당에서 개회식을 갖고, 2교시부터 전 학년 21개 교실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이욱태 교법사의 우리나라 고건축 감상법 수업에는 1학년 학생들이 종교학습지를 교재로, 고건축의 용어와 특징을 이해하고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방법 등을 학습했다.

제39회 교학연구발표회 시범학교로 선정된 해동중학교는 이달 초 환희지 법당을 확장 이전해 쾌적한 신행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손태석 교장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심성 밝고 아름답게 자라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진리 · 극락왕생 · 태평성대 기원

28일, 故 강석진 회장 제25주기 영산대재



동명불원 마당에서 영산대재를 봉행하고 있다.

동명불원(주지 정산) 창건주 故강석진 거사(동명목재 회장)의 제 25주기 기일을 맞아 영산대재를 봉행했다. 10월 28일 동명불원 마당에서 거행된 영산대재는 오전 10시 외대령, 괘불이운을 시작으로 영산작법, 각 청사, 상주권공, 주지 정산 스님 법문, 관욕, 시식 등의 순으로 여법하게 이뤄졌다.

영산대는 불교의 재의식 중 가장 장엄하고 화려한 의식으로 산자는 진리의 깨달음에 이르게 하고, 망자에겐 영혼을 천도해 극락왕생하게 하며, 난세에는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불교의식의 백미로 손꼽힌다.

특히, 불모산 영산재 보존회(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지정 제22호)의 진행으로 선보인 구성지고 웅장한 사성의 범음과 화려한 바라무, 무게감이 돋보인 나비무 등의 불교작법은 한국전통불교예술의 정수를 선보였다.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금정중학교 현익채 교장

"포교하지 않으면 불자가 아니다"

농담 조금 보태서 부산 불교계에서 이 사람 모르면 간첩이다. 1969년 부산대 재학 시절 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이하 대불련) 활동 이후 지금까지 대불련 동문회로 활약하는 이 사람. 지난 40년간 15권의 부산불교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책과 총람 등을 편찬했고, 총 20여 개 불교신행단체에서 실무자로서 부지런히 활동했으며, 직접 창단한 단체만 8개에 이른다. 현재 종립학교 금정중학교 교장으로 청소년불자 양성에 매진하는 이 사람. 바로 현익채(61. 법명 무심) 교장이다.



현익채 교장.

1974년 '부산불교홍법회'를 시작으로 청소년 포교에 도반들의 원력이 모였다. 이어 '법륜불교어린이회' '부산불교중학생연합회' '운전기사불자회' '부산중등교원불자회' '재단법인 불심홍법원' 등의 단체를 창립했다. 2007년 창립한 교육경영직불자 모임 푸루나 부산지부는 발기인 대회 이후 3개월 만에 200여 명의 회원이 모였다. 현 교장은 지금 생각해도 기적이라고 말한다.

"교사불자모임에 가보면 젊은 현직교사는 안보이고 죄다 퇴임한 교장, 교감, 장학사 선생님들 뿐 이었어요. 금정중학교 교장으로서도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푸루나에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모여서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전법의 최전방에서 종횡무진해 온 그는 40년의 세월 동안 밤 12시 이전에 귀가해 가족들과 저녁 밥상을 마주하는 일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보통 청소년불자모임 한 곳에서만도 4월 신입생환영회, 6월 체육대회, 8월 수련대회, 10월 독경대회 등 격월로 큰 행사를 치릅니다. 그런데 동시에 10여 신행단체에서 소임을 맡다보니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병을 얻어 몸져눕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 교장에게 그간의 포교활동은 보석처럼 빛나고 값진 시간이었다. 7~80년대 어린이, 청소년 불교를 비롯한 부산불교 최고의 부흥기의 크고 작은 법석과 함께 수행하던 도반들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뜨겁다.

"당시보다 어린이, 청소년 불교가 침체돼 안타깝지요. 반면에 절마다 교양대학을 운영하면서 공부하는 신도들은 많아졌고, 도심에 포교당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내는 등 긍정적인 발전도 많습니다."

현익채 교장에게 포교란 불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고, 삶의 전부다. 불법을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부처님의 전도선언을 가슴 깊이 새기고, 부처님 가르침을 청소년들에게 전하기로 다짐했다.

"흔히 부산 시민 중 2000만 명이 불자라지만, 실제 매월 1회 이상 절에 와서 기도하고 예불 드리고 공부하는 불자는 10~15% 밖에 안될껄요? 이웃종교에 비해 불교는 포교에 있어서 유달리 소극적이에요. 오는 사람 안 막고, 가는 사람 안 잡는 거죠. 간혹 깨닫고 나서 포교를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안한다는 말이거든요. 전도, 전법이야말로 최선의 보살행입니다. 포교하지 않는다면 불자가 아니에요."

박지원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자승 큰스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銀 海 寺

주지 운곡 돈관

사부대중일동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9 ☎ (054)335-3318~9 홈 www.eunhaesa.or.kr

불기 2553년 | 제1회 걷기대회

명상따라 걷는 부산불교



행사일시 2009. 11. 7(토) 09:00 ~ 12:00
집결장소 어린이대공원 옆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
걷기코스 어린이대공원 순환도로 (3.4km)
참가인원 3,000명
참가신청 불자 : 각 사찰에서 일괄 접수
시민 : 당일 현장 접수 (선착순 500명)
참가문의 051-797-5114, 051-861-8800

| 경품내역 : 자전거 108대, 종합 건강진단권, 국내 왕복 항공권, 영화 관람권, 경주코모도호텔 숙박권 부산코모도호텔 뷔페 식사권, 놀이동산 자유이용권, 건강보조식품

| 참 가 비 : 무료 | 참가자 전원 기념품 및 빵 음료 제공

주 최 |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www.baob.kr),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주 관 | BBS 부산불교방송 (www.bbsradio.co.kr)
후 원 |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교육청, 범어사, 삼광사, 안국선원, 미룡사, 법연원
협 찬 | 구포성심병원, 농협부산경남유통, 동국대, 동일전기, 대우산업, 대원플러스건설, 미월드, 부산경남경마공원, 부산불교지도자포럼 부산상호저축은행, 부산시민회관,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부산아시아드컨트리클럽, 서부산센텀병원, 에어부산, 엠제이테크, 종로금속 (주)DSE, 천호식품, 코모도호텔, 태금정, 한국닛산, 한국한의원, H·S캐미칼 (가나다순)
| 특별협찬 | 파크랜드

부산불교연합신도회 Tel. 051) 861-8800 Fax. 051) 861-8802 www.baob.kr

한가족 큰잔치 송광종합복지관

송광종합복지관(관장 도제)은 10월 28일 복지관 앞마당에서 관장 취임식 및 지역 내 장애우와 노인들을 위한 '한마음 · 한가족 큰잔치'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17번째 맞는 이날 행사는 1부 취임식과 2부 지역 어른 점심공양 및 축하공연, 주민노래자랑 순으로 진행됐으며, 현고 스님(송광종합복지관 이사장), 성오 스님(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도제 스님은 취임사에서 "송광복지관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장으로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길을 걷겠다"고 말했다.

또, 행사에는 지역의 최고령 어른에 대한 장수상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으로 가족의 화합을 이끄는 가족상 시상식과 노래자랑 등이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웅전 낙성법회 봉행 태고종 광주 법륜사

광주 신도심에 해당하는 서구지역에 전통과 현대식이 조화된 수행공간이 완공돼 불교포교 활성화가 기대된다.

태고종 광주 법륜사(주지 월인)는 10월 25일 천불이 봉안된 설법전과 대웅전 낙성법회와 문화공연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태고종 중앙원로의원인 지암 · 지허 스님, 성오 스님(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금명 스님(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장), 김영진 국회의원,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을 비롯한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지허 스님은 법문에서 "불교의 수행은 자신이 부처임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좋은 도량은 많은 이들이 와서 마음공부를 하는 곳"이라며, "법륜사는 오늘부터 여러분이 부처님을 알려주는 길을 걸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인 스님은 경과보고와 함께 인사말에서 "사찰 창건 당시에는 인적이 없는 오지였으나, 지금은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서 도시 중심지가 되어 사찰의 변화가 필요했다"며 "앞으로 많은 포교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아토피 없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선운사, 아토피 낫는 이색 템플스테이 '눈길'

아토피는 제2의 천형(天刑)이라 불릴 만큼 완치가 어렵다.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을 위한 템플스테이가 열려 눈길을 끈다.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10월 23~25일 사찰의 자연친화적 환경과 생활방식 체험을 통해 아토피 치료에 도움을 주는 이색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아토피 환경친화학교로 지정된 전북 진안 조림초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학부모 30여 명이 동참했다.

참가 학생과 부모들은 화학조미료가 들어있지 않은 전통 사찰음식 만드는 법, 천연조미료 만들는 법, 녹차잎과 황토를 이용한 천연염색 등을 배웠다. 또, 녹차밭으로 이동해 차꽃을 따고 꽃을 이용한 꿀차 만드법 등 자연환경을 이용한 사찰의 식생활방식을 체험했다.

특히 발우 공양과 숲속 걷기 명상은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고 심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위축에서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을 북돋는 계기가 됐다.


10월 23~25일 선운사에서 열린 템플스테이에 참석한 어린이가 어머니와 염색체험을 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다 아이의 아토피가 심해 진안 조림초교로 전학 왔다는 김문숙(전북 진안 조림면. 42세)씨는 "도시 학교에서 아토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왕따까지 당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선운사 산사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친환경적인 사찰생활양식과 식생활에서 많은 가르침을 얻고 간다"고 말했다.

이어 선운사는 29일 전북겨레하나와 함께 전주 노블레스 웨딩홀에서 '남북청소년지킴이 615인의 밤'을 개최했다.

전북겨레하나와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는 이경옥 행정부지사와 최규호 전북교육감, 최규성 국회의원을 비롯한 남북청소년지킴이 615인을 비롯한 10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법만 스님은 "나이와 종교, 직업은 달라도 남북이 하나되어 평화와 번영이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은 모두 하나"라며 "지난 3년간 북한 청소년들에게 보낸 교과서용 종이가 남과 북의 마음을 활짝 여는 등불이 되고 통일과 화해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청소년 615인 후원의 밤을 통해 후원에 동참한 사람은 888명으로 6200만원의 성금이 모금됐다. 모금된 후원금은 6.15공동선언의 의미를 담아 북한 학생들의 교과서용 종이 지원, 중고교 평화통일교육, 청소년 평화통일 기자단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음악 페스티벌 개최

다문화가정 ·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다문화가정과 외국인근로자가 함께하는 우리음악 페스티벌이 펼쳐져 화제다.

광주지역 유일한 불교계 외국인단체인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10월 18일 충장로축제가 열리고 있는 광주 금남로에서 다문화가정과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우리음악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6명의 다문화가정 주부들이 펼치는 다문화 두드리 사물팀과 캄보디아 시낭송, 네팔 음악, 대금연주, 필리핀 이그릇 댄스, 캄보디아 노래, 스리랑카 노래(북), 인도 춤을 선보였다.특히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다국적 팀으로 이뤄진 사물팀은 매주 3시간씩 3개월의 연습기간을 통해 배운 풍물공연을 이날 선보여 참여한 광주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각 나라의 전통춤을 선보인 필리핀 이그릇 댄스, 인도 춤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필리핀 전통춤을 공연한 5년차 주부 알린다(한국명 박희진 · 32)씨는 "친구들과 같이 참가하여 너무 기쁘다. 연습하면서 같이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다"고 참가소감을 이야기 했다.

행사를 준비한 이주성 센터장은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은 불교국가에서 온 경우가 많다. 사찰에서 이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062)962-3395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시민의 평안 기원합니다"

광주동구불교협의회, 무등산 산신제 봉행

"광주를 돌보는 수호산이시여, 무등산을 보호하고, 광주시민들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광주의 어머니산이라 불리는 무등산 산신에게 기도를 드리는 의식이 진행됐다. 광주동구불교협의회(회장 지각)는 10월 21일 무등산 장불재에서 회원스님과 전통불교영산회 스님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무등산 산신제'를 봉행했다.


10월 21일 무등산 장불재에서 봉행된 산신제 모습.

이날 행사는 900m 높이의 장불재에서 법회의식과 영산재에 이은 축원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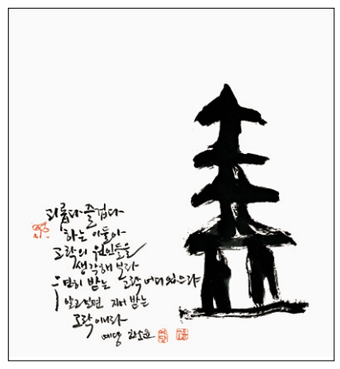
지각 스님은 인사말에서 "무등산은 광주시민의 평온한 안식처이다. 우리 스스로 무등산을 아끼고 사랑해야 후손에게도 물려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등산은 광주 도심에서 대중교통으로 20분이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근교에 위치한 높이 1187m의 명산으로 산세가 웅대해 성산(聖山)으로 알려져 있다. 봄 철쭉,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설경 등의 사철경관이 절경을 이루고 많은 절과 유적이 있는 산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소윤 첫 번째 '마음' 전 개최

2일부터 익산 솜리예술회관에서

익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서예가 한소윤 작가의 첫 번째 '마음'전이 10월 27일~11월 2일 예술의전당에 이어 11월 2~6일 익산 솜리 예술의전당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한소윤 작가의 작품 '고락의 노래'

법정 스님의 글과 참회문, 정호승 신인의 시, 연꽃등 글씨와 수묵화 20여점을 선보인 이번 전시회는 스님과 유명인의 법어와 시를 아름다운 선과 그림으로 담아내고 있다.

익산에서 활발한 불교활동을 하고 있는 한상현 김덕순 부부의 차녀인 한소윤 작가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어린시절부터 부모님의 영향으로 룸비니와 대불련에서의 불교 활동을 통해 내면 속 깊숙한 곳은 마음이 작품 속에 그대로 녹아 있다.

한소윤 작가는 "그동안의 공부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이번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며 "늘 고민하며 불법과 대중이 좋아하는 작품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소윤 작가는 원광대 서예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활발한 작품활동과 함께 익산도서관, 시민문화강좌 주민센터 등에서 주민들에게 서예를 가르치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군민 '하나' 된 축제한마당

영암 도갑사, 제4회 도선국사 문화예술제 개최

영암 도갑사(주지 월우)는 10월 24일 도선국사 탄신 제1182주년을 맞아 '제4회 도선 국사 문화예술제'를 개최했다.

도선 국사의 뜻을 기리고 재조명하고자 열린 이번 예술제는 도선 국사 다례제를 시작으로 도올 김용옥 교수의 특별강연회, 혜성 스님의 차 이야기, 군민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 장복수화가 전시회 등이 열려 군민이 하나된 축제한마당이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는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을 비롯해 각 사암스님, 김일태 영암군수, 영암군민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참여했다. 월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도선 국사는 영암에서 태어나 비보풍수를 통해 인간과 환경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 것을 발원했다"며 "도선 국사의 뜻을 되새겨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도올 김용옥 씨는 '효경과 자녀교육, 그리고 우리민족의 미래'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유가의 효가 충효를 강조한다면 <부모은중경>에서 보여주듯 불교의 효는 자비를 바탕에 둔 보은(報恩)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자 연예인 김용림과 마야, 진주아, 박정식 등이 출연하는 산사음악회와 사진으로 보는 도갑사와 풍수형국 모형도, 장복수 화가 전시회, 도자기 만들기 등도 열렸다. (061)473-9734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기사 넘쳐 이번 주 부루나존자는 쉽니다



전생과 현생 업장소멸 법륜대(윤장대) 탄생 !!!

매일매일 경전을 읽는 공덕 업장이 소멸하는 법륜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쪽법륜대 1080분의 부처님이 봉안되어 가족 이름은 물론
경전을 복장하는 행사가 줄을 이어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전생록에 기록된 금강경을 각 개인마다 다른 숫자로 법륜대에
복장하게 되어 전생에 묵은 빚, 해탈이 복 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 법륜대의 특징

1. 대한민국 수제명품으로 불교문화의 예술성이 뛰어난 우리나라 초유의 상감청자 법륜대로 탄생하였습니다.
2. 전기료 걱정 없이 에메랄드 빛이 나는 10w 전구 하나로 조명되어 법당 장엄은 물론 사찰경제 지킴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도량에 따라 (관음, 지장, 약사여래 등) 천불 및 만불전 법륜대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특허의기술

□ 제품명 : 순금천불봉안법륜대
□ 재 질 : 대한민국 상감청자
□ 높 이 : 110cm □ 원통폭 : 45cm
□ 밑받침폭 : 30cm □ 무 게 : 25kg



불모 청오스님 약력
• 1965년 출가입산
• 통도사 보광전 부처님 조성
• 범어사 내원 부처님 조성
• 해운대 해운정사 금동 천수천안 조성
• 서울 동국대 대학원(불교학) 수료
• 법무교화 정법회(부산) 초대회장
• 茶(차)잎열매 자연이 준 청다향원장
• 국가관 투철 1037호 표창장수상
• 법륜대(윤장대)실용신안특허취득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 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혜능 선사의 보임수행처에 동화선사 우뚝

육조 혜능선사와 동화산

중국 광동성(廣東城) 신흥현(新興縣)에서 태어난 6조 혜능 스님은 어려서 부친을 잃은 데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땔나무를 팔며 살던 가난한 나무꾼 소년이었다. 어느 날 손님이 읽는〈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이란 구절을 듣는 순간 마음이 밝아져 황매산(黃梅山)에 있던 5조 홍인 스님을 찾아가 출가의 뜻을 밝혔다.

이 때 홍인 스님이 "너는 영남지방의 오랑캐인데,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느냐?" 하고 사람됨을 떠보자, 혜능은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으나 불성에는 남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해 행자가 된다.

혜능은 이후 절에서 여덟 달 동안 방아를 찧다가 마침내 홍인 스님의 입실 제자가 되어 〈금강경〉 법문을 듣고 단번에 크게 깨달아 그날 밤으로 법을 전수받아 선종의 6조(六祖)가 됐다. 밤중에 스승으로부터 전법의 표시인 '가사와 발우(衣鉢)'를 받고 시기하는 자들을 피해 남쪽으로 간 혜능 선사는 14년간 사냥꾼 무리에 숨어지내다가 조계(曹溪) 보림사에서 선풍을 크게 일으켰다. 그렇다면, 조사선의 진정한 창립자로 불리는 혜능 선사가 암살 위험을 피해 숨어서 보임(保任) 즉, 깨달음을 보호하고 지켜가는 공부에 몰두한 곳은 어디일까. 그곳은 광동성 옹원현(翁源縣) 동화산(東華山) 자락이었음이 본지 취재결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밝혀졌다.



관광객 출입이 금지된 동화선사의 자재당(自在堂). 3층으로 구성된 선원에는 1000여명이 동시에 참선할 수 있다.

"행동하는 자비심이 진정한 자비심"
만행 스님 '폐관 수행' 알려지며 30만명 신도모여

#혜능 선사, 옹원현 동화산에서 14년간 보임

10월 24일 오후, 광동성 광주공항에 내려 2시간 30분 정도 승용차를 달려 도착한 옹원현에서 다시 시골길을 10여 분 정도 들어가니 기이한 풍광의 산세가 모습을 드러낸다. 독수리봉, 사자봉, 코끼리봉, 관음봉, 낙타봉 등의 형상을 한 봉우리로 둘러싸인 동화산이었다. 석회암 동굴이 발달되어 곳곳에 긴 동굴과 수행처가 남아있는 동화산은 그야말로 육조 스님이 한눈에 수행처임을 직감한 도량이었던 것이다.

〈소관부지(韶關府志)〉의 기록에 따르면, 남조시대 양나라 무제의 천감 원년(502년)에 인도의 고승 지약(智葯) 선사가 바다를 건너 광동성 옹원현 동화산에 왔다고 전한다. 지약 선사는 이 산의 영기(靈氣)가 비범하다고 느껴 영취사를 창건했다. 영취사는 수나라 때 전쟁으로 파괴되었는데, 당나라 때 육조 혜능 스님이 정혜 스님을 데리고 와서 영취사를 동화사라 개명했다. 그러나 명청 때의 전쟁으로 다시 폐사가 되고 말았다.

동화산에는 그후 절터만 남아있었지만 다행히 동굴 수행처들은 온전히 보전됐다. 특히, 깍아지른 절벽 위에 나있는 혜능동(慧能洞)은 지약 선사와 혜능 선사가 머물던 동굴로, 현재 삼성동(三聖洞)으로 개명되어 잘 관리되고 있다. 젊은 선객이었던 만행 스님이 1997년 8월부터 3년간, 이 동굴에서 세 번째 폐관(閉關: 공양구만 남기고 문을 봉인한 채 정진하는 무문관 수행) 정진을 무사히 마친 후, 혜능동을 삼성동으로 개명하고 동화선사를 창건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다.

1997년 대만의 고승 약휘 스님의 증명하에 입관의식을 치른 만행 스님은 혜능동에 들어가기 직전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죽거든 동굴 밖 멀지 않은 곳에 묻어주시오. 수행하는 사람의 호법(護法)이 되고 삼성동의 호법이 되겠소."

#만행 스님 혜능굴에서 세 번째 무문관 수행

만행 스님이 무문관 수행을 처음 결행한 것은 민남(閩南)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22세 되던 1993년 1월부터였다. 복건성 장주시 서죽사 근처의 동굴(絶塵洞)에서 여러 도반 스님들과 거사들의 성원을 받으며 입관한 스님은 23개월을 보낸 후, 1994년 12월 20일 출관했다. 동굴에서 스님은 하루 18시간씩 좌선을 하고, 나머지 6시간도 '옴마니반메훔' 6자진언과 태극권 등을 수련하며 잠을 자지 않았다. 좌선할 때는 결가부좌를 하고 굴의 천장에 기둥을 매고 동아줄을 늘어뜨린 뒤 목을 감음으로써 혹여 자신도 모르게 눕게 되는 것을 방비했다. 2년간의 혹독한 폐관 수행을 하며 스님은 무아(無我)삼매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한다.

하지만, 스스로 완성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여긴 만행 스님은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서장(西藏) 연화도에서 1995년 1월부터 1996년 가을까지 두 번째 폐관 정진에 들어갔다. 랍몽(拉蒙) 대선사의 지도아래 육근(六根)을 닫고 하루 종일 선정에 들어, 명심견성(明心見性: 마음을 밝혀 성품을 봄)과 실상무상(實相無相: 실상은 모양이 없다)을 체험한다.

그러나 랍몽 대선사는 "너는 이제 젖을 떼어도 되겠다. 그러나 더 튼튼하게 하자면 아직도 수차 반복하면서 길러내야 한다"며 철저한 보임공부를 당부한다.

그리하여 마지막 목숨을 건 폐관 정진이 1997년 8월부터 2000년 9월까지 이곳 혜능동에서 이어진 것이다. 끝없이 머무는 바 없이, 닦는 바 없이 3년간의 무문관 수행을 마친 스님은 "종극의 미지(未知)를 철저히 깨달아 온 몸과 마음이 활짝 열리는 가운데 공(空)과 유(有)를 초월하고 삼계를 초월해 다시금 세간으로 돌아왔다"고 전한다.

#365일 집중수행 하는 동화선사

"믿으려면 굳게 믿고 수행하려면 꾸준히 힘을 다하라. 일 처리는 원만하고 융통성 있게 하라. 도(道)는 인간 세상에 있으며 '공'에도 '유'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와 같이, "행동 하는 자비심이 진정한 자비심"임을 깨달은 만행 스님은 마침내, 무문관 수행처 아래 옛 동화선사 터에 동화선사를 창건했다. 그리고 중국불교협회의 비준아래 1998년 동화사 방장에 취임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동화선사를 증축, 1000여명이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광동성 최대의 선종 사찰을 중건하기에 이른다. 이제 일반대중을 상대로 수행과 보살행을 지도할 전법도량이 마련된 것이다.

10월 25일 새벽 4시 30분, 동화선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예불은 비구, 비구니 스님 50명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1시간 여 동안 진행됐다. 중국식 종과 목탁, 요령 등의 울림과 염불 가락이 아름답고도 장엄한 화음을 연출했다. 능엄신주 염송과 아미타경 독경, 관음 정근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의 예불의식 보다 복잡하고 길지만 예불시간 자체가 염불 · 독경 수행이 됨을 느꼈다.

예불이 끝나자 사부대중은 대웅전에서 나와 기러기 처럼 줄을 지어 아직 어두운 도량을 가로질러 공양간으로 향한다. 1000여명은 수용함직한 넓은 공양간에서도 예법은 엄정했다. 사부대중은 일사분란하게 공양진언을 외운 후 묵언하며 식사를 하고 공양구도 직접 씻는다.

아침 청소 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참선, 간경, 설법, 연화생(불교기공) 수련 등 수행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어 저녁예불에 이어 밤 9시까지 이어진다. 365일 내내 집중수행이 이어지는 중국에서도 보





동화선사 방장 만행 스님이 3년간 무문관 수행을 마친 삼성동(위)에서 좌선하는 필자(아래왼쪽)와 대유학당 윤상철 대표.

※ 카다로그가 필요한 사찰은 연락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덤핑으로 판매하는 타사 제품과 종이 질(두께), 스프링 제본 등 견고함을 비교하여 주세요!

역시 이름값하는
경인년 감로불교카렌다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폐사에서는 불기 2554년 카렌다를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말없는 포교사' 라는 사명감으로
다양한 소재와 고품격 이미지로 정성을 다하여 한 차원 높은 카렌다를 제작하였습니다.
항상 부처님과 사부대중의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전국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들의 많으신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중하고 고마운 분들에게 더없는 법보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산사에 피는 야생화 -大, 小 (3단 카렌다)


아름다운 기도-大, 小


깨달음의 길을 간 큰스님-大, 小


이루어주소서-大, 小




보현행자의 서원-大, 小


禪의 미소-大, 小


동자승의 세계-大, 小


산사의 향기-大, 小


달라이라마의 행복이야기-大, 小


법음이 있는 산사-大, 小


수행의 길-大, 小


연꽃의 향연-大, 小


아름다운 절-大, 小


피안으로 가는 길-大, 小


탑이 있는 풍경-大, 小


적멸보궁과 기도처-大, 小


관음의 미소-大, 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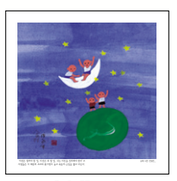

산사에 피는 들꽃-大, 小


선승의 노래-大, 小


깨달음의 미소-大, 小


세계불교 성지순례 -大, 小


염화미소-大, 小


하얀꿈 - 小

규격 특대호-국전 (91.9×61.5cm) | 한지-국 3절 (30.5×63cm) | 大-국 6절 (30×31cm) | 小-4×6 12절 (25.5×26.5cm) | 탁상용 (21.5×15cm) | 미니 차량용 (8.8×9.5cm) | 메모 수첩용 (9.5×13.5cm)

감로기획 서울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TEL. (02)723-4306 FAX. (02)738-8682 www.gamro.net

전국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외부인 출입막고 365일 집중 수행… '일심불란' 강조





동화산 삼성동에서 내려다 본 동화선사 전경과 삼성동 인근 바위에 새겨져 있는 육조 혜능 선사의 발자국(오른쪽).

기 드문 수행전문도량인 것이다.

비구니 창지 스님, 3년 무문관 회향 설법

10월 25일 저녁 8시, 저녁 예불에 이어 두 시간의 참선이 끝나고 특별 법문시간이 마련됐다. 이날은 사자봉 아래 동굴 무문관에서 3년간의 폐관 정진을 마치고 나온 비구니 창지(昌智) 스님이 수행담을 발표하는 날이었다. 대웅전에서 200여 수행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57세의 창지 스님은 간절하면서도 빠른 말투로 1시간 이상 체험담을 말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통역자와 다수의 대중도 알아먹기 힘든 광동 사투리라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다.

창지 스님의 수행담이 끝나자, 방장 만행 스님은 창지 스님의 용맹정진을 격려하는 한편, "수행자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 무슨 정진을 하든 일심불난(一心不亂)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하루 뒤, "창지 스님의 수행 경지에 대해 말씀해 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만행 스님은 "아직 문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짤막하게 평했다.

7년동안 세 번의 무문관 결제를 마치고 10년 동안 불사를 하고 있는 만행 스님은 동화선사를 완전한 수행도량으로 만들어놓았고, 365일 집중수행을 하고 있었다. 육조 스님과 만행 스님이 정진한 삼성암 이외에 길고 짧은 동굴이 많아서 관광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만행 스님은 1000여명이 동시에 좌선할 수 있는 3층 규모의 선원인 자재당을 건립, 외부인 출입을 금지시키고 수행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10년만에 신도 30만의 수행전문도량 일궈

동화선사에서 100㎞ 이남에 위치한 남화사에는 육조 스님의 등신불이 모셔져 있어 널리 알려져 있으나, 육조 스님이 14년간 보임공부한 동화선사는 중국에서도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불과 10년만에 2만㎡에 달하는 전각들을 건립해 육조 스님의 수행도량을 중흥시킨 만행 스님의 폐관 수행이 널리 알려지면서 동화선사는 현재 30여 만명의 신도를 가진 거찰이 됐다.

특히, 스님의 구도기와 법문을 담은 <마음의 달(心中月)>과 <항복기심(降伏其心)>이 100만 부 이상 보급되면서 중국 전역은 물론 홍콩, 대만 등 외국에서 온 수행자들도 장기간 머물며 정진하는 전문수행처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어로 번역된 <마음의 달>(대유학당 刊)에 추천사를 쓴 한국불교금강선원 총재 활안 스님은 "만행 스님은 세 차례에 걸쳐 폐침망찬(廢寢忘餐: 잠을 자지 않고 음식을 잊음), <능엄경> 50변마사(辯魔事: 삿된 수행경계를 판단함)와 <원각경> 25원통(圓通)을 체험,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고 사회를 구제하는 진정한 선지식이 되었다"고 평한 바 있다. 활안 스님은 또 "만행 스님은 역경 속에서도 좋은 스승을 만나 수행과정의 잘못된 길을 밝히고 건강한 몸으로 도탄에 빠진 중생을 구제하고 있으니, 21세기 지구상에서는 보기 드문 수행자"라며 수행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대웅전에서 좌선중인 동화선사의 200여 사부대중.

중국 광동 =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만행 스님



"능력을 연마하는 것은 동굴속에서 수련할 수 있지만, 심법(心法)의 원만함은 반드시 인간세상에서 수련해야 합니다. 도(道)를 사용하는 것도 인간 세상에 있으니, 돌파해야 하는 것도 당연히 세속에 있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도를 닦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선정입니다."

7년에 걸쳐 3번의 폐관(閉關: 무문관) 정진을 무사히 회향한 동화선사 방장 만행 스님은 "하루 18시간씩 가부좌를 하고 좌선하며 잠을 자지 않는다고 성불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신체로만 닦은 도는 영원하지 못하며 모두 생멸하게 된다"며 "오직 세속에서 수련을 거쳐 심리상태가 비워질 때에야 그 불생불멸(不生不滅) 무형무상(無形無相)한 것(佛性)이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즉, "종극의 불과(佛果)를 얻자면 오로지 인간세상에서 보살도를 행하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

> "심법의 원만함은 반드시 세속에서 수련해야"

만행 스님은 무문관 수행의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서도 자상하게 설명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산속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기를 조절(鍊心調氣)' 했지만, 결국은 비관하거나 실망하고 질병에 걸려 고생이 막심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지 않고 수행하면 어떻게 기(氣)를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산속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으면 당분간 마음이 편할 수 있지만 일단 세속에 들어서면 모든 것이 다 소용 없게 됩니다. 수련을 하는 목적은 도를 남에게 보이자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해 쓰고, 자기의 지혜를 세속에 필요하게 쓰자는 게 목적입니다."

만행 스님은 "세속이야말로 심리 상태와 능력을 검증하고 인품을 검증하는 유일무이하고 효과적인 장소"라며 "수도자가 가장 먼저 닦아야 하는 것이 바로 마음가짐, 지혜, 자비심, 인품과 인격"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스님은 "이와 같은 수련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환경이 바로 세속이요 사람들의 무리"라며 "산림 속에서 수련한다고 해서 선자(禪者)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만행 스님은 혹독한 무문관 수행을 이겨냈지만, 극단적인 고행을 권하지 않고 오히려 단박 깨침의 기연과 늘 깨어있으면서 비춰보는 '각조(覺照)'가 더욱 소중하다고 밝혔다.

"모든 중생은 본래부터 부처인데 또 무슨 부처님이 된다고 합니까? 도(道)는 원래부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풀어놓고 고요히 안정한 뒤에 관(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하기만 하면 됩니다."

1971년생으로 18세에 중국 하문시 남보타사에서 삭발 출가한 만행 스님은 22세에 중국 민남불교대를 졸업하고 1993년부터 7년간 세 번에 걸쳐 폐관 정진에 돌입했다. 1998년 동화선사(www.donghuasi.org) 방장에 취임한 스님은 2003년부터 동화선사 중흥불사에 나서 2008년 10월, 10만 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성대한 낙성식을 봉행했다.

스님은 50여 스님, 종무원들과 함께 불사현장에서 일하는 한편, 틈틈이 제자들과 신도들의 수행을 지도하고 설법하면서 중국에서 보기 드문 수행전문도량을 일구고 있다.



모두에게 공양하고 모두에게 보시하세요

주제:여래의 사자(使者)를 만나다

일시:10월 27일

장소:광주동구KT문화센터

강사: 혜인 스님(제주 약천사회주)



혜인 스님.

신심은 출가승의 생명이요 양식이니…

금생에 윤회 끊고 해탈하겠다는 원력 세워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심과 원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신심은 바로 우리 출가 승려의 생명이요, 양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선 이 신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심즉시불(心卽是佛) 심외무불(心外無佛) 즉 마음이 곧 부처요 마음 밖에 부처는 전부 가짜라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 속 부처를 찾기 위해 가짜 부처님을 통해서 진짜 부처님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들 합장하고 따라해 보십시다.

"불교는 마음을 찾는 종교요, 마음을 보는 종교요, 마음을 아는 종교요, 마음을 깨닫는 종교요, 마음을 잘 사용하도록 가르치는 종교다. 마음이 달라지면 모습이 달라지고, 관상이 바뀌면 내 운명과 팔자도 바뀐다."

마음, 마음, 마음은 아무리 어디든지 찾아봐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만져지지는 아니하는데 그런데 그 미묘한 마음이 슬플 때는 눈물이 나오고, 기쁠 때는 웃음이 나오고, 짜증 날 때는 화가 나고, 누가 나를 칭찬할 때는 기분이 좋으나 어디 들어있는 지를 모릅니다. 모르고 사용하는 자는 중생이요, 이걸 알고 사용하는 자는 부처님입니다.

불교는 마음이 곧 부처이기 때문에 어디 멀리 있는 것을 찾아와서 무슨 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이 마음을 찾고 또 찾아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주인공을 보고, 자기 주인공을 알고, 깨닫고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불자가 된다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첫째 신심의 조건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과를 믿는 것이 신심입니다. 모든 불행과 행복은 어떤 신이 있어서 주는 것도 아니요 부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다 줄 수도 없고, 부모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다 줄 수도 없고, 어떤 마귀가 있어서 우리에게 불행을 다 줄 수도 없습니다.

나한테 주어진 모든 불행은 어디서 왔는가? 그 원인을 우리는 다른데서 돌릴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몸과 입과 마음을 통해서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이 왔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은 왜 만나느냐? 재수가 있어서 복권 당첨되듯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이고, 술 퍼먹고 귀때기 때리는 남편을 만나는 것은 전생의 인연으로 인해서 전생에 귀때기를 많이 때렸기 때문에 그 빚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 내가 그 남편을 만나서 저녁마다 귀때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과법에 의거해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짜증을 많이 내지를 말아야 합니다.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거기 대한 응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고 남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유를 구속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는 스스로 행복의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항상 남을 존경하고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듯 자신이 뿌리고 자신이 받는 것이다. 이 인과를 철두철미하게 믿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처님의 가피를 믿는 것이 신심입니다. 남의 힘을 빌리는 것이 가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서울을 갈려고 그러면 몇 날 며칠을 걸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든지, 택시를 타든지, 열차를 타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남의 힘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불자님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관상이 안 좋고 운명이 안 좋고 팔자가 안 좋은 사람들, 전생에 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부처님의 가피력만 제대로 알게 되면 모든 일들이 뜻대로 다 성취됩니다. 나는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아는 사람입니다. 지극한 신심은 모든 불보살을 감동케 하고, 자기 자신을 감동케 하고, 모든 호법성중을 감동케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원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어떠한 원력(願力)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과거 모든 불보살님들이 원(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특히 나옹 스님 발원문을 좋아합니다.

'문아명자면삼도(聞我名者免三途) 견아형자득해탈(見我形者得解脫)' 내 이름만 듣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옥, 아귀, 축생 삼도의 고통을 면하게 하고, 내 형상을 보기만 해도 해탈을 얻게 하리라. 이 대목이 너무 좋아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절을 하면서 이 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 뭐라 해도 불교는 반드시 금생에 윤회의 고리를 끊고, 극락을 가고, 반드시 견성성불을 한다는 원력을 세워야 합니다. 목표는 견성성불이요, 생사해탈이요, 윤회의 고리를 끊는데 둬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대통령이 됩니까? 부자 됐으면 하는 마음만 가지고 부자 됩니까?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불공을 잘 해야 됩니다. 불공 잘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쌀과 돈을 절에 갖다 줘서 불공만 계속 하면 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불공은 그런 불공이 아니고, 참다운 불공을 해야 합니다.

"선남자여 모든 공양 가운데는 법공양이 으뜸이니라. 부처님 말씀대로 공양을 하는 불공이며,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공양이며, 보살의 할 일을 그만 두지 않는 공양이며,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이니, 이러한 공양이 참다운 공양이니라. 나무아미타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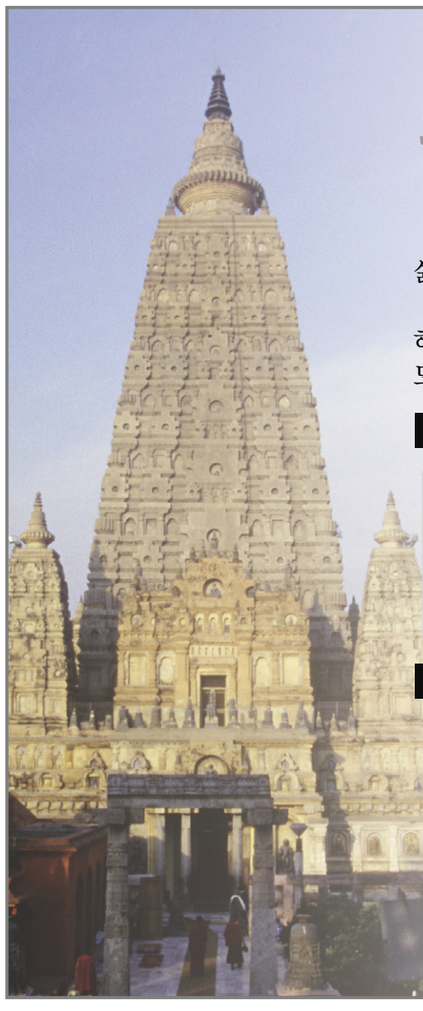
이걸 조목 조목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일 첫째, 불공을 하는 사람은 참회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참회를 잘 하되, 참회하는 사람은 제일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낮추고, 목에 힘주지 말고,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하심공경(下心恭敬) 즉 남을 받들고 남을 존중하고 공경해주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참회는 참회대로 하면서, 참회를 하려고 절은 하는데 마음이 도도하고, 거만하면 참회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용심(用心)을 잘 해야 합니다. 용심을 하는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뜻을 받들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남이 내 뜻을 맞춰주기를 바라는 그 사람은 항상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서로 서로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화엄경>에 '항상 중생의 뜻을 순종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상대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불교다 이겁니다.

'나 혼자서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의 뜻을 다 맞추겠다' 라고 작정을 하라 이 말입니다. 부처님을 기쁘게 하려면 중생들을 기쁘게 하고, 중생들을 괴롭히면 부처님이 슬프고 괴로운 순간입니다. 오늘부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남 기분 나쁜 말 하지 말고, 남 상처주는 말 하지 말고, 남 손해나는 말, 손해나는 행동하지 말고, 항상 상대가 내 뜻을 맞춰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상대를 맞추되 어디까지 맞추느냐. 계속 따

「사단법인 명상문화연구원」 설립기념 '인도순례' 프로젝트



불교성지 및 명상문화 테마기행 동참순례자 모집

사단법인 명상문화연구원은 '명상은 삶의 본질' 이라는 기본정신을 토대로 쉽고 효과적이면서도 다양한 명상수행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명상의 대중화를 통한 수행과 봉사적 삶을 선도함으로써 그 삶의 질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데 근본취지를 두고 설립된 명상수행연구기관입니다.

사단법인 명상문화연구원은 이 같은 설립취지를 현실 속에 구현하고 우리의 명상문화를 보다 성숙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부처님의 고향인 '인도순례' 프로젝트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명상문화연구원이 설립기념으로 준비한 '인도순례' 프로젝트는 불교 7대 성지순례를 비롯하여 그동안 인도여행에서 좀처럼 경험할 수 없었던 북인도 및 남인도 명상기행과 용수보살 유적지 · 아잔타석굴 등을 돌아보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의 수희동참을 바랍니다.

Ⅰ. 순례팀별 주요일정 및 비용

A팀 (본팀, 2010년 1월 9일~1월 24일 14박16일) 327 만원
인도성지순례+북인도명상기행+용수보살유적지+남인도명상기행
인천-델리(오로빈두아쉬람/티베트하우스)-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르-바이샬리-파트나-나란다-라즈기르-보드가야-바라나시-아그라-델리-하이데라바드-나가르주나콘다(용수보살 유적지)-비자야와다(아마라바티대탑)-첸나이-마하발리푸람(남인도세계문화유산)-폰디체리(오로빌 명상센터)-칸치푸람-첸나이-인천

B팀 (2010년 1월 9일~1월 19일 9박11일) 237 만원
인도성지순례 + 북인도명상기행
인천-델리(오로빈두아쉬람명상센터/티베트하우스)-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르-바이샬리-파트나-나란다-라즈기르-보드가야-바라나시-아그라-델리-인천

C팀 (2010년 1월 15일~1월 24일 8박10일) 267 만원
아잔타석굴 + 용수보살유적지 + 남인도명상기행
인천-뭄바이(엘레판트 석굴)-오랑가바드(아잔타/엘로라 석굴)-하이데라바드-나가르주나콘다(용수보살 유적지)-비자야와다(아마라바티대탑)-첸나이-마하발리푸람(남인도 세계문화유산)-폰디체리(오로빌 명상센터)-칸치푸람(남인도 세계문화유산)-첸나이-인천

Ⅱ.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 모 집 기 한 : 2009년 11월 30일(월)까지 각 팀별 60명 선착순
• 신청 및 접수 : 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FAX.(02)734-9937 E-mail : silkroadtour@korea.com ※상세일정표와 준비사항은 신청접수 후 개별통지
※주관여행사로는 불교성지순례 대표여행업체인 (주)실크로드여행사(대표 이상원)를 선정하였습니다.

(사)명상문화연구원 이사장 수봉세민 (조계사 주지)
원 장 만월현종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110-320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1113호 Tel : 1577-0373

※ 금번 '인도순례 명상기행'은 본 법인이사이며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 회장인 김선근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가 지도 및 안내를 맡습니다.

기분 나쁠 때도 웃어야 불자

라가면서 끝까지, 끝까지 비위만 맞추고 뜻만 받들 생각만 가지십시오. 이것이 용심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것입니다. 보리심을 여의지 말고, 보살의 할 일을 그만두지 않는 것이 최고의 불공입니다. 우리 모든 스님들은 수행이 없는 불사는 꺾어 놓은 꽃꽂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불사를 하되 수행이 근본이 돼야 합니다.

생각 생각이 언제든지 염불하는 사람은 나무아미타불 염불 생각이 끊임이 없어야 하고, 화두 하는 사람은 화두가 끊임없어야 되고, 한 생각 주력하는 사람은 주력에 끊임이 없어야 됩니다. 망상이 쳐들어올 틈 없이 보리심을 항상 발해야 합니다.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부처님에게 불공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떡 올리고, 돈 올리고, 절 짓는 것 보다는 불자로서 수행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 그리고 포교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신심과 원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법문도 인연이니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모에게 효도하는 불자가 됩시다. 이 세상에 잘 살다가 가는 길은 남보다 비싼 차를 굴리고, 남보다 넓은 평수에 살고, 남보다 훌륭한 벼슬을 따고, 남보다 많은 재산을 모았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압니다.

'삼일수신천재보(三日修身千載寶)요 백년탐물일조진(百年貪物一朝塵)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흘 동안 닦은 마음은 이 세상을 뜰 때, 천년만년 세세생생의 보배가 되지만, 많은 돈과 많은 패물과 많은 옷과 많은 재산은 티끌만큼도 못하다는 말입니다. 성인의 가르침을 명심해서 항상 우리는 인간답게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물 한 그릇을 떠줘도 고마움을 알고, 나를 낳아 주시고, 길러주시고,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한 평생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해주신 부모님에 대해 최소한 효도는 못할망정, 불효는 해서는 아니됩니다.


2009 빛고을 아카데미 입재식 모습.

아난 존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됩까요?"

부처님께서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흉년이 들어 부모님이 굶어서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잘 드는 칼로 자기의 살을 한 근 한 근 베어내어 불고기를 만들어 올리고, 피를 뽑아서 국을 만들고, 뼈를 갈아서 죽을 만들어 부모님께 봉양하기를 이십년 삼십년을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한 평생 업어주고, 안아주고, 씻어주고, 닦아주며, 사랑해 염려해주신 은혜 만분의 일도 보답하지는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은 모두에게 공양하고, 모두에게 보시하라는 말입니다.

문수보살 게송 중에 이런 게송이 있습니다.

'面上無嗔供養具(면상무진공양구) 口裡無嗔吐妙香(구리무진토묘향) 心裡無嗔是珍寶(심리무진시진보) 無垢無染是眞常(무구무염시진상)이다.

미소 짓는 그 얼굴이 가장 좋은 선물이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복이 되고 향이 되네. 자비롭고 고운 마음 으뜸가는 보배이며, 하심하고 공경하면 참 사람의 모습이다.'

이 미소 짓는 거, 이 입이 백 번 웃어도 어디 아픈 것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디 상처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미소 짓는 연습을 많이 하고, 되도록 웃어야 됩니다. 되도록.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미소 짓는 곳이 이곳 광주여야 합니다. 자 합장하고 따라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저희들은 미소를 지으면서 살겠습니다. 월요일은 원래 웃는 날입니다.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는 날입니다. 수요일은 수도 없이 웃는 날입니다. 목요일은 목이 터지도록 웃는 날입니다.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금방 웃는 날입니다. 토요일은 토라져도 웃는 날입니다. 일요일은 일이 없어도 웃고, 일어나면서부터 웃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분이 나빠도 웃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는 말이 곱지 아니해도 가는 말을 곱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하기가 좋은데 기분이 나빠도 웃는거 이것이 어렵습니다. 기분 좋을 때 누가 못 웃습니까. 오늘 법문 들은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고,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기분이 나쁠 때 웃을 줄 알아야 합니다.

불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남이 용서 못하는 것을 용서할 줄 아는 그 수행을 익히고, 남이 이해 못하는 것을 이해해 줄 줄 아는 그런 불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보살의 가르침이요, 보살의 진리요, 부처님 제자다운 모습입니다.

정리=양행선 광주 전남지사장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67. 태고종 종정 보성 스님

보성(寶城, 1906~1998) 스님은 태고종 제12대, 15대 종정을 지내신 분이다. 그러나 나에겐 동국대학교 총장으로서 졸업증서를 수여해 주셨던 스승님이다.

보성 스님은 1906년 경남에서 태어나 19세에 강원도 건봉사에 출가하였다. 은사인 경담 스님은 모처럼 얻은 귀한 상좌에게 일도 시키지 않고 오직 공부만 하게 했다. 경담 스님은 보성 스님이 1922년 이력을 마친 뒤, 1932년 동경 유학길에 오를 때까지 바로 선방에 들어가 20안거를 성만케 하고 중앙불전까지 마치게 하였다.

경담 스님은 보성 스님이 1940년 일본대학 종교과 전문부를 졸업하고, 1942년 다시 문학부 사학과에서 동양사를 전공하고 돌아올 때까지 모든 비용을 다 대었다. 게다가 고국으로 돌아와 의장과 종정을 두 번 씩이나 역임했지만 그렇게 하심(下心)할 수가 없었다.

보성 스님은 어떤 사람이 와서 절을 해도 그냥 앉아서 받는 법이 없고 꼭 함께 절을 했으며, 설사 사미행자가 찾아와 인사를 하더라도 하대하는 말을 쓰지 않았다.

"스님, 말씀 낮추세요. 이제 갓 출가한 행자입니다."

"그런 소리 마세요. 속에는 황



월이 지나니 그 허물이 저절로 벗겨져 지금은 대한항공 파리지부장을 지내고 있다. 근본적인 병은 남북분단이 병이다. 멀쩡한 유학생들까지 간첩으로 몰아 수십 명이 희생되니 괜히 그 가족들은 돈 버리고 죄인이 된 셈이다. 그 대가를 어디에서 찾아야 한단 말인가.

"조주 옛 늙은이가
앉아서 천성의 길을 끊듯
보성스님 얼굴에 취모검을 들이 댔으나
온 몸에 구멍 한 점 나지 않았네.
여우와 토끼 밤새도록 날뛰다가
사자후 한 소리에 뇌관이 터지니
태고의 맑은 바람
태고에 휘날리네."

평상시 마명 거사의 역사 설화

태고종 12·15대 종정 역임… 스승 말씀 따라 하심하는 삶

국화여자전문학교 교수, 동국대 교수 겸 교무처장, 육군사관학교 교수, 숙명여대 교수와 교무처장, 문리과 대학장이 될 때까지 환희 속에서 제자를 뒷바라지 하셨다고 한다.

한말 "중은 무식한 놈. 부모 처자 없이 빌어먹다 중이 되어 윤리 도덕도 모르는 놈들"이라 하여 얼마나 깔보고 없이 여겼던지 "내 배우지 못했어도 상좌라도 잘 가르쳐서 출세시키면 이같은 없인 여김은 덜 당할 것이 아닌가"하고, "설사 그가 중노릇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 출신이 출세하게 되었으니 이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느냐?"하면서 "동량을 해서라도 가르쳐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보성 스님은 그 뒤 동국대학교 총장이 되어 한국불교교도회 회장이 되었지만, 늘 은사스님의 가슴 아픈 말씀을 뼈저리게 느껴 마침내 출가해 태고종 중앙종회 금부처를 담고 있으면서…."

평소 보시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당부한 스님은 "좋은 말, 웃는 얼굴, 바른 생각에 성불로 가는 길이 있다"며 후학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곤 했다.

"베푸는 마음 속에 부처가 들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관세음보살이고 지장보살인 것입니다. 이 자리가 지옥이고 이 자리가 극락인데 어디에서 부처를 만나겠습니까. 중생의 마음은 지옥이고 부처의 마음이 극락인데 부처의 마음을 키워 가는 자비희사의 보살행을 게을리 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1998년 9월 3일 세수 92세, 법랍 79세로 열반에 들어서는 원주 보림사에서 다비하였는데, 사리를 거두지 말라 명령하시고, 탑을 세우지 말라 하셨다 한다.

세속생활에서 한 가지 가슴 아파하신 것은 독일 유학간 아들이 이북간첩으로 몰린 사건인데, 세를 즐겨 읽으시더니 <불교설화대전> 한 권을 내어 포교자료로 만들고, 말없이 필자의 <불교설화대사전>을 많이 응용했다고 미안해 하셨다. 그러나 그 인연으로 스님의 문집은 큰 상좌와 함께 필자가 정리하게 되었으니, 세상 인연은 겹치고 또 겹치는 것 같다.

검은 안경태 넘어로 잔주름 안개처럼 피어나며 미소 짓는 보성 스님의 모습. 이것이 말년에 우리에게 항상 보여주시던 모습입니다.

중고식멸처(衆苦息滅處)
별유일건곤(別有一乾坤)
차문시하처(且問是何處)
배욕공심문(背欲空心門)

중생 고통 영원히 멸한 곳
천지를 떠난 오직 한 군데
그곳이 어디냐고 묻는가
욕심 버리고 마음 비운 곳이 거기.



김옥암 교수가 쓰는
자족의 경제학 <21>

환경파괴 · 자원고갈은 인류 존속의 문제

자연은 성스러운 존재, 인간은 그 덕택으로 살아간다

원래 인간사회의 문명이란 단독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 자연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 집단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생긴 것이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황하문명 등 어느 고대문명을 보아도 그것이 도시국가에서 시작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도시란 외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자연의 커다란 힘에 대항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 낸 '일대발명'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도의 현대 문명에서는 자연이 외경(畏敬)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친근감을 느끼거나 공존해 가자는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경우는 별로 목격하지 못한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도시 주위에서 대규모의 산림벌채가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벌거숭이 산이 생기고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 숲을 잃은 대지는 빗물을 저장할 수 없어 척박한 땅이 된다. 척박한 토양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샘물은 고갈돼 인간도 살 장소가 없어진다. 이것이 중국의 환경문제다.

이것은 지중해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과거 레바논은 광대한 삼림(森林)이 있었다고 하는데, 선박을 만들기 위해 마구 벌채해서 고대의 상당히 이른 시기에 광대한 숲이 소멸해 버리고 말았다고 한다. 지중해의 섬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처럼 도시문명은 자연을 파괴하고 산림자원을 소비해 버리는 것이 보통이다.

유럽의 주요국에서 산림벌채에 대해 최후까지 저항한 곳은 독일일 것이다. 독일의 땅은 옛날에 '게르마니아'라고 불렸는데, 이 땅에는 끝없이 깊은 삼림이 있었다. 여기에 사는 드루이드승은 숲에 있는 신을 믿고 숲을 성스러운 것으로 생각해 기독교 포교자들에게 저항했는데, 결국 기독교가 승리를 거두고 게르마니아의 숲은 차례로 벌채를 당했다. 그 결과 17세기경까지 독일 삼림의 8할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이런 형태의 자연파괴는 적어도 공업화에 의한 경제개발이 전개되기 이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다. 예로부터 우리는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은 나라'로 불려왔는데, 거기에는 산과 바다를 소중하게 다루고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원래 우리 조상들은 동네 산에 산신제를 지내거나 바다에는 용왕신이 있다고 믿는 자연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같은 애니미즘적인 자연신앙은 고대 세계 여러 곳에 있었으므로, 특별히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로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반도의 경우 그런 소박한 자연숭배사상에 기초를 둔 토착무속(사상)에 외래 종교인 불교가 융합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원래 불교사상에는 '자연숭배'의 요소는 없다. '자연과의 공존'을 강조할 뿐이다. 불교는 인간에게 고뇌를 가져다주는 원인이 되는 '번뇌 망상의 불꽃'을 끄고 자기 내면세계에 있는 본래의 자기(불성)를 찾아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노력하는 주체는 자기 자신이지 자연의 신성함이나 영성에 의존하는 사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수행자 중에는 산속에 들어가 정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자연의 가혹한 환경



그림 · 김필헌

속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으로 스스로를 단련하고 사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는 것이지, 산신을 믿거나 자연 그 자체로부터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교의 가르침, 석가모니 부처님의 연기(緣起)사상은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시공을 초월한 영원의 진리다. 이 우주 공간이 불국토이므로 세계의 어느 지역의 인간이나 길거리에서 자라는 이름 모를 풀잎에도 불성이 있다. 그것은 '산천초목국토 실개불성(山川草木國土 悉皆佛性)' 또는 '산천초목국토 실개성불(山川草木國土悉皆成佛)'이란 말로 표현되고 있다. 그래서 산이나 숲은 인간의 마음대로 무익하게 벌채하면 업(業)으로 쌓이게 된다. 산속에 사는 새의 울음소리나 벌레의 소리가 그대로 인간의 성불을 도와주고 기원하는 경전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자연은 성스러운 존재이고, 인간은 그 덕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상이 불타의 가르침이 아닐까 싶다.

일신교에서는 '자연이란 정복 · 관리 하는 것'이라는 사상이 기본에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런 사상에서는 '자연 그대로', 다시 말해서 메마른 도시를 둘러싼 소박한 자연림은 인간생활에 최소한도로 필요한 환경적 요소로 인식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민의 건강이나 쾌적함을 위해서도 필요한 녹색 공간을 그대로 보존하고 가꾸어야 하는데도, 마구 파헤쳐 주거지역화 해버리는 정책이 남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는 일신교적 토양에서는 예술품이나 공예품에서도 뛰어난 인간의 센스를 정교하게 가공하고 다양하게 의장(意匠)을 하는 것이 더 훌륭한 상품이 된다. 하지만 인간은 자연환경과 공생하며, 자연에 의해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문명이 발달한 현대에도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오늘날처럼 소비문화가 발달할수록 자연과의 공생이 더욱 절실해 져야 하는 것들이다.

이런 문제에 대처하려면 시장경제적 논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산업혁명이래 근대 자본주의가 걸어온 역사, 그것을 지탱해온 철학을 재검토해서 새로운 가치관을 찾아내지 않는 한, 인류는 대량인구의 기아나 기근, 소득격차와 자원쟁탈전쟁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장의 글로벌화 그 자체는 실상 쉽게 중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는 지금 고도로 분업화되고 있어 글로벌 자본주의에 제동을 걸어 그 흐름을 역류시킨다면 수많은 부작용이 따를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에너지나 공업용 원부자재의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하며, GDP의 40% 이상을 해외시장에 의존하는 수출주도형 경제체제 아래서는 글로벌리즘에 제동이 걸린다면 어려움에 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번의 미국발 경제 불황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글로벌 자본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주의가 암묵의 전제로 하고 있던 미국적인 가치관이나 일신교 사상 어느 쪽에 문제가 있었는지 검토하는 일이 될 것이고, 나아가 인류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들 인간이 정말 공유해야 할 진정한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될 것이다. 말을 바꾸면 미국식 자본주의나 근대서양사상의 어느 곳에 잘못이 있고 어떻게 수정해 나가야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인 것이다.

■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허달의 불교와 코칭

㉑ 목표

코칭 전문과정에서는 코칭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강력한 질문이 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로부터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앵무새처럼 이런 류의 '강력 질문'들을 외어서 적당한 기회에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같은 질문이라도, 고객 쪽에 자기성찰의 환경이 무르익었는가의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코치가 고객 내면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질문을 시의 적절하게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코치의 내공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는다.

하지만, 초음파를 발산해 시각을 대신하는 박쥐는 목표물에서 반사되어 오는 초음파를 듣는 귀가 눈이 되는 셈이니 시각과 청각의 구분 또한 방편일 뿐이다. 더 나아가서 중생계의 크고 작은 고뇌의 소리를 자비로서 바라보는 글자 그대로의 관음(觀音)은 어떤가?

고객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상하고 알아차리는 능력은 경청을 넘어서는 오감(五感)의 격외(格外) 능력이므로 억지로 이름을 붙여 '맥락적 경청'이라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를 질문으로 삼아 묻고 그 질문이 강력한 질문이라고 추켜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객과 코치 사이에 연결이 이뤄졌을 때, 코치가 진정성에 입각해 질문하면 고객은 그것이 어떤 질문이든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 과정이 고객에게 작용해 고객은 과거 언젠가 만들어 놓은 자신의 목표가 아직도 변함없이 삶의 근본 목적에 부합하는가를 재검토해 보게 된다는 것이다.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표라는 것은 이루기도 전에 바뀌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그런 점이 바로 변화와 성숙을 거듭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의 한 부분이다. 처음 계획했던 목표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이미 희미해졌는데, 계속 그 마음을 붙들고 늘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원래 품었던 목표가 의미를 상실했다면, 그것은 곧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되새겨 보아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표시이다. 이때에 맞아 떨어지는 것이 위에 기술한 코칭 질문이므로 강력질문이라 한 것이다.

한 친구가 필자에게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아들을 보내왔다. 아들이 무언가 하기는 하겠다는 것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들어서는 무엇을 하겠다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 나더러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른 바 '커리어 코칭'을 부탁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머리 속에 그려보았느냐고 물었더니, '수제 햄버거'집 주방장 겸 주인, 아니면 패션상품 제조 및 판매 회사의 경영주라는 일견 엇갈린 엉뚱한 두 가지 대답이 나왔다.

그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결론만 이야기 한다면, 그는 필자와의 커리어 코칭을 통해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창의적인 노력의 결과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상품을 만드는 자신만의 기업을 갖는 것'이라는 잠정 결론에 도달했다. 그 성취를 위한 첫 단계로서, 세계 브랜드 상품 개발을 목표하는 야심만만한 중소규모의 패션 액세서리 기업에 지원해, 이 기업이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세계시장을 목표로 성장한다면 이 회사와 함께 자신도 세계적인 패션업자로 성장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자신은 그와 같은 목표를 가진 다른 기업을 찾아 이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자신의 포부와 조건을 밝히고 선발되었다.

삭티 거웨인이라는 사람이 쓴 <그렇다고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된다>라는 긴 제목의 책에서는 '생각은 보이지 않는 씨앗이다'라는 점을 강조한다. 가장 소망하는 것을 상상력으로 창조해 내는 방법 중 하나인 시각화(Visualization)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공임을 새삼 깨닫게 할 수 있으며, 이로써 시각화된 소망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각화라고 표현했지만 청각화, 촉각화 등 오감의 격외체험까지 통틀어 결국은 마음이니, 환(幻)의 세계를 통섭하는 '일체유심조'의 깊은 뜻에는 미치지 못하나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하겠다.

■ 한국코칭센터 고문

신화같은 기적을 일으켜 화제가 되고 있는 대체의학의 선구자 三奉[삼봉] 스님은 어떤 분인가?

7대 전수 한의이신 조부님 강요에 못이겨 13세부터 6경신 정신수련에 입신해서 79세가 되신 지금까지도 육경신 정신수련을 하시면서 인간은 출생하면서 가는 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 듯이 가는 길은 없을까 하는 일념으로 수련중에 깨우침이 있어 이 세상에 내어 놓은 것이 천의선도입니다.

천의란 불로장생하는 하늘의 의술이며 선도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신선의 반열에 오르는 길입니다.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열심히 수련하다 보면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합장하고 있던 두 손이 밑에서는 벌어지고 위에서는 잡아 당기는 느낌이 드는 신비 속에 접어들면 몇 시간을 수련해도 한 순간 같으면서 콧물이 주루루 흘러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나면 삼매경에 들게 되는데 콧물이 아니라 몰핀보다 강한 호르몬이 분비된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삼매경에 든지 40分 내지 1시간이 경과하면 목에 침이 가득 차는데 6-7회 삼키고 나면 희열속에 접어들어 1시간 정도 지나면 간뇌에서 다이놀핀이 분비되는데 천상 영계에선 이것이 생명의 감로수라 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침은 엔돌핀이라 합니다. 엔돌핀은 몰핀의 200배 진통 치유능력이 있고 다이놀핀은 엔돌핀의 700배 진통 치유능력이 있다는데 다이놀핀이 분비되면 모든 암세포도 일순간에 소멸되고 망가진 세포가 재생된다는게 영계의 메시지인데 현대의학계에서 포기한 시한부 암환자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하고 수련시키다보니 100여명이 넘게 정상으로 회복되어 10년이 지났는데도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평생두통, 위하수, 전립선 이상자,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통증부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1주일에 한번 씩 몇 차례 주입시켜 주었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2000여명이 넘는데도 재발된 분이 한분도 없는 것이 30년 체험형상입니다.

천의선도를 오늘까지 전수시키고 있는 것은 20대 중반 아가씨가 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수족이 뒤틀린 장애인이 신체비관을 하고 있기에 위로삼아 천의선도를 전수시켰더니 1년 반이 되면서 오른손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2년이 지나면서 왼손과 오른발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신화 같은 기적이 (천의) 하늘의 의술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대체의학을 사장 시킬 수가 없어 내 나이가 79세 인데, 나의 의식이 생생할 때 이 세상에 남기고 가고 싶어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란 책자를 발간해서 천하제일의 명의를 양성해서 부처님 뜻으로 큰 봉사하며 살고자 이글을 광고합니다.

독자여러분 1박2일간에 맥박, 경락도 모르는 분이 천하제일의 명의가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절대로 믿으시고 체험해 보십시오. 이것이 천의선도의 염력전수(도력전수)입니다.

몸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주며 큰 봉사하며 살자고 스님, 처사님, 보살님, 종교지도자님, 한의사님, 양의학 박사님도 초대합니다.

■ **전 수 장 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 **전수참가금** : 일금 100만원 (특전 – 천하제일의 대체의학 50만, 천문을 열어라 2만원, 매선침 20만원 증정)

■ **전 수 과 정**

· 1차 : 천문을 열어드림 / · 2차 : 천의선도 수련법 시행
· 3차 : 치료법 실습강의 / · 4차 : 환신 받고 / · 5차 : 선단제조법 강의
· 6차 : 사면권부여식 (빙의된 신을 천상으로 보낼수 있는 능력 부여식)
· 7차 : 치료법 2차 실습 마치고 종강

■ **전 수 일 시** 매주 금요일 오후2시 – 토요일 오전 종강

■ **저 서**

· 1971년 팔괘비전 열역신서 / 1990년 사상의학 8상체질분류법
· 1994년 천명전수 천의선도 / 2000년 천문을 열어라
· 2006년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

영계의 메세지 – 이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이 될 때, 원인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터인데 천의선도 영능자를 양성해서 인명을 구하라는 천명을 받고 전수시키고 있습니다.

암 환자 자연치유법 특별상담

삼봉 (김영생) 합장 전화 010-4933-4528
은행계좌번호 : 하나은행 382-810082-33207 김영생
(입금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소임’ 보려고 중 된 것아니니 불편하면 떠나겠다




그림 · 최문정

혜암이 가야산 중봉암에 자리를 잡은 이유는 해인사가 가까우면서도 인적이 드물어 정진하기에 좋기 때문이었다. 중봉암은 오대산의 토굴처럼 가야산 분지에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는 암자였다. 약초꾼들이 가끔 들를 뿐 가야산을 오르는 등산객도 중봉암이 어디 있는 줄 모르고 지나치는 암자였다.

두 칸의 암자에는 인법당과 부엌, 그리고 부엌에 딸린 골방이 하나 있었다. 움막 같은 화장실은 인법당과 좀 떨어져 있었다. 혜암은 인법당에서 제자와 함께 공부했고, 골방은 창고로 쓰이다가도 시봉하는 보살이 찾아와 머물곤 했다. 소종은 마루 끝 처마 밑에 달려 있었는데, 청아한 종소리는 가야산의 적막을 깨우곤 했다.

중봉암을 찾는 보살들 중에는 인곡선사를 시봉해 온 광명화보살도 있었다. 입적한 인곡을 10년간 시봉했던 광명화보살은 혜암도 스승으로 모셨다. 마산에서 살고 있던 보살은 천 조각을 모아 집에서 손수 법복을 만든 뒤, 중봉암으로 올라 혜암에게 삼배를 올렸다.

광명화보살이 혜암을 시봉하기로 작정한 것은 나름대로 까닭이 있었다. 인곡의 가풍을 혜암이 잇고 있다는 사실을 문도들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인곡을 가까이서 시봉해온 보살 눈에도 무엇이 보였던 것이다.

‘나는 인곡스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 내 눈을 속일 수는 없다. 분명 인곡스님의 법을 이은 분은 혜암스님이다. 그러니 나는 인곡스님을 모시듯 혜암스님도 모실 것이다.’

보살은 때를 맞추어 중봉암을 오르내렸다. 짐이 많을 때는 갓 출가한 사미승이 해인사까지 내려와 지게를 지기도 했다. 밤중에 산길을 오르다 길을 잃고 자정 무렵에야 겨우 중봉암을 찾은 일도 있었다.

그런데도 그때 혜암은 방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인법당 문에 어린 것은 분명 좌선하고 있는 혜암의 그림자였다. 그림자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가을의 산중 날씨는 싸늘했다. 금세 땀이 식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보살은 다시 한 번 스님을 부르고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부엌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시자 원각마저 큰절에 내려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보살은 부엌으로 들어가 골방 문을 열었다. 골방에는 초여름에 캔 감자가 아직도 굴러다니고 있었다.

‘큰스님 공부를 방해하지 말아야지. 오늘밤은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스님께 인사드리자.’

보살은 호롱불을 켠 뒤 먼지 낀 방을 마른 걸레로 훔쳤다. 누울 공간이 생기자 이부자리를 폈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다.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정진하고 있을 스님을 떠올리자, 편히 누울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보살은 인법당 문을 열었다. 보살은 위로받고 싶어 앞뒤 사정을 길게 얘기했지만 혜암은 보살의 말을 잘랐다.

“큰시님. 산길을 잃고 죽을 뻔했십니더.”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고.”

보살이 할말을 잊고 쩔쩔매자 그제야 혜암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지 않고 왜 왔어.”

“풀벌레 소리가 시끄러버서 왔십니더.”

“시끄러운 소리에 끄달리지 말고 풀벌레 소리를 듣는 놈이 누군가, 이뭣고 해봐. 화두가 들리면 조용해질거요.”

보살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주저하지 않고 혜암에게 삼배를 하고 가부좌를 틀었다. 호흡을 가다듬고 혜암이 시키는 대로 화두를 들었다. 산길을 끌고 다닌 몸뚱이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고 시선을 안으로 돌렸다.

그러나 보살의 자세는 오래 가지 못했다. 산길을 헤매느라 너무 힘들었으므로 눈꺼풀이 납덩어리처럼 무거웠다. 보살은 졸음을 견디지 못하고 졸았다. 그때였다. 혜암이 죽비로 보살의 등짝을 쳤다. 보살이 소스라치게 놀라자, 혜암이 밖으로 내쫓으며 말했다.

“보살, 신장님이 부르네. 어서 나가봐요!”

혜암이 방문을 잡아당기니 보살은 더듬거리며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잠시 후 혜암은 인정사정없이 방문을 닫아버렸다.

‘시봉하러 온 사람에게 박수는 못 쳐 줄망정 쫓아내다니.’

보살은 분한 마음이 들어 잰걸음으로 마당가로 나섰다. 그러나 더 이상은 한 발짝도 더 내딛을 수 없었다. 밤눈이 어두워서 해인사로 내려갈 수도 없었고, 다시 방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다.

순간, 보살은 하늘을 보았다. 주먹만큼 큰 별들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질 것만 같았다. 바로 머리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별똥별이 중봉암을 향해서 날아오기도 했다. 보살은 홀연히 두 눈이 상쾌해짐을 느꼈다. 보살은 싸늘한 냉기 속에서 졸음을 쫓았다. 온몸에서 소름이 돋을 때쯤에야 혜암의 목소리가 들렸다.

“보살, 잠 깼으면 들어오소.”

혜암은 보살에게 좌선을 시키는 대신에 법문을 시작했다.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가 더 잘된다는 내용의 법문은 새벽까지 이어졌다.

〈오대산 방한암 스님 살았을 때 그 당시를 회고해 보면 정말 꿈속의 일 같습니다. 태백산이나 오대산 같은 데 가니까 사람이 짐승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나무를 베어 가지고 움막에 흙을 바르고 사는데, 흙도 많이 붙이질 않고 나무 틈새만 막고 살아요. 흙이 떨어진 곳은 헝겊이나 솜 부스러기로 막아놓고 사는데, 마치 돼지 굴속처럼 생겼어요.

아, 애들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신발 없이 맨발로 다니고, 밥을 굶어 얼굴이 하얗게 떠 있어요. 배가 딱 붙어 가지고 불쌍해요. 그래도 그런 생활에 익숙하니 탈이 안 납디다. 근데 나는 그런 불편하고 살기 힘든 산중에서 공부는 더 잘 돼요. 나도 똑같이 밥도 안 먹고 넉 달 살아 봤어요. 그때 나는 한 끼를 생 잣잎에다 콩을 열 개나 일곱 개 먹었어요. 숫자를 세어 정확하게 먹었어요. 삼동에는 잣나무 가지를 분질러서 방에 두고 씹어 먹으며 물을 마셨어요.

> “나는 인곡 스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
> 내 눈을 속일 수는 없다
> 인곡 스님의 법을 이은 분은 혜암 스님이다”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시험을 한 번 해본 것이지요. 누가 양식을 가져와도 안 받고 쌀밥, 보리밥은 한 끼도 안 먹고 네 달을 사는데 몸이 날아갈 것 같데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무섭지 않을 것 같고 정신만 남아 몸뚱이가 없는 것 같아요.

봄이 돌아와 무슨 씨앗인가를 심으려고 괭이질을 하는데 마음은 아무렇지 않지만 허리가 뚝 끊어지려고 해요. 그래, 아픈 허리를 나으려고 민가로 찾아가서 쌀 한 홉을 얻어와 갈아서 국물처럼 마시니까 언제 아팠냐는 듯 나아버려요.

얼마나 그때는 춥던지, 아침에 방을 나오면 사람 키보다 눈이 많이 내려 있어요. 눈도 오고 바람도 불지만 누구에게 옷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눈에 산길이 막혀 오고갈 수도 없었지요. 그러니 공부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도 닦으러 왔지 잘 먹으러 왔냐는 생각이 드니 더 잘 돼요. 그냥 기쁜 생각만 나고 고생스럽다거나 싫은 생각은 저절로 없어져 버려요.

옛날 스님네들은 다 이런 고생을 하는 가운데 도를 닦아서 도인 됐는데, 나 역시 도 닦으러 온 사람이 어찌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랴 싶어 그냥 용맹심이 나옵디다. 도 닦으려고 왔다는 생각 하나만 내면 바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바로 용맹심이 나와요.

얼마 되지 않은 일인데 이런 일이 몇 백년 전 옛날 이야기 같잖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보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번쯤 들어볼 만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부처님 말씀에 수행하는 스님들은 가난부터 배우라고 합니다. 상삼(常三)이 부족해야 한다고 그래요. 세 가지가 항상 부족해야 하는데 집과 옷, 먹을 것이 부족해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가난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공부하다가 안 되면 고생을 사서라도 공부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공부를 시키려고 어떤 스님에게 신심 있는 보살이 집을 지어주고 아주 영양가 있는 맛난 음식을 날마다 해주었어요.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오직 공부만 하라고 넣어주었지요. 그런데도 스님은 공부가 안 돼요. 방안이나 주위에 공부를 방해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말이요.

그렇게 일 년, 이 년, 삼 년이 지나고 난 뒤에야 방안의 스님은 꾀를 냈대요. 도인 되라고 방안에 화장실도 만들어주고 끼니마다 밥을 넣어주는데도 공부가 안 되니 그런 것이지요. 어느 날 보살이 밥 가지고 올 때 야, 이년아 한번 보듬고 자자, 그렇게 소리 질렀대요. 그러니까 보살이 처사에게 일러바쳤지요. 처사가 마누라 얘기를 듣고는 당장 스님을 내쫓았는데, 스님은 좋다고 춤을 추면서 나왔다는 얘깁니다.

이 공부는 이상해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질 않아요. 이 마음이 참 이상한 놈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면서 이 공부를 했어요.〉

보살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는 벌써 날이 밝고 있었다. 집에서는 정신없이 자고 있을 시간인데 이상하게도 경험담이 섞인 혜암의 법문을 들으면 수마가 달아났다. 몸은 피곤하지만 신심이 솟구쳤다.

그런 날에는 세상이 달리 보였다. 어제 보았던 것들이 새롭게 태어나 있었다. 자신도 묵은 허물을 벗고 부처님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선 느낌이 들었다. 혜암을 시봉하여 생긴 정복(淨福)이 있다면 바로 그런 것이었다.

부엌으로 나온 보살은 부엌을 지키는 조왕신에게 합장했다. 그런 뒤, 쌀을 한 줌 꺼내 솥에 넣었다. 아침은 죽이었다. 혜암이 낮에 한 끼만 하므로 아침은 물만 마시는 기분으로 죽을 쑤어야 했다. 상좌나 보살들이 아침공양을 해도 혜암은 무김치나 동치미 국물에 멀건 죽만 먹고 말았다.

“보살, 아침에 일 좀 하고 내려가시오.”

“큰시님, 무신 일입니꺼.”

“배추밭에 물 좀 주고 가시오.”

“마산도 비가 안 와 채소가 누렇게 타고 있십니더.”

“가을가뭄이 길어진 것은 잠자는 수행자가 있어 그래.”

“큰시님, 날씨가 이러면 올해는 맛있는 무김치나 동치미를 못 드시겠십니더.”

“그것보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일이 하나 생겼다.”

“무신 일입니꺼.”

혜암은 대답을 하지 않고 양동이를 들고 샘터로 갔다. 혜암이 망설이고 있는 것은 다음 달에 개설하는 해인총림에서 유나를 맡아달라는 성철의 부탁 때문이었다. 해인총림을 이끄는 초대방장은 성철이 추대돼 있는데, 선원의 초대유나를 누가 맡을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혜암은 선원의 유나를 하기 위해 가야산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반대했지만 성철은 강력하게 권유했다.

“혜암시님, 내가 방장할라꼬 중 됐는지 아나. 봉암사서 부처님 법대로 살자꼬 결사한 마음으로 해인총림을 개설한 거 아이가. 해인총림이 살아야 한국불교가 산대이. 그러니 혜암시님이 유나를 맡아야 한기라. 나도 묵언을 깨고 법당에서 100일 법문을 할끼다. 그러니 혜암시님, 내 부탁 들어줘야 한기라.”

결국 혜암은 1967년 10월 15일(음) 개설될 해인총림의 선원 유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규모가 작은 선방에서 소임을 맡아 선객들과 함께 정진한 적은 있지만 총림에서 방장을 보필하는 소임은 처음이었다. 혜암은 성철에게 조건을 달았다.

“불편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떠나겠습니다. 스님께서도 사람 못 된 게 중 되고, 중 못 된 게 도인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소임이나 보려고 중 된 것이 아니니까 공부하기가 불편하면 언제든지 떠나겠습니다.”

“혜암시님 고집을 누가 막겠노.”

〈계속〉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철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 안 거 결 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 철 결 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재
  매년 설날, 중양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 (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감원 벽산 원각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www.wondangam.org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큰스님 33인 출가 · 수행 · 깨침 이야기

문윤정 논설위원, '선지식을 찾아서' 연재 책으로 펴내



"난 세상에서 제일 바보인 것 같아. (법문) 들을 것 없어. 저 푸른 자연이나 보고 가게나."

"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선지식이라 생각해. 그냥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게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에 휩싸인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앞길을 밝혀줄 스승을 찾고 있다. 때로는 깊은 산중에서 빗속을 뚫고 눈을 맞으며, 때로는 도심 선방에서 스승들을 만나 겸손한 자세로 묻고 또 묻는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알려달라고. 그러면 그들은 전혀 엉뚱한 선문답으로, 또는 명쾌한 한마디 말로, 눈앞이 환히 밝아지고 무릎을 탁 치게 하는 활구(活口) 법문을 들려준다.

현대불교신문 논설위원을 맡고 있는 문윤정 수필가가 우리 시대의 스승 33인의 깨달음과 가르침을 담은 책 <마음이 마음에게 묻다>를 펴냈다. 본지의 인기 코너인 '선지식을 찾아서' 연재를 위해 지난 3년간 전국의 사찰을 찾아다니며 만난 많은 스님들 중에서 인생의 지남(指南)이 되어주는 큰스님들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것이다.

조계종 명예 원로의원인 성수 스님부터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법을 전하고 있는 법인 스님, 40년간 성철 스님을 시봉한 천제 스님, 백만 배 수행으로 인생을 바꾼 혜인 스님, 비구니계의 최고령 선승인 혜해 스님, 그림으로 나눔과 보시를 실천하는 정현 스님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큰스님들이 직접 치열한 구도행과 실천적 삶을 통해 체득한 지혜의 말씀을 들려준다.

'마음이 마음에게 묻는' 구구절절한 질문들에 대해 큰스님들은 삶의 고뇌와 번뇌를 녹여주는 자유와 행복의 법칙을 들려준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 낯섦, 시비, 분별, 갈등, 다툼, 불안, 망상, 그리고 두려움 등에 쫓기느라 탁해져버린 심성을 환히 밝혀 마음의 평안(平安)을 선사한다.

마음이 마음에게 묻다 | 문윤정 지음 | 오픈하우스 | 1만8000원 김성우 기자



성수 스님.



고산 스님.



무비 스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명상 길잡이

김승석 변호사의 사념처관 수행기

"이제 부처님 법(法)에 의지해 머물 수 있는 힘이 생겨났다. 스스로 법을 보는 눈이 뜨인 것 같았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을 흔들던 감각적 욕망, 악의, 혼침과 게으름, 들뜸과 회한, 회의적 의심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야말로 형언할 수 없는 법열(法悅)을 느낄 수 있었다."



김승석 변호사.

스승 없이 홀로 수행한 명상 체험기 <나홀로 명상>에서 저자인 김승석 변호사는 2500년 전 부처님의 생생한 음성이 담긴 방대한 빠알리 경전과 논서가 바로 자신의 스승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사띠빠타나(四念處觀: 몸, 느낌, 마음, 법을 관찰함) 명상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마음의 변화 등을 경전과 논서를 통해 점검하고 있는 <나홀로 명상>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명상의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책은 저자가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지내고 지방선거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시며 겪은 큰 좌절을 사념처관을 통해 극복하는 과정을 담고 있어 재가자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수행지침이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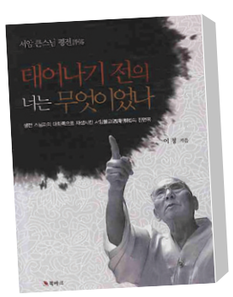
저자는 책에서 수십 년 동안 제주불교신문 등에서 불교 관련 글을 쓰면서 사물과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은 열렸으나 막상 괴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스트레스가 고조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한다. 이 때 저자는 다행히 초기경전을 공부하고, 부처님께서 직접 깨달음을 얻으신 사띠빠타나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다스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 그야말로 이고득락(離苦得樂)의 수행과정이 실감나게 전개된 셈이다.

10여년간 초기불교의 명상법을 통해 충만한 기쁨과 행복, 건강을 얻은 저자는 현재 변호사업 외에 제주불교신문 편집인, 제주비평발행인, (사)공동체의식개혁운동 제주협의회 공동대표 등을 맡아 의식개혁운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주말에는 농장에서 과수나무, 화초 등을 가꾸고 있고, 일상 속에서 호흡관법을 행하며 선정의 기쁨도 누리고 있다. 토굴인 출리산방(出離山房)에서 도반들과 소규모 명상 모임을 갖고 있는 저자는 앞으로 아란마을 숲속에 '아란야 명상센터'를 세워 사념처관을 전할 계획이다.

나 홀로 명상 | 김승석 지음 | 불광출판사 | 1만2000원 김성우 기자

"누구나 앉으나 서나 부처를 가지고 있다"

대화록으로 재생시킨 '서암불교'의 진면목



자신의 본래마음을 등지고 살기 일쑤인 요즘, 불교는 여전히 마음의 정체를 밝히며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자리를 깨닫는 길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어머니의 태(胎) 안에서 존재하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는가.

조계종 종정을 지낸 서암 스님(1914~2003년)의 일생을 스님과의 생전 대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평전 <태어나기 전의 너는 무엇이었나>가 나왔다. 이 책에서 서암 스님은 "사람은 누구나 앉으나 서나 항상 스스로 일어나는 자기의 부처(성품)를 가지고 있다. 일체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자기를 발견하라"며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의 본래면목(本來面目)에 대해 이런 주석을 달고 있다.

"생명의 실체는 무시무종(無始無終)이라 천지만물이 생기기 이전의 공겁(空劫)부터 존재해왔던 것으로,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 인간의 생명이다. 여기에는 원래 중생이니 부처니 하는 차별의 이름이 없다. 본바탕에서 한 생각이 어긋나 사생육도(四生六道)가 벌어지는 것이다."

서암 스님은 1979년 문경 봉암사 조실로 추대되자 봉암사를 조계종 종립선원으로 지정되게 했다. 서암 스님은 1975년 제10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맡아 종단사태를 수습한 뒤 2개월만에 사퇴했고, 1991년 원로회의 의장을 지내고 1993년 성철 스님 열반 후 제8대 조계종 종정에 취임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94년 종단분규가 일어나자 종정직을 사임하고 종단마저 탈퇴한다고 공표한 후 토굴에서 수행했다. 무슨 종단이니, 종정이니 하는 개념의 감옥에 갇혀서는 펼칠 수 없었던 보살행을 완성하고자 떠난 것이다.

그러나 스님은 종단과 제자들의 간청을 받아들여 2001년 봉암사 조실로 복귀, 2003년 3월 29일 봉암사 염화실에서 열반했다. "한 말씀(열반송) 남기시라"는 제자들의 간청에 "그 노인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다고 해라"는 말만 남기고 본래자리로 돌아갔다.

고등학교와 대학시절 출가와 환속을 거듭하며 서암 스님과 깊은 인연을 맺은 저자 이청 작가는 '서암불교'를 제자리에 세워놓겠다는 열정으로 취재를 계속해오고 있다.

태어나기 전의 너는 무엇이었나 | 이청 지음 | 북마크 | 1만3000원 김성우 기자

원효사상 정수 해설 핵심 사상 소개



일본이나 중국에서 더 잘 알려진 한국의 대표 고승, 한국불교의 새벽을 연 원효(元曉) 대사는 100종 200권 이상의 저술(21종 26권만 현존)을 집필, 한국 불교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지만 그 사상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깊고 넓은 사상의 바다를 들여다 볼 엄두가 나지 않는데다, 대중적으로 풀어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원효 대사의 사상과 행적을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설명하는 형식을 통해 풀어쓴 책이 나왔다. 1990년부터 <원효 전서>와 <대승기신론> 관련 경전 번역에 매진해 온 재야 학자 강승환 씨가 쓴 <이야기 원효사상>이 그것.

저자는 책을 통해 어렵거나 한자로 된 불교용어를 우리말로 쉽게 풀어썼고, 원효사상을 몇 개 주제로 나눠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이야기 원효사상 | 강승환 지음 | 운주사 | 1만2000원 김성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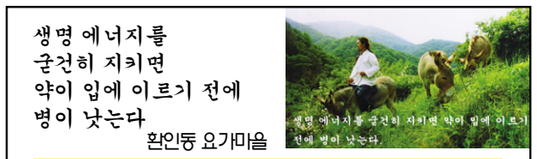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사는 즐거움	보경	뜰
2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3	5분 수행	현담	선
4	일곱 번의 작별인사	무비	불광출판사
5	그냥 무조건이야	대행	한마음선원
6	부처또는 공부	우학	뜰
7	삼천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	성전	마음의 숲
8	이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9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10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글이 그림으로 말하고 그림이 글로 말하네…

29일까지 김성배 화백 선화전



글과 그림이 함께 어우러진 김성배 화백의 작품.

글이 그림으로 말하고 그림이 글로 말한다. 김성배 화백은 '말하는 그림'을 주제로 11월 14~29일 원주시립박물관에서 선화展을 연다. 이번 작품들은 김 화백이 2~3여 년 동안 준비해온 작품들로 묵화로 선화를 표현했다.

"조선시대 아동용 교재인 <추구(推句)>에 '꽃이 난간 앞에서 웃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고 새가 수풀 아래서 우는데 눈물은 보기 어렵구나' 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림도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글을 적어 보시는 분들께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여 드리고 싶었습니다."

김 화백은 불교경전과 중국, 조선시대의 고전들을 읽고 마음에 와 닿았던 글귀를 작품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김 화백은 수십 년 동안 서양화만을 작업하다 1991년 우연한 기회로 수묵화 전시를 가진 뒤, 독학으로 묵화를 꾸준히 작업해 왔다. 1977년 월정사에서 수계를 받았을 정도로 불교와는 남달리 인연이 많았던 김 화백의 그림은 그래서인지 더 선화(禪畵)적이다.

하지만 이번 전시는 순수한 우리 소리글자를 딴 '선화전'이다. 이에 대해 김 화백은 "선도(禪圖) 선(宣)이요 선도(善道) 선일 뿐이다. 또한 선도(線導) 선(繕)이고 선도(嬋圖) 선(仙)이다"라며 "순수 한글인 소리글자를 써서 제작품이 한 뜻에만 고정되지 않고, 여러 뜻을 함축하고 있음을 말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그런 그의 선적인 마음이 담긴 작품 60여 점과 사물 8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033)737-4371

이은정 기자

봉은사 옛시 전시회 8일까지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는 봉은사를 표현한 옛 선조들의 시를 모아 '옛 詩로 만나는 봉은사'라는 주제로 11월 8일까지 시(詩) 전시회를 갖는다. 이번 고전 시 전시는 <해동역사> <대동야승> 등 역사서에 기록돼 있는 봉은사를 소재로 한 옛 시 20편과 함께 일러스트 작품들이 전시된다.

봉은사는 이번 전시회 외에도 다례재, 정대불사, 템플라이프, 인경체험, 연꽃등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서울시민들과 불자들에게 다채로운 문화의 장을 선사한다.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든 봉은사의 가을 정취와 함께 옛 시를 감상하며 천년고찰 봉은사의 매력에 흠뻑 취해보자. (02)511-6070~4

이은정 기자

전통춤의 참맛과 향기, 맥을 느껴보세요

20년 맞은 '명인명무전' 70회공연, 신예와 원로 무대로 꾸며



대구살풀이춤 이수자 윤송미.

민간예술기획사인 동국예술기획(대표 박동국)이 우리 전통무용을 꾸준히 무대에 올려온 '한국의 명인명무전(名人名舞展)'이 20년을 맞았다. 공연 횟수로는 70회다.

전통문화를 지키는 길은 언제나 힘겹고 고독했지만, 명인명무전은 매년 2회 이상의 공연을 펼치며 한 길을 걸어왔다. 신예에서 원로까지 전통무용과 소리꾼 가운데 이 무대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무엇보다 명인명무전은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간다는 측면과 전통의 맥을 찾아내는 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인 점에서 높이 평가돼 왔다.

'양산학춤' '영산재' 등 불교적 정서와 기원을 갖는 무용의 무대화를 주도한 것도 명인명무전의 주목할 성과다.

동국예술기획은 20주년을 맞은 올해에 모두 다섯 번의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3월 28일에 목포에서 20주년 공연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뎠고 4월 30일 익산 등 전국 5개 도시를 순회하며 공연을 펼쳤다. 그 대장정의 클라이맥스는 11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서울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펼쳐지는 70번째 공연이다.

70회 공연은 '진향무(眞香舞) 혼의 맥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기획됐다. 첫날 펼쳐지는 무대의 주제는 '향무'다. 젊은 명인들의 무대로 전통의 향기를 미래로 이어간다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무대는 한애영(이매방류살풀이춤 이수자)의 기원무, 윤송미 · 안장금의 대구살풀이춤, 오은희 서울예술대학 교수의 승무 등 아홉 가지 다양한 춤으로 장식된다.

둘째 날 '진무'의 마당은 원로들의 무대다. 올해 81세인 김문숙(대한민국예술원회원) 명인을 비롯한 안춘자 · 박연진 명인의 '가사호접' 최선(75) 명인의 '정인방류살풀이춤' 송준영(74) 명인의 '훈령대장무' 등 아홉 가지 공연이 펼쳐진다.

집을 팔고 전세를 월세로 전화하면서도 20년 동안 명인명무전을 이끌어 온 박동국 대표는 "전통문화가 있는 한 공연은 계속돼야 하고 동국예술기획이 있는 한 명인명무전도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며 "전통예술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 분류해 전통예술인들의 계보와 명부를 정리하는 것과 전통예술전문극장 설립이 꿈"이라고 밝혔다.



이매방류살풀이 정명숙.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의도된 흔적 없이 자연 담아 빚어

민영기 도예가 찻사발전 22일까지 부산시립미술관서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 마음 비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민영기 도예가의 찻사발 전시회가 부산시립미술관에서 11월 22일까지 열린다.

오로지 찻사발 작업에만 20여 년을 매달린 그의 작품은 조선의 사발모양을 기반으로 해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더욱 잘 알려져 있다. 조선에서 만든 그릇을 가지고 차 문화를 격상시킨 일본이기에 그의 작품은 당연히 일본의 관심 대상일 수밖에 없다.

한국의 차 문화가 조선시대에 본격적으로 성행했다는 설은 맞다. 그렇다고 해서 민영기의 찻사발이 단지 조선시대 찻사발 모양만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그의 작품은 인위적으로 모양을 내지도 않고 일부러 차고임 자리와 물레의 흔적 등을 남기려는 의도적 행위도 없다. 순수하게 의식되지 않는 자신만의 형태를 갖춘 자연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부산시립미술관 임창섭 학예연구실장은 그의 작품을 두고 "노자의 말처럼 무위(無爲)처럼 보이나 무위가 아닌, 적극적 인위(人爲)를 통해 무위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창조적인 장인 정신의 결과"라고 말했다.

민영기 도예가의 작품은 전통에 맞는듯 하지만 결코 전통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그의 작품은 자칫 토속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현대에 더욱 적합한 작품이다.



부산시립미술관에 전시된 민영기 도예가의 찻사발 작품들.

이번 전시회에서 달이 흐르고 물이 흐르듯 자연에 가까운 그의 작품을 통해 자연의 정취와 찻그릇의 문화 고취를 느껴보자. (051)744-2602

이은정 기자

초심·정진·공명 마당 오세요

14일 봉인사서 한길예술제 열려

댄스, 창작공연, 퍼포먼스, 현대무용 등 다양한 장르로 펼쳐지는 남양주 봉인사의 한길예술제가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했다. 21세기를 이끌어갈 젊은 예술인들을 발굴해 육성시키고자 마련된 봉인사 제10회 한길예술제는 11월 14일 지난해까지 수상권에 들었던 팀들을 초청해 열린다.

이번 한길예술제는 '세상에 하나됨으로'라는 주제로 초심, 정진, 공명 마당으로 진행된다. 초심마당은 개막공연을 통해 한길예술제의 흥을 살리는 공연으로 꾸며진다. 정진마당은 과거 수상 팀들이 참가해 젊음의 끼와 열정을 발산하는 창작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공명마당은 참가자와 관객 심사위원이 모두 심사에 참가하는 삼원 삼색 심사제를 열어 작품성과 예술성에 대해 평가하고 진선미를 선발한다.

봉인사 주지 적경 스님은 "한길예술제는 모든 자유와 표현을 허용하는 자리로서, 종교를 떠나 모든 예술문화를 공유하는 자리"라며 "예술적으로 성숙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자유와 열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만든 이, 하는 이, 보는 이가 모두 즐거울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특히 댄스팀 리버스쿠르의 공연과 홍은채 예술단의 신명, 허유진과 풍명, 최진숙의 명창 공연 등 화려한 초청무대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어서 더욱 기대가 된다. (031)574-5585

이은정 기자

참나와의 친밀한 만남

몸 마음 영혼의 완전한 치유법!
- 전 통 활 락 법 : 최상의 에너지인 수중화(물 속의 불)로 전신에 경락을 일거에 타통한다.
- 체 절 조 절 법 : 모든 난치병의 뿌리는 뇌에 있다. 체절 조절로 뇌를 다스려 난치병 근치의 신기원을 이룸.
- 전신골격 조정법 : 손가락 하나를 가볍게 접촉하여 참나의 기운을 나눔으로써 5분 이내에 뒤틀어진 골격을 바로 잡는다.
- 전생업장소멸법 : 뇌하수체에 훈습된 아뢰야식의 전생업장을 천연에너지로 강렬하게 태운다.

자동 운기법! 자동 축기법!
수행의 최고 경지는 의념이 배제된 채 저절로 운기와 축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인의 경지에 바로 진입한다.

운명의 공식! 개운의 법칙!
우주생성의 근본원리로 자타의 운명을 파악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단하는 혜안이 열린다. 사업, 취업, 결혼, 부동산매매, 주식거래, 각종 시험 등등 인생 제만사의 각종 문제들을 미리 조정하는 능력자가 된다.

영혼의 과학에 의거한 참된 영가 천도법!
영가의 상태를 직접 파악하고 직접 천도하며 결과까지 직접 확인하는 초유의 비법을 누구나 증득할 수 있다.

최강의 양택 발복법!
9등급으로 양택을 정밀하게 판정하고 기운을 조정하여 최상급의 명당으로 만든다.

완전한 깨달음! 행복한 현실창조! 아름다운 진화!
수 천년 동안 어렴풋한 말로만 전해져서 긴가민가하던 전설이 누구나 실현할 수 있는 최상승법으로 현실화 됐다. (1:1 방식으로 완벽하게 전수하며 회비는 3백만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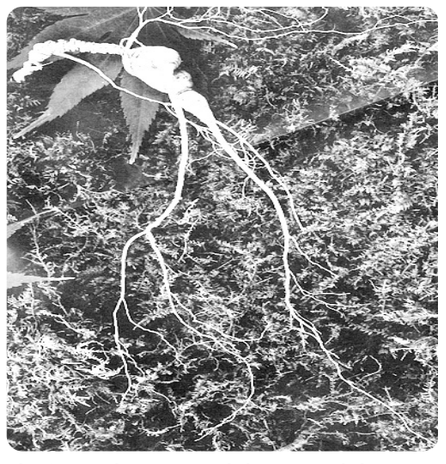
무료체험신청하세요
좁은 지면에 담지 못한 놀라운 효능!
02)511-5945/ 010-9336-2698

30년 전통의 산삼취급전문업체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自然
품격높은 최고의 선물!!!

100% 순수 국내산! 국내산이 아닐경우 1억원 배상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 100년,120년 자연 산삼 5주(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문의상담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주문처 | 서울 (02)713-7798 / 010-5250-7798

심 마 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 (분석 51160-150)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51 밥은 사랑-부채여사 편<2>

옹심이미역국 · 땡감에 가을이 아름답다

대학에서 철학과 불교학, 한문학까지 3전공을 하고 있는 만학도, 부채여사에게 요즘 고민이 생겼다. 그녀가 수강 중인 과목 중에 인간사의 다양한 문젯거리를 불교적 사고관에 입각해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시간이 있는데, 그녀가 맡은 과제는 한 중년여인의 고민이었다. 남편이 20대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났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다. 평생 '결혼'이라는 단어를 꿈에도 그려본 적이 없는 '선천적 독신'인 그녀가 부처님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남녀 간의 문제를 떠안게 됐으니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몇날 며칠을 고심한 끝에 부채여사가 찾은 이는 히말라야에서 12년의 고행을 마치고 돌아와 교내에서 남다른 강의를 펼치고 있는 부채도사님이었다. 긴 머리를 질끈 묶고 사시사철 부채를 소장하고 다니는 부채도사님과 부채여사의 회동은 교내 근처 옹심이미역국 전문점인 '화담(054-621-7779)'에서 이뤄졌다.



부채 여사는 새알심이 들어간 옹심이미역국이 나오자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더욱 깊어졌다.

방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기가 무섭게 시작된 부채여사의 하소연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중에 상 위로 옹기그릇에 소담스럽게 담겨진 배추김치와 총각김치, 물김치가 올라와 메인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젓가락질이 시작됐다. 3종 김치 옆에 곁들여진 매실장아찌의 정갈하고 개운한 맛도 한몫 거들어 입맛을 더욱 돋우는 가운데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근원에 대한 본질의 답을 구하는 게 중요하지, 옳고 그름을 논하는 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당사자가 자기 상황을 애증을 넘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한 과정에서 대치법도 필요해요. 가령 진언을 외우거나 절을 해 감정을 가라 앉히면 자기를 보는 힘이 생기고 자기를 보면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눈이 생기거든요. 중도의 지혜를 일깨우도록 방편을 써 모든 게 상대적 견해로 일어난 것이라는 걸 깨우칠 때 불교적 해결이 돼요. 우리가 끝내 관심을 가져야할 것은 사건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에 있어요. 그런데 이집 김치 참 맛있네…."

시장기를 다독이기위해 김치에 부지런히 젓가락이 가는 부채도사님의 모습에 부채여사는 "저희 엄마도 독에서 김치를 꺼내오면 이렇게 배추머리만 잘라 내오셨어요. 늘 한 복을 입으셨는데, 소매를 한 단 정도 접고는 손으로 김치를 쪽쪽 찢어주시곤 했는데…"라며 돌아가신 엄마의 마음과 동화돼 잠시 김치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딸에 대한 사랑이 유별났던 그녀의 엄마와의 추억은 옹심이미역국이 나오면서 더욱 깊어졌다.

"엄마는 늘 들기름을 넣고 미역을 볶다 쌀뜨물 붓고 곧잘 끓여주곤 했어요. 이렇게 찹쌀로 새알심을 만들어 미역국에 넣고 국간장으로 간해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고소한 맛이 나면서 참 맛있었는데…. 이 새알심을 좀 더 크게 빚어 팥고물도 묻히고 깨도 묻히고 또 대추도 자잘하게 썰어 묻히면 경단이 되는데, 그것도 잘 만들어줬어요. 그러고 보니 엄마 어깨너머로 본 기억들이 얼추 나네…."

커다란 사발에 푸짐하게 담겨진 옹심이미역국을 한 대접씩 앞에 두고는 누구는 그 옛날의 추억을 회상하며, 누구는 그저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또 누구는 낯선 음식에 대한 호기심으로 옹심이미역국은 그렇게 각자의 뱃속을 따끈하게 채우고 있었다. 옹심이미역국이 바닥을 드러낼 즈음, 고혹적인 빛깔의 결명자차와 가을볕에 단단하게 여문 땡감이 후식으로 나왔다. 포크로 대치돼 곁들여진 오죽(烏竹) 가지 한 개를 골라잡아 땡감에 콕 찔러 한입 베어 무니 가을이 다디달게도 익었다. 인간사 골치 아픈 문제도, 그들을 위한 논의도, 따지고 보면 사랑의 발로인지라 새삼 아름답게 다가오고, 포크를 대용한 오죽이 땡감에 감칠맛을 더해 방편의 지혜까지 일깨우니, 아마도 이 계절이 웅숭깊게 익은 모양이다.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이경제 원장의 **한방**으로 지키는 건강

10 사상체질

서유기로 알아본 사상체질

중국 4대 기서 중의 하나인 <서유기>에는 네 명의 등장인물이 나온다. 다혈질이고 영웅적인 손오공, 불교 경전을 구하기 위해 한결같은 지조를 지키며 서역으로 떠나는 삼장법사, 주색이라면 누구보다도 용감한 저팔계, 늘 의형제들의 분쟁을 중재하는 사오정, 바로 이 네 명이 사상체질에 하나씩 해당한다.

손오공은 태양인

손오공은 두뇌 회전이 빠르고 상황 판단이 정확하다. 남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에 정의심이 발동하여 종횡무진 일처리를 한다.

다만 급한 성격 때문에 사부인 삼장법사와 갈등이 자주 생기며 욱하는 성미로 여러번 고생을 한다. 의지가 강하고 거만함에 빠지는 성향이 있다.

바로 이러한 캐릭터는 태양인에 해당한다. 손오공은 요괴들과 싸울 때 동료들에게 따로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 그저 혼자만 알고 모두 무찌르고 난후에 의기양양 잘난척하면서 설명하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삼장법사와 동료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손오공을 오해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이 태양인의 단점이다. 자기 세계에 빠져서 혼자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영웅심리가 있다.

삼장법사는 소음인

삼장법사는 자비심이 많고 마음이 선량하다. 심지어 요괴에게 조차도 그러하다. 머나먼 서역에서 불경을 가져오겠다는 일심으로 고행길을 떠난다. 지나는 사찰마다 꼭 들려 예불하는 성실함이 있다.

그런데 자신의 견문이 부족하여 요괴들의 교활한 술책에 늘상 속는다. 그 때마다 위험한 상황에서 도피하고 싶어 한다. 삼장법사는 겁이 많아서 요괴가 나타나면 그저 손오공만 찾는다. 그런데 일처리를 잘 하는 손오공에게 과격하다고 꾸짖기만 한다. 정말 비겁하다.

삼장법사는 소음인에 해당한다. 소음인은 자신의 주변은 상세히 아는 반면 일처리에 서툴다. 요괴가 분장을 하고 그럴싸한 말을 하면 바로 속아버린다. 제자들을 통솔하고 주변 정리는 잘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상황 판단이 어두워 매번 손오공과 충돌하는데 늘 삼장법사가 잘못 판단했다.

저팔계는 태음인

모두 저팔계를 게으른 욕심쟁이로만 안다. 하지만 현실적인 목표가 있을 때 누구보다도 성실하다. 맛있는 음식이나 아름다운 여인처럼 눈에 보이는 목표가 있으면 놀랄 만큼 용감하고 적극적이다. 이를 본 손오공이 감탄할 정도이다. 저팔계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음식, 술, 여자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삼장법사의 비위를 잘 맞춰서 신임을 받는 재간이 있다.

저팔계가 바로 태음인이다. 태음인은 윗사람에게 참 잘한다. 현실적인 성취를 이루어 내고 남보다 욕심이 많다. 자신이 아끼는 사람이나 물건에는 지극한 정성을 기울인다. 그래서인지 애처가나 가정적인 사람 중에 태음인이 많다.

사오정은 소양인

사오정은 별다른 개성이 없다. 늘 의형제들 간의 불화를 걱정하며 별탈없이 지내기를 원한다. 중용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일처리를 좋아한다. 용감한 손오공, 지조의 삼장법사, 뚝심의 저팔계를 잘 조화시키기 위해 애쓴다. 손오공이 삼장법사와 다툴 때 사오정은 삼장법사 편을 들었다. 그러나 요괴가 나타나 삼장법사를 잡아가면 고민하다가 다시 손오공을 찾아가 사정을 한다. 이 때 미안해하며 민망해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소양인이다.

매스컴에서 소양인은 활달하고 말수가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틀린 것이다. 대부분의 소양인은 말수가 적고 신중하며 침착하다.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조심스럽다. 하지만 한번 말하면 객관적이면서 분명하다. (02)576-7575

비누독을 연화시키는 **삼베훼이셜타올**



■ 삼베훼이셜타올
각 ~~6,000원~~ ➔ 5,400원 (10%DC)

삼베 타월의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 타올은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 **삼베훼이셜타올 세안법**

① 삼베훼이셜타올를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②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③ 삼베샤워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 3~4일이 경과 하면 맑아진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 피지, 각질연화효과가 있어 혈색이 좋아짐에 화장이 잘 받습니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특허출혀제품임

· 품 명 – 예고은 삼베 사워 타올
· 재 질 – 햄프사, 죽사
· 용 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 격 – 세안용 (30cm x 28cm)
· 제조원 – 초록살림원 (한국산)

삼베수세미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수세미는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식기세척시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뽀드득한 느낌과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용하시는 분들은 소박 하고 겸손한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 **삼베수세미의 효과**

* 다이옥신 피해와 수질오염(땅속에서 자연소멸)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 사용 후에는 세탁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합니다

· 품명 – 예고은 삼베 수세미
· 재질 – 햄프사 , 죽사
· 용도 – 식기세척, 과일세척, 욕실청소 등
· 규격 – 30cm x 30cm(소) / 30cmx50cm(대)

위생 · 항균 · 항독 **삼베 수세미**



■ 삼베수세미
각 ~~4,000원~~ ➔ 3,600원 (10%DC)

건포마사지용 **삼베샤워타올**



■ 삼베샤워타올
각 ~~15,000원~~ ➔ 13,500원 (10%DC)

· 품명 – 예고은 삼베 샤워 타올
· 재질 – 햄프사, 죽사
· 용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격 – 전신용 (30cm x 130cm)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동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올바른 마사지법**

· 여름에는 냉수마찰, 겨울에는 건포,습포 마찰을 권합니다.
· 냉한 체질은 건포, 습포마찰이 좋고 열이 많은 사람은 냉수마찰이 좋습니다. 단, 열이 많은 사람은 건포마사지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냉수마찰을 피합니다.
· 예민한 피부는 문지르는 것에 자극을 받아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합니다.
· 상처나 피부질환시 문지르지 말아야합니다.



■ **건포 마사지의 효과**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거칠어질 의심은 버리세요. 비누독이 안 쌓이니 피부가 좋아집니다.
* 죽은 세포나 피지가 매일 제거가 되어 때가 안 낍니다.
* 몸의 때는 비누 때로 인해 생깁니다. 비누 때가 없어지므로 때가 안 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현불샵 특별 할인 세트 30,000원
(세트 구매시 배송비 무료 + 추가 할인)

■ 구성 : 삼베훼이셜타올 + 삼베수세미 + 삼베샤워타올 + 삼베항균비누 3개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돌잔치, 환갑, 칠순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희담석합장주, 염주, 염주 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합장주 증정!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최고급 메모리폼 내의)
~~49,000원~~ ➔ 44,000원 (10%DC)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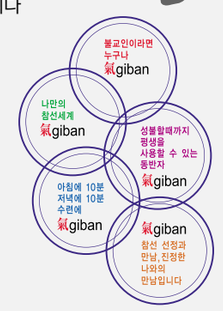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현불샵만의 특별한 소식!!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현불샵 판매 1위를 자랑하는 기반방석의 아낌없는 성원에 보답하고자 다량주문을 하시는 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 50개 이상 주문시 25 % 의 할인 !!

불자생활정보 | 21 | 제 755호 2009년 11월 4일 수요일

▷ **문의** : TEL 02)2004-8214, 732-1522,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 (입금이 되어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불자결혼 인연찾기
홀로 외로운 독신남녀
초혼, 재혼 70세까지
성실한 男, 착한 女 상담환영
불자님 자녀 인연 맺어 드림
02)365-1345
010-9114-4345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연락처 010-2606-5121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전문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울산)

역학 · 빙의 · 퇴마
짧은 시간에 속성으로 실전 위주로 확실하게 비법을 개인지도 함
○역학 : 귀신 빼는 명리 (통변 가능한 분)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사성, 작명
○퇴면 : 전생요법, 빙의, 퇴마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요가 개인, 출장지도
요가 명상 무료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 명상, 오후 : 요가)
위치 : 종로 2가 종각역 4번출구
사띠 요가 명상원
02)723-6817

불교마음수련원생 지도
면벽, 좌선, 예불, 명상다례 등을 통하여 심,신의 장애제거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우울증, 자폐증, 만성피로 등 심리치료도 같이 병행함.
(팔공산 묘적암 성인 합장)
011-9371-8080

역학.빙의.퇴마법 전수
명리학, 주역, 매화역수, 성명학, 풍수지리 실제감정 위주로 속성 지도해 드림
운명 전화상담 가능
010-7443-3060
도통 합장

각종 불공 범음·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예수재, 수륙재,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 주역, 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주역을 통한 한방 역학 및 사주명리학 대강좌
(사주학대비 체질의학 특별강의)
석진성 돈오전법원에서는 동양철학과 불교를 회통한 전법강의를 개설.
스님과 함께하는 방편과 깨달음 (근본 실상자리)으로의 여행에 많은 학인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010-3045-008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41)836-506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청송, 부부도 가능
054)874-2226
010-4730-4350

참 좋은 명리학
명리학자 금당 이종수
(3대 복심법 명리학
선종 학파 이수자)
부산광역시 동구 동광동 5가 1-7 인쇄골목 2길.
010-5015-7175
명리학 상담가능

만물 만능 氣 잡기
사물의 진가, 진위판별,
사업시작과 성패, 개운법 확인, 기풍수, 기사주, 원격투시, 질병 등 만능치유
시중철학이 아닌 100% 과학
내게 맞는 인연 찾기,
누구나 쉽고 간편한 방법
070-7758-3144
016-606-5658

유럽을 석권하다!!
말라야 氣 명상 밀법
세계 최초, 온라인 大 공개
(일 만년, 대 우주 황제 수련 밀법)
인터넷 검색어: 삼봉종
문의 : Tel : 041) 547-3707
E-mail: djkcom@naver.com
공식 홈페이지: www.777djk.com
온라인 강의실: ww.ivictory.net
사) 삼봉종 불교 대학

영산 중요무형문화재 50호 전수
범음범패 바라무 나비춤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전문
02)802-8554
017-219-4757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885-6
대흥사 주지 연암 합장
선망부모 천도재는 간절한 정성기도
사주, 명리 상담해 드립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성남
011-279-002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부천
011-9707-349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성남
031)743-680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김천지역, 50-60대
054)437-0700
010-8603-8361

구직
공무원 34년 정년퇴직
운전면허 소지
사찰 종사 3년 경력
신심으로 일하겠습니다.
011-716-5885

산사에서 기도하실 비구스님 모십니다
011-696-85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양평
010-4187-6777

사람 찾음
속명 : 장종인
법명 : 자혜
나이 : 갑오생 56세
위 사람은 부전으로 다니는 스님으로서 부당행위를 한 자임. 연락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031)471-6675

28숙기도 (대방등 대집경)
●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법당을 모신 거사나 보살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9350-3216

부전자리 원합니다
각종 제사가 자주있는 사찰을 원합니다.
48세 비구승이고 사시불공과 재바라지는 할 수 있습니다
010-3789-7474

50대 중반의 비구입니다.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아갈 도반을 찾고 있습니다
010-8677-1277

천일기도하고 있는 스님입니다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합천
016-9506-5706

법당불사 인연 맺어주실 화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6419-5852
011-9977-3934

신중탱화, 대웅전 현판, 주련 저렴하게 필요하신 스님
▷경북
010-5153-0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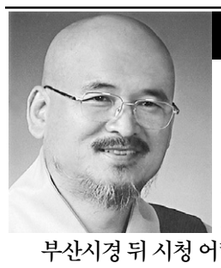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하루밤에 깨우치는
나경(패철)사용법
문학박사 전용원 저 2만 5천원 전국 대형서점
전화주문: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2만 5천원 입금, 전화주시면 저자가 직접 서명하고 낙관찍어 월간역학 1권 (8,800원) 무료기증 함께 보내드립니다.
전화 1688-1137 역학 동영상강의 www.kbs.cc

고(古)건축, 사찰 건축전문
전문적인 건축지식과 오랜 현장경험을 통한 완벽, 책임시공 보장
전통사찰 전문, 일반사찰 전문, 부속 건축물 일체
사찰건축 기획, 설계, 시공 전문
010-6405-2060
061)741-1624 / 031)581-2120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 분야 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명리학 개인지도 속성*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성공하실분 노크하세요.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21세기형 행자교육!!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 추석 · 기일 · 영가 천도일에 천도 축원해드립니다
● 문의 : 010-6296-0108

좋은이름연구원
이름에 관한 모든 것
작명 · 개명 · 상호 · 감명전문
성명학 하나로 평생을 살아온
송학 선생이 9기생 모집중
서울 연신내역 7번출구앞 청구성심병원옆
02)383-8860 / 017-711-2248

이 기구만 있으면 풍수지리 대가가 될 수 있다!!
명당 탐지기
관룡자, 심룡척
관룡자와 심룡척은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는 문학박사 전용원이 1970년대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로도 판매되는 기구입니다. 이들 제품은 성능과 모양이 똑같으며 상표만 다릅니다. 명당혈에서 옆으로 90도 회전하여 100% 정확히 명당혈을 찾아냅니다. 묘터나 집터, 사찰, 아파트, 공장터를 잡거나 감정할 때 사용하며 누구나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입방법: 관룡자, 심룡척은 본래 88만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면 66만원으로 할인+월간역학 1년(105,600원)+수맥 탐지봉(15,000원)+휴대용 케이스(2만원)를 보너스로 드립니다.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66만원 입금, 전화(1688-1137)주시면 즉시 보내드리고 1년간 매월 월간역학을 우송해드립니다.
역학 동영상 강의 www.kbs.cc
사주 관상 풍수지리 주역 육효 자미두수
집에서 편리하고 저렴하게 확실한 공부, 24시간 반복 학습 가능함
사주 초보에서 완성까지 45만원 부터
수료증 자격증 회원증 월간역학 필진 위촉장
한국역학협회 관인 월간역학교육원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 전화 1688-1137

암, 당뇨, 고혈압, 심근경색,
신장, 아토피, 기미, 검버섯
그리고 비만으로
고생하시는 분.
불보살님의 가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문하셔서 상담하십시오.
경남 합천군 대명면 장단리 산 67
청강사 혜광 합장
문의 055)932-5706
016-9506-5706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향다원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 관련 전문 대출 기관
• 사찰 불사대출
• 사찰매매잔금대출
• 기타대출
•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徐一永전무
휴대폰 011-527-1037
재무부인가 제 9-205호
보 현 사 신 협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65
삼정그린코아상가 1층 101호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금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부지 : 2,000평
- 가액 : 3억 2천

- 위치 : 인천
- 법당 : 25평
- 요사 : 25평
- 부지 : 50평
- 가액 : 4억

- 위치 : 경북
- 법당 • 요사 : 20평
- 부지 : 5,000평
- 가액 : 4억
- 고찰지 및 경관 최상급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부지 : 150평
- 건평 : 70평
- 산밑
- 가액 : 2억 5천

- 위치 : 경기
- 부지 : 500평
- 법당 : 30평
- 경관수려
- 가액 : 3억 9천만원

- 위치 : 북한산
- 부지 : 150평
- 법당 : 35평
- 산밑
- 가액 : 4억 5천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구입자금 융자 알선해 드립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인연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2221-2807/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및 토굴 안내

잔디마당 넓은 절

- 총대지 : 730평
- 법당(목조)22평, 산신각 및 요당
- 요사채 2동(목조) 30평, 17평
- 산세 전망 최고, 남향
- 50년 전통, 텃밭 300평
- 가액 : 3억 8천

- 위치: 부산시내
- 총대지 : 5,500평(건물 7동)
- 법당(목조) 70평, 관음전 50평
- 요사채 70평, 종무실 (3층)
- 자연동굴 20평, 용왕당 연못(300평)
- 추모관 납골 1,200기 분양 중
- 가액 : 36억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동부산대학옆
- 평수 : 42평, 1층 요사채, 방3개, 거실
- 2층 법당 17평
  (삼존불, 신중단, 영가단)
- 가액 : 1억 4천만원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비품(시설비) 1,200만원

011-9395-9411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내동
- 평수 : 50평, 법당 18평, 방 3개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없음

011-9323-4478
010-3827-8191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공원 입구)
- 대지 : 108평, 건평 2층 104평
- 철골조
- 가액 : 14억
- 동북권 개발 지역

010-3124-3952

토 굴 안 내

- 위치 : 영천에서 경주방향 15분거리
  (경주IC 영천 IC15분 內)
- 대지 120평 작은 임법당
- 구옥(흙집)3칸, 연탄, 기름보일러 겸용
  새로 설치, 10년된 토굴
- 비구니 선객이 편히 짐 풀수 있고, 건강을 살필 수 있고, 조용히 정진 할 수 있는 아늑한 토굴
- 교통편리(KTX10분거리, 내년 개통 신경주역)
- 가액 : 5천만원

010-6717-17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부근
- 3층 25평, 법당 • 가액 : 2억 2천만원

- 4층 25평 요사채 • 전세 : 5천 5백만원
  아파트 밀집지역, 옥상 전체 사용가능
  (창고, 텃밭)

031)970-9008
011-9005-7007

고찰사지안내

- 부산 근교 가야시대 창건한
  문화재 보존 사찰임
- 문화재 발굴 후 건축할 수 있음
- 대가람 중창의 대력 원력의
  인연만 연락요

- 약 700평 • 가액 : 5억 5천

055)273-0053
010-3571-0042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김제시
  납골공원 내 있는 절
- 법당 15평
- 삼존불, 시설일체
- 전세 500만원

063)543-5551
010-4427-225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 6,500평
  (실등기 5,000평)
- 법당 20평, 요사 2동 2동 중
  황토방 1개, 산신각,
  실내외 화장실3개
- 가액 : 5억

011-816-9104
011-815-9104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 휴식공간 30평
  사무실1, 방6개. 시설 최상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상담 후 절충가능

010-4199-0047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4거리 (죽전지하철역2분거리)
- 평수 : 약 42평(2층)
- 구조 : 법당 약 20평(삼존불 모셔있음)
- 방2개, 주방 겸 거실,
  단독 남, 녀화장실 (약 22평)
- 가액 :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시설비 별도)

010-6835-7370

포교원최고요지

- 위치 : 경남 양산 남부 시장부근
- 평수 54평(현 법회중)
- 4층건물 중 3층(관리비 無)
- 시설완벽 법당1실, 방 4개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
  월 35만원(올 전세 가능)
  시설비 1,500만원

055)372-3563

작 은 토 굴

- 위치 : 강원도 홍천군
- 평수 : 대지 110평
  (건평 30평)
- 임법당
- 가액 : 답사 후 결정

033)434-291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 대지 50평 전 120평
- 임법당 15평, 큰방 2칸 작은방1
- 삼존불, 지장불, 산신각 2평
  집기 일체
- 비구니스님기도처 적합
- 가액 : 8,500만원
- 꼭 필요 하신분 연락 주세요

011-340-5963
010-6667-5778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근교 경관수려함
- 임야 10,000평

010-4876-5535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북부 마을 끝집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차고, 창고, 법당 뒤 대나무,
- 옆 계곡, 깨끗한 우물
- 계절마다 꽃이 피고 산세수려
- 즉시 법회 가능, 몸만 오시면 됨
- 평수 대략 250평
- 문중땅. 건물 시설비 7900만원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4504-780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재래시장부근)
- 4층건물에 3층과 4층
- 3층은 법당, 상담실
- 4층은 요사채
- 가액: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
- 즉시법회가능

051)638-113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 대지 605평, 건평 130평
- 4동, 법당 60평, 다용도실 10평
- 슬라브집 30평, 창고, 화장실
- 가액: 2억 5천만원

010-3174-2336
010-2874-8844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 구리시 교문동
- 3층중 2층 50평. 대로변
  앞 뒤 산이 보이는 전망
- 법당 25평, 방 3개, 주방 大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없음

011-9342-9794

사 찰 안 내

- 위치 : 강릉시 상동면
- 평수 : 80평
- 요사채 방 6칸
- 법당: 삼존불, 석탑,
  약사보현보살, 보현보살
- 가액: 8천 5백만원(절충가능)
- 주위가 청정수려함

010-4606-3877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금정시장 입구)
- 2층 , 평수 : 약 50평
- 즉시 법회 가능. 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천7백만원

010-4432-2700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광양
- 부지: 1,200평, 법당 30평
- 요사채 35평, 공양실 20평
- 전체 기와 단청
- 가액: 5억 5천만원

010-3967-0048

포교원 (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 법당 50평,
- 심야전기, 신전자제품완비
- 방4개, 법당, 공양간, 욕실2개
- 법당내부신도실완비
- 몸만 들어 오면 즉시 법회 가능
- 옥상사용가능
- 보증금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2천만원 (답사후 절충가능,
- 스님 건강문제로 급 양도

010-6564-8088

천하절경 사찰적지

- 충북 청원군 미원면
- 7200평(현 펜션성업중)
- 옥하구경 중(9경)박대소
- 다음카페 "송죽헌"
  동영상 참고

010-6393-0794
010-8336-2710

임 야 안 내

- 위치 : 경남 창영
- 평수: 임야 약 1만평
- 특징: 암자터 좋은 명당, 창녕을
  바라보는 서향, 고암면 감리
  (밀양 넘어가는 국도 첫번째 산
  정봉 아래터, 도로에서 약 120m)
- 가액: 9천 5백만원

010-7325-1259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서 7분거리
- 대지450평(등기필), 와가법당20평
- 2층 요사채 38평(창고 15평)
  옥외 화장실 6평 • 6층 석탑(제주석)
- 불필요 전화 사절
- 가액은 방문시 보시고 절충가능

010-3791-7037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 평수 : 40평
- 2층 건물에 2층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032)549-2088

사 찰 안 내

- 위치: 여수 돌산
- 땅 250평 • 건물 대웅전 1채
  산신각 2층 1채, 요사채 1채
- 사찰 앞 큰 저수지
- 가액: 2억 5천만원

011-9765-5302

전통사찰(급) 안내

- 납골당
- 관광사찰
- 가액 : 27억 5천만원
  (금액조정불가)

010-6227-59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남해군 고현면
- 부지 총 2,000평(종교부지 165평)
  법당 15평(단청) ,산신각 5평(단청)
- 요사채 30평,
- 저수지 물 보이고 옆 계곡물 흐름
- 가액: 2 억 (가격절충)

010-5430-396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 동부지정 부근
- 3층건물에 2층
- 평수 : 30평
- 가액 : 2천만원, 월 20만원

051)782-0110
010-3101-1151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화정면
- 대지 300평, 건물
- 목조 황토집 40평
- 임법당 운영중
- 가액: 1억 5천만원

011-578-3175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시내 중심가
- 최고 위치, 최고 시설
- 삼존불, 4층 건물 중 2층
- 평수 : 42평
- 보증금 15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약간
-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 주세요

010-5453-5535

포교원 안내

- 위치 : 안산 신도시 고잔역 바로 앞,
  주택가 및 아파트 밀집지역
- 1층, 실 50평 • 법당
- 전체 온돌마루(인테리어최상급)
- 방4, 주방, 공양간, 샤워실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11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031)410-1896

토 굴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 사시사철 계곡에 물이
  흐르고 사용은 토굴 별장
- 대지: 198평, 건물 30평
- 개인하천부지 38평 무료
  드림, 합 236평
- 가액: 1억 8천만원

010-3088-3133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 평수: 약 4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월 20만원
- 시설비 집기일체 1,500만원
  (절충가능),시세 반값도 안됨

051)503-0908
010-2291-555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하동
- 임야 2,800평, 대지 4,000평
  건평 720평
- 대웅전, 산신각, 대문종각,
  요사채, 법당, 나한전, 식당 외
  일체 모든 시설 완벽
- 가액: 융자포함 20억

010-8281-8787

사 찰(급)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광안 해수욕장 5분거리
- 3층 건물 중 2층 법당 60평,
  방2, 화장실2, 주방
- 삼존불,산신,후불,신중,칠성,
  소불 200불
- 전세 1억 3천만원(사글세가능)
  시설비 없음, 주인 직접
- 스님 사정상 급양도

010-3019-223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 평수 : 61평
- 아미타불 원불 150불, 지장보살
  50불, 관세음보살 276불
- 큰방1, 작은방2, 주방 1
- 건물: 8층건물에 4층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30만원
  시설비 2천5백만원

031)972-1080
010-8558-9317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신암동
- 2층 25평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9-553-9385

고급주택 토굴겸 사찰안내

비구니스님,법사님,보살님 정년퇴직 불자 가족
나무 꽃 잔디 가꾸며 담은 여생 지낼분

- 깔끔한 전주시내 대지 65평
- 건평 35평
- 큰방2, 작은방 2,거실, 욕실, 화장실 2
- 특징 : 소나무, 꽃나무, 화채류 잔디있음
- 가액 : 1억 5천 5백만원(주인직거래)
- 저금리, 대출 가능

011-650-848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송파구 전철역에서 3~4분거리
- 4층중 2층, 실평수 약 50평
- 시설: 방3, 부엌1, 화장실
- 아미타석자반동굴, 장보살2자반 동굴,
  관세음보살2자반, 후불산신탱화와 합 60평
- 모든시설완비, 집기일체多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3천만원(절충가능), 스님 사정상 급히 양도

010-5336-8875

포교원안내

- 위치: 길음동 , 전철 출구 바로 앞
- 4층건물 중 2층
- 실평수 40평, 법당 2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1,100만원

010-2665-239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전시내 2층 60평
- 아미타불, 관세음, 대세지, 지장보살신중,
  산신, 영가단 각단후불탱화
- 법당, 스님방, 상담실, 공양간
- 가액: 보즉음 1천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2천만원,시설완벽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010-6278-1488

별장 및 토굴 가능한 집 안내

- 위치 :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전북리
- 거실에서 남한강 보이고 옆에 계곡물 흐름
- 토지 330평(4필지), 건평 75평
- 큰방 4개, 대형거실1, 화장실 3
- 지하수+상수도 잔디마당
- 가액: 3억(융자1억 2천포함)

010-4736-3567

암 자 터 안 내

- 위치: 경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역전 3분거리 도로 접
- 대지 400평 • 건물 21평 포함
- 가액: 평당 10만원

- 대지 470평 • 가액: 평당 5만원
- 복바위 앞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음

010-5048-9949

개 인 선 방 안 내

치악산 비로봉이 정면으로 보이는
전통적인 명당터, 산중은거 수행도량

- 위치: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 평수: 총 979평(대지 149평)
  국유림이 이 땅을 둘러싸고 있음.
- 목조건물 2동(본채 55평, 별채 7평)
  본채 심야보일러 및 현대식 화장실
- 가액: 2억 5천만원
-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 바람

011-9058-2264

사찰(포교원) 안내

- 위치 : 밀양시 무안면 땀흘리는 표충비각에서
  5분거리, 국도변 위치(교통편리 시내외 정류소옆)
- 대지: 230평, 주차장 넓음
- 요사채: 적벽돌 슬라브 60평 (2층증축가능),
  최고급 원목 실내 시설, 태양열 설치
- 법당 : 18평 1동
  (삼존불 및 후불 35평형 탱화)
- 가액: 2억 4천 5백만원(절충가능)
  (은행융자 8,000만원 포함)

010-8846-7090

“제대로 살면 죽은 다음 일은 걱정없다”

강 사 : 도법 스님
일 시 : 2009년 10월 22일
주 제 : 여성! 부처를 말하다
장 소 :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교육센터
주 최 :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승만경〉은 〈유마경〉과 함께 대승불교의 재가득도(在家得道)를 펼쳐보인 경전으로 산스크리트의 경명은 Srimaladevi-simhanada-sutra이다.

〈승만경〉은 승만이라는 재가여성의 설법을 사자후라고 하여 부처님 설법의 지위와 같은 위치에 올려놓음으로써 대승불교에서 여성의 지위가 높았음을 증명하는 경전이기에 의미가 깊다. 승만보살은 대승(大乘), 즉 일승(一乘)을 수지하며 불설(佛說)에는 이승(二乘)이 없다고 강조한다. 또한 중생이 번뇌에 싸여 있지만 본성으로는 여래(如來)와 마찬가지로 여래의 성품(佛性: 如來藏)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승사상을 계승하고 또한 여래장 사상을 대승의 정계(正系)로 자리잡게 한 점에서 높이 평가되는 경전인 〈승만경〉을 도법 스님이 설주로 나서 강의했다.

도법 스님을 통해 흘러나오는 〈승만경〉의 깊고 오묘한 지혜를 함께 들어보자.



도법 스님이 10월 22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교육센터에서 승만부인이 사자후 한 〈승만경〉을 강의하며 남녀 불평등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남녀 불평등 근본적으로 없던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 해온지가 2000년이고, 부처님 나라를 이야기 해온 지가 260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나라가 실현된 적이 있습니까? 또 2600년 동안 불국토를 이야기 해왔는데, 불국토를 실제로 본 적 있습니까? 어떠세요? 불자님들. 그럼 이게 거짓말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불교는 계속 혼란스러움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만경〉을 이야기하자는 것은, 불교입장에서 남녀 불평등의 문제를 이야기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약을 사용해 보면 만병통치약이 있습니까? 병에 따라서 맞는 약이 있고 아닌 것이 있는 거죠. 불교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우리불교는 초기불교 하는 사람들은 “초기불교가 진짜다” 선(禪)하는 사람들은 “선만이 진짜다” 라고 말합니다.

병의 숫자만큼 약이 있듯이 인생 문제의 숫자만큼 부처님 가르침이 있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내가 하는 것만이 유일하다. 내 생각이 진짜다” 하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 말고 다른 것도 존중하고 열려있는 사고방식이 불교인의 상식이 되고 교양이 돼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불교를 내세우면서 ‘내가 하는 것만이 진짜’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아집’이죠. 남녀 불평등의 문제도 그런 의식과 같은 맥락입니다.

남녀 불평등의 사고방식이 불교의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크게 구분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로 표현되기 이전부터 ‘본래있던 법’입니다. 그것을 부처님은 “내가 출현했든 출현하지 않았든지, 또 내가 깨닫거나 깨닫지 않았거나에 관계없이 ‘본래부터 있는 법’이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래부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서고금에 차이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본래 있는 법을 근거로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명 한 ‘교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있는 법에 의해서 태어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남녀 불평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서고금에 같은 법인데, 남성에게는 적용이 되고 여성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거죠.

여성불자들 중에는 “죽어서 다음 생에는 남자로 태어나겠다”는 원을 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녀평등을 외치지만 또 한편으로 길들여진다는 것이 무서워요. 현실적인 불평등 구조 때문에 그러한 원을 세우지만, 그것은 피해가는 방법일 뿐입니다. 그것보다는 극복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정면으로 부딪혀서 부당하고, 법의 정신에도 안 맞는 것을 타파해야 합니다.

행위와 과보만 존재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와 과보가 있을 뿐 행위자는 없다.” 그 말의 뜻은 “내가 행위하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도둑질하면 도둑놈의 삶이 이루어지고 부처행위를 하면 부처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후의 조종자가 있어서 내가 ‘도둑질’하게 하고 ‘부처님 행’하게 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배후의 조종자는 없습니다. 배후의 조종자가 있다는 일반적인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단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위 하는 겁니다. 배후의 조종자를 두는 것은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고,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종교인 브라만에서는 아트만(atman : 만물 속에 내재하는 영묘한 힘)을 배후의 존재로 봤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것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부처님이 부처님 당시 여성들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은, 여성을 차별해서가 아니라 사회구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파악된 상황으로 보면 완전 무방비상태로 살았던 것이 그 당시 출가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출가자들의 삶이 지금처럼 보장된 것이 아니라 방랑자나 마찬가지로, 아무 보호막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출가를 허락할 수 없었던 겁니다.

또 당시 출가하겠다고 나선 여성들이 대부분 석가족이었습니다. 출가는 가정을 버리고 나와야 하는 것인데 당시 부처님의 부인, 부처님의 어머니 등 그분들의 출가를 허락하면 출가해서도 가족들과 같이 사는 판이 되기 때문에 선뜻 허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간절함이나 내용으로 봐서는 허락을 해야 하는데 신흥종교였던 데다 당시 사회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승만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행위와 행위의 과보만 있을 뿐 행위 하게 하는 자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승만부인이 정법으로 삶을 살아가니까 대승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신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보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정법에 대한 신심과 원력으로 살면 대승보살이죠. 정법에 대한 신념과 원력이 없으면 대승보살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욕심 버려야 ‘제2의 화살’ 맞지 않는다
부처행위 하면 부처님 삶이 이루어지는 것

오늘을 잘 살면 내일 걱정은 없다

오늘을 제대로 살면,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삶을 제대로 살면, 죽은 다음의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을 충실히 하는데 내 존재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일 걱정하고 모레를 걱정합니다. 또 현재보다는 내생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몽상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도 그렇고 부처님 말씀도 그렇고 오늘을 제대로 살면 내일을 걱정할 것 없습니다. 괜히 내일 일을 걱정해서 오늘을 허비합니다.

오늘을 제대로 사는 것이, 이생을 잘 사는 것이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부처님 법으로도 맞습니다.

〈승만경〉 78페이지에 나와 있는 ‘무변성제장’은 ‘무한히 성스러운 진리를 다루는 장’ 입니다. 주로 여기서는 ‘기존한 불교는 불충분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새로운 불교사상이 진짜이고 깊고 풍부하다. 그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기존한 불교(초기불교의 가르침) 보다 ‘여래장 사상’을 성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성(聖)의 의미는 일체 성문과 연각은 아닙니다. 성문과 연각은 헤아릴 수 있는 공덕을 성취하였고, 성문과 연각은 일부분의 공덕만을 성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온갖번뇌를 완전히 제거한 것)의 의미가 성문과 연각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문과 연각의 진리가 아니며 또한 성문과 연각의 공덕도 아닙니다.”

〈승만경〉에는 여래장사상이 나타나있습니다. 초기불교에는 ‘내가 주체적으로 수행해서 고통으로부터 해탈한 후 중생을 위해 법을 전한다’는 것이 종교의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이 대승불교로 오면 사회완성의 의미가 보태집니다. 여래장사상은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여래장은 깊고 깊기 때문에 성스러운 사람만이 알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대승불교에 와서는 ‘본래부처론’으로 발전합니다. 요즘에와서 대승불교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 이야기가 많은데 실제 내용으로 보면 대단히 놀라운 면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초기불교 당시는 바라문교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하면 힌두교입니다. 바라문의 아트만(atman)이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그것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고행을 통해 육체를 정화시켜야만 바른 행위가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것(atman)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병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무아’라는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본래취지가 왜곡됐고 허무주의에 빠지는 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치료하려다 보니 다른 처방이 필요했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여래장(如來藏) 사상’과 ‘일심(一心)사상’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속에서 명확하게 실천할 수 있는것은 “제2의 화살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매 순간순간 확인하며 매순간 깨어있는겁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 욕심을 내서 꺾는 것은 제2의 화살입니다.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분별하지 말하는 것은 제2의 화살을 맞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을 가지지 마라는 겁니다. 감정과 욕심을 분리 시켜 봐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매 사안마다 확인해야합니다.

정리= 박선주 기자 sunjoo0802@naver.com

불자정보 756호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화북면
● 부지 : 17,000평
● 법당 신축허가 필
● 조용하고 깨끗한 청정 수려한 지역
● 법당(가건물), 요사, 화장실, 전시시설. 유
● 가액: 4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3918-0333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창원, 위치 최상
● 건물 : 2층 중 2층
● 평수 : 47평
● 방2, 공양간 등 시설완벽 몸만 들어오시면 됨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8612-257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구미, 김천 중간
● 대지 : 532평
● 법당 20평, 식당 20평, 요사채 20평
● 통나무집 1채, 총 7채
● 가액: 1억 8천만원 절 사신분에게는 2천만원을 불사하겠습니다
011-540-331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 법당 25평, 요사채 25평
● 삼존불, 방3, 거실1, 창고1
● 바다 전망
● 즉시법회가능
● 가액: 총 7500만원(협의가능)
017-547-5008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대명동
● 대지 : 106평, 법당: 40평
● 요사채(1,2층): 60평
● 포교활동 최적지
● 가액: 3억 7천만원 시설비: 3천만원(절충 가능)
011-790-9171
010-5628-8404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시내
● 평수 : 61평(2층)A급
● 寅띠, 戌띠, 子띠생, 비구에게 (법랍10년이상)포교원을 맡기고자 합니다. 좋은 인연되소서
● 연락 : 오후 6시 30분이후
070-8861-3359

사 찰 안 내
● 위치 : 영덕군 창수면
● 총평수: 328평
● 임법당, 삼존불, 바깥에 지장보살석불, 산신석불, 산신각, 문수전, 창고
● 가액: 1억 5천만원
010-4660-538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구 초량동
● 대지 200평,
● 만불 조성,
● 대웅전1, 마당, 선방 숙식 가능
● 가액: 절충가능(은행융자가능)
010-7163-0946
010-2827-7277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가곡동 시장통
● 평수 2층 65평, 방2, 공양실1, 화장실 남녀 각 1개
● 가액: 보증금 5백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협의가능
● 모든 시설완비, 현재 운영중
● 스님 봉찰 주지 문제
011-590-2878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 북구 읍내동
● 평수 약 50평, 삼불, 소불 53위, 신중탱화, 종
● 방 5(큰방1, 작은방3, 공양간1)
●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2,300만원
011-9987-4100

암 자 안 내
● 위치 : 창녕 남지IC에서 5분거리
● 탁트인 전망, 조용하고 공기 좋은 넓은 호수에 물안개 뜨면 한폭의 그림같은 곳 호수가에 연꽃이 피면 정말 꿈같은 곳.
● 암자별장이나 전원주택 생활 즐길분
● 대지: 463평, 집 3동 전(밭) 465평 (주인직)
● 가액: 평당 29만원
010-7731-3721

암자 터 안내
● 위치 : 충북 단양군 영춘면 삼태안
● 대지: 200평(전포함), 총 755평
● ㄱ자형태의 온돌 방구조, 기초공사완료 23평, 17평 정도의 건축가능
● 수도 및 서울봉은사황토벽돌납품회사1800장
● 급히 집 지으실 분만 연락
● 삼태안 천년동굴에서 흐르는 물 단독사용
● 설계 또는 명의 변경가능, 주변 혐오시설 없음
● 급 양도가 6500만원
010-6460-1316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관악구 은천동
● 평수 : 3층에 3층 50평(옥상사용)
● 가액 : 보증금 5천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 싸게드림
010-3550-1180

포교원안내
● 위치 : 성남시 모란시장 뒤 공설운동장 후문 입구
● 평수: 4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5만원
● 최신시설
011-857-3775
031)755-3775

사찰 대출 안내
사찰대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죽도2동 새마을금고**입니다. 사찰은 주로 공시 시가가 낮고 일반인의 눈으로 단청의 가치를 판단하기 힘들기에 사찰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어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희 새마을금고는 오랜 경험과 사찰의 가치를 잘 알고 있기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새마을금고**는 서민 금융기관으로 지역사회개발과 회원복지에 목적을 두는 **비영리 금융기관**이라 부처님의 중생 구제에 가장 일맥상통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양도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현재 높은 이자로 사채나 대출을 쓰시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와 의논해 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입니다.
▶ 1억원 대출시 월이자 약 60만원 ◀
출장비, 소개수수료, 대출꺽기가 일체 없습니다.

죽도 2동 새마을금고 본점전경
· 대출지역 : 전국
· 대출형식 : 담보대출
· 대출금액 : 5천만 ~ 5억
· 대출금리 : 연 7.2%~8.2%
· 대출기간 : 5년(연장가능)
■ 담당직통
· 상무 : 이강욱 010-9842-4200
· 과장 : 김상민 016-9314-2522
죽도2동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39

불법 만난 인연에 감사하라

[원문]
녹원원중백화향(鹿園苑中百花香)
동토산야춘초록(東土山野春草綠)
세존인하도솔래(世尊因何兜率來)
달마하사답강래(達摩何事踏江來)
–치악산 구룡사 대웅전

[번역]
녹야원 동산에는 꽃들이 향기롭고
동토의 산과 들에 봄풀은 푸르다.
세존은 무슨 일로 도솔천에서 오셨으며
달마는 무슨 일로 강을 건너 왔는가.

[선해(禪解)]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무병장수하기를 원함에도 노력은커녕 무조건 오래 살기만을 바란다. 이는 마치 허공에 집을 짓는 것과 다름이 없다.

옛날 인도의 상가세나 스님이 쓴 <백유경>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일층과 이층을 짓지 않고 삼층을 먼저 지으려는 이야기가 있다. 삼층이란 불법승(佛法僧) 삼보(三寶)를 이야기 하는데 이 세 가지는 항상 깊은 유대 관계에 있어 하나라도 부실하면 성불을 이룰 수 없다는 교훈의 말씀이다.

우리의 건강도 이와 같다. 우리가 병 없이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무턱대고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남이 건강하다고 해서 자신도 건강해진다는 보장은 없다. 자신이 배가 고프면 밥먹어야지 남이 밥먹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배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진정으로 무병장수를 원한다면 그러한 원(願)을 세우고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자신에게 건강과 행복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병으로 인해 건강을 잃고 고통을 받는 것은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이다. 이를 빨리 깨닫고 고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무엇이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선 건강과 행복을 찾기 위한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을 하면 된다. 스님들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첫째, 정정(正定)으로서 기도와 참선과 사경이다. 이 수련을 계속하게 되면 자신에게 굳은 신념이 형성되어 매사에 의욕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열의는 마치 전등을 밝혀주는 발전소와 같다. 말하자면, 이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원초적인 힘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된다.

둘째는 정업(正業)으로서 몸에 좋은 습관을 들여주는 데에 있다. 좋은 습관을 몸에 가지는 것은 마치 자동차의 엔진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주면 제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과 같다. 기계도 쓰지 않으면 녹이 쓸고 고장이 나듯 우리의 몸도 일정하게 좋은 행위의 습관을 가져야만 한다. 이와 같은 생활은 몸의 정상유지는 물론, 비만을 방지해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셋째는 정어(正語)로서 바른 말을 하는 것이다. 인간 세상에서 모든 의사전달과 서로 간의 행위가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말이란 친화력을 가지는데 말 하나를 통해서 불행했던 일상의 생활이 밝아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며 병약하던 몸이 건강해 진다. 이것이 곧 '말의 힘'이다.

가롱성진(假弄成眞)이라는 옛말이 있다. 처음에는 거짓으로 농담 삼아 하던 것이 궁극에는 그것이 진실이 된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말은 어떤 마력과도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말 그 자체는 물론이고 말을 자주 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말과 똑 같은 것이 형성되고 나아가서 남에게까지 전달이 된다.

부처님 설법은 얼어붙은 세상에 봄이 찾아 온 것
끝없는 정진으로 중생구제 서원 일으켜야 참불자

그리해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생활을 개선하며 운명을 개선하려면 매일 두세 번 정도씩 긍정적이며 희망적이고 선하고 밝은 말로 마음을 깨끗이 해줌으로써 원하는 바가 그대로 개선된다. 그러므로 정정과 정업, 정어를 제대로 지키면 저절로 몸은 건강해지고 무병장수를 하게 된다.

오늘의 가을여행은 가을 치악산에 있는 구룡사 대웅전이다. 치악산은 풍광(風光)이 무릉도원을 연상시킬 정도로 절경이다. 그래서 여행객과 등산객들이 항상 붐비는 곳으로 유명하다. 백두대간의 주맥(主脈)이 오대산을 거쳐 서쪽으로 태기산을 지난 극동의 명산(名山)으로 알려져 있다. 바로 그 산이 품고 있는 대찰(大刹)이 바로 구룡사(龜龍寺)이다.

조계종 제 4교구의 말사로서 신라의 고승 의상대사가 신라 문무왕8년(668)에 세운 절로 아홉 마리의 용의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창건이후 계속해 도선 국사 · 무학 대사 · 서산 대사 등이 거쳐 간 영서 수찰(首刹)이다. 조선 중기 이후 절 입구에 있는 거북 모양의 바위 때문에 절 이름도 '아홉구'를 '거북 구'자로 고쳐 썼다고 한다. 말하자면, 풍수지리적으로 '천년이 지난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연꽃을 토하고 있고, 영험한 아홉 마리의 용이 구름을 풀어 놓은 형상을 한 천하의 성지'가 바로 치악산 구룡사이다.

절 입구에 있는 황장금표(黃腸禁標)는 조선시대 이 일대에서 무단 벌목(伐木)을 금한다는 방으로 전국에서 역사적 자료로서 유일하게 남아 있다. 현존 당우는 대웅전, 보광루, 삼성각, 심성당, 설선당 등이 있다. 그럼 주련의 내용을 음미해 보자.

'녹야원중백화향 동토산야춘초록': 녹야원 동산에는 꽃들이 향기롭고 동토의 산과 들에 봄풀은 푸르다.'

녹야원은 인도 북부 우타르푸라데시주(州)의 남동쪽에 있는 바라나시(市) 북쪽 사르나트에 있는 불교 유적을 말한다. 이곳은 선인론처(仙人論處) · 선인주처(仙人住處) · 선인녹원 · 선인원(仙人園) · 선원 · 녹원(鹿苑) · 녹림(鹿林) 등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35세에 성도(成道)한 후 최초로 설법해 아야다교진여(阿若多僑陳如) 등 5명의 비구(比丘)를 제도(濟度)한 곳이다. 특히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한 룸비니, 성도(成道)한 부다가야, 입멸한 쿠시나가라와 더불어 불교의 4대 성지로 뽑힌다. 이곳에는 다메크탑(塔)을 비롯한 많은 불교 유적과 사원(寺院) · 박물관 등이 여러 곳에 남아 있다. 박물관에는 아소카와 석주두(石柱頭)를 비롯해 많은 유품들이 소장되어 있는데, 특히 네 마리의 사자상으로 된 주두는 인도미술 최고의 걸작으로 마우리아기(期)에 속하는 가장 오래 된 유물이다. 말하자면, 부처님의 설법으로 인해 녹야원의 꽃들이 향기롭고 얼어붙은 동토에 봄이 와 푸르듯이 어쩌면 구룡사가 바로 부처님이 처음 설법한 한국 불교의 녹야원인지도 모른다.

'세존인하도솔래 달마하사답강래': 세존은 무슨 일로 도솔천에서 오셨으며 달마는 무슨 일로 강을 건너 왔는가.'

도솔천은 불교에서 말하는 욕계(欲界) 6천(六天) 중의 제4천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도솔천은 지족(知足) · 묘족(妙足) · 희족(喜足), 또는 희락(喜樂)이 있는 곳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 내원(內院)은 장차 부처가 될 보살이 사는 곳이라고 하며, 석가도 현세에 태어나기 이전에 이 도솔천에 머물며 수행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도솔천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신 것은 수행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이며 달마 대사가 중국으로 강을 건너 온 것도 바로 중생구제 때문이다. <화엄경>에 '인생난득 불법난봉(人生難得 佛法難逢)'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의 몸 받아 태어나기 어렵고 또한 부처님의 법 만나기 어렵다는 뜻이다. 오늘날 우리는 비록 말법시대에 살고 있으나 부처님과 달마 대사를 만나 불법(佛法)의 기쁨을 한량없이 누리고 있다. 이러한 때에 깊이 수행해 깨달음의 길로 당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39

견성 해야 생사윤회 벗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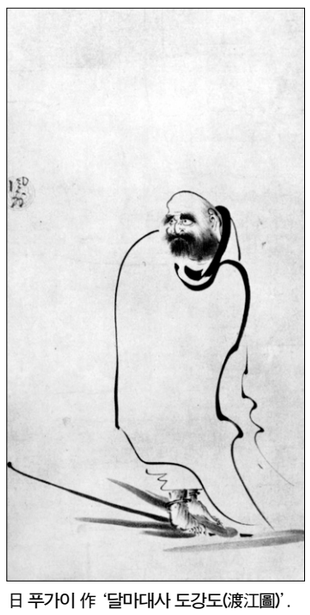
[원문]

若於生死中得自在 轉一切法 與聖人神通自在無無處不安. 若心有疑 決定透一切境界不過 不作最好. 作了不免輪廻生死. 若見性 陀羅亦得成佛.問曰 陀羅殺生作業 如何得成佛.答曰 只言見性 不言作業.

"생사 가운데서 자유로움을 얻어 일체의 법을 굴려 성인들의 신통과 같이 자유자재해 걸림이 없으면 불안할 것이 없으리라. 만일 마음에 의심이 있으면 반드시 온갖 경계를 통과하지 못해 생사의 윤회를 면하지 못하겠지만, 견성을 하면 전다라(수렵, 도살, 형참 등을 업으로 하는 아주 낮은 천민)라도 부처가 될 수 있느니라."

"전다라는 살생을 업으로 삼는데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성품을 보라고 말하였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느니라."


日 푸가이 作 '달마대사 도강도(渡江圖)'.

[해설]

본래 불성자리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생사가 없는 도리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잘 안 됩니다. 현실에서는 눈으로 보고 듣는 것에 끄달려가고, 배고픔에 끄달려가는 중생이라는 얘깁니다. 우리가 아침밥 먹은 것을 잊듯이 경계에 끄달려가지 않는 생을 살 수만 있다면 우주를 자유자재로 신통을 쓸 수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과 밖이 끊어져야 불안한 마음이 싹 없어집니다. 일상 생활에서도 집착하는 마음 없이 바로바로 놓기만 하면 도인이 되지만, 사실이 아닌 것에 집착을 놓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달마 대사는 생사가 없는 그 자리를 믿지 못한다면 영원히 윤회를 면치 못하지만 우주 근본 성품자리만 깨닫게 되면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다른 생명을 죽이면서 사는 분들도 성불할 수 있다고 설합니다. 그러나 그 업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얘기는 아닙니다. 자기 전생의 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업이 오면 그대로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길만 일러주는 것이지 성불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열심히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하겠지 하는 믿음을 갖고 정진을 하셔야 됩니다.

'성품을 보라고 말하였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느니라.'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래 성품을 깨달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진을 통해서 성품을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와닿지 않을 텐데,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꿈속에서 꿈을 꾸다 깬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허망하다 이런 얘기죠. 성품을 보지 못한 삶이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알고 사는 세계를 말합니다. 잘못 살고 있는 것이죠. 헛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반야심경>에서도 전도몽상(顚倒夢想) 즉,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무엇이고 객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참나'이고 육신은 인연에 의해서 잠시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육체 위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천상세계, 도리천에서 인간의 세계를 바라본다면 도리천의 하루는 인간 세계에서는 백 년에 해당됩니다. 도리천에서 보면 인간세계는 하루살이입니다. 백 년이라는 시간이 인간세계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되돌아보면 꿈속에서 꿈을 꾸다 깬 것과 똑 같은 겁니다. 우리 의식 속에 있는 경계는 보고 듣는 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사실인양 집착을 함으로써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수억 년의 생을 통해 살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전생에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고 생로병사에 대해 고민을 하시다가 출가를 해서 도를 깨치고 보니 "진정한 나는 '마음'이지 '육신'은 나가 아니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자리에서 도를 깨닫고 마음자리에서 우주의 실상을 비추어 보니까 '우주가 그대로 마음으로 되어 있더라'는 얘깁니다. 이것을 아신다면 육신 뿐만 아니라 물질로 이루어진 모든 경계의 대상도 사실은 마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야심경>에서 '공(空)'이라고 법문하는 겁니다. 텅 비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며, 사실이 아닌 것을 보고 살기에 헛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꿈속에서 꿈을 꿀 때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깨고 보면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도를 깨쳐서 마음의 눈으로 보면 현실이 다 사실이 아닌 마음으로 되어있다는 얘깁니다. 우주가 마음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수행을 통해 체험할 때는 의심을 안 하는데, 아직 여러분들은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일러 줘도 의심을 하게 됩니다. 우주가 마음으로 되어 있음을 보는 것은 성품(性品)을 보는 것입니다. 성품을 본 다음에 염불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성품자리를 보지 않고 하는 염불은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품'이라는 뜻을 바르게 아셔야만 바른 수행을 하실 수 있다는 얘깁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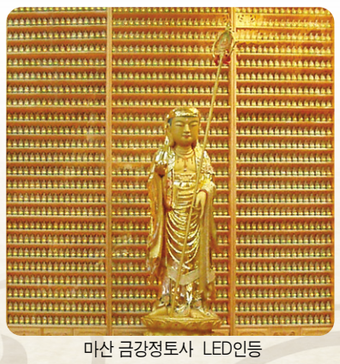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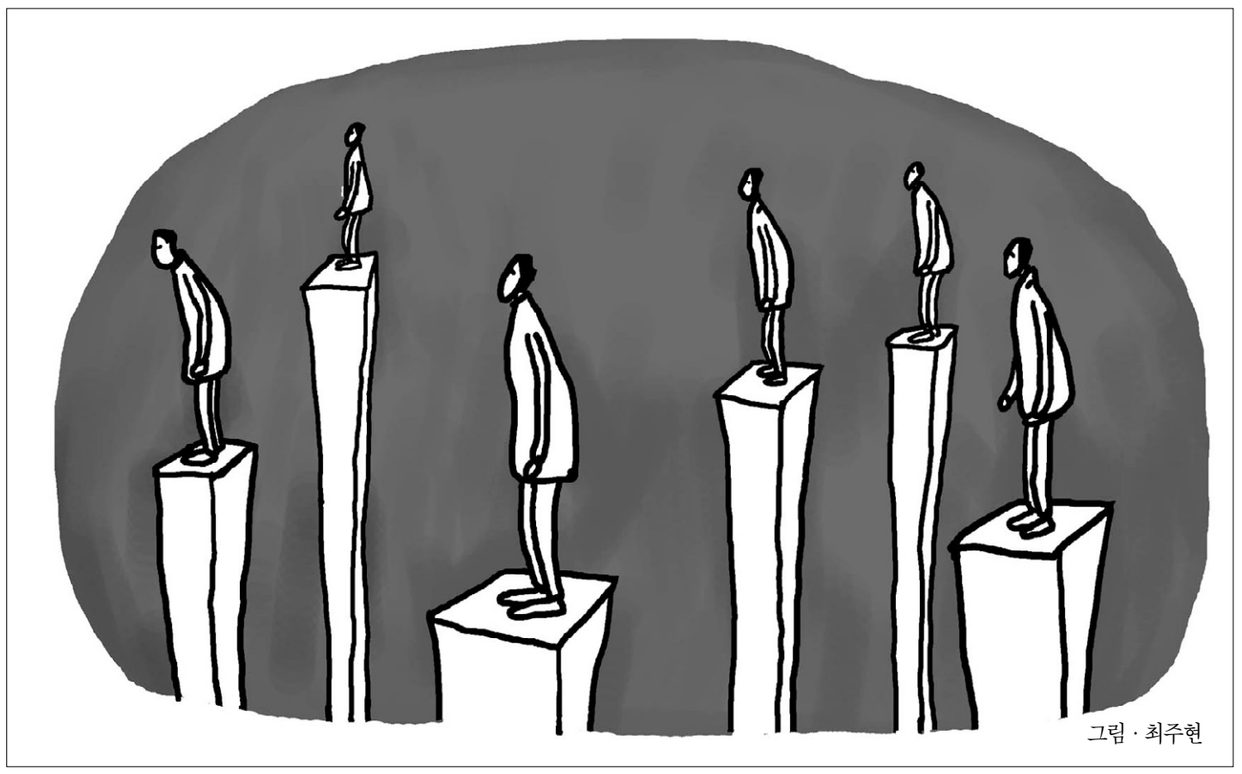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 공단등 · 오색공단등 · 영가등 · 종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 팔각봉축접등 · 종등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보는 순간 듣는 순간 한생각 잘하면 그게 법이 됩니다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이 법회에 오시면 항상 자리가 불편해서 죄송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도 모자라는 점이 많겠지만 양해하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날까지 법회를 해왔는데 여러분이 실천을 하는 데에는 여러분께서 자기 자신을 알아서 용법으로써, 어떻게 해나가야 대처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악과 선을 대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도의 길을 걷기 위해서니까 오늘은 그대로 질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간에 내가 설법을 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무엇을 먹어봐야 그 맛을 알고 뛰어봐야 뛰는 그 길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해 드렸는데 이날까지 해오면서 어떠한 것이 좀 불안하다든가 아리송하다든가 그러한 문제 등등을 가지고 나오신다면 자세히 알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제일 급한 게 나로부터니까요. 나로부터 내 가정, 사회, 우주 모두니까요.

내가 먼저 말을 해놓으면 거기에 위축이 돼서 질문할 것도 없어지거든요.

질문자1(남): 저는 한마음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은 초심자입니다. 얼마되지 않는 동안 주인공을 찾고자 했습니다만 믿음이 부족해서인지 허공만 맴돌고 있습니다. 큰스님의 법어집 내용 중에 '역경을 싫어하고 순경을 반가워하는 것은 바로 간택하는 마음이니 중생심이다. 주인공으로서의 마음은 툭 틔어 밝은 허공과 같아서 어떤 경계에도 집착하는 바가 없다. 고로 순경에 애착을 두어 주인공을 만나고자 하는 생각은 도리어 중생심을 북돋을 뿐이니 공한 도리를 알지 못함이라. 도에는 군더더기 하나 붙을 자리가 없다. 도는 활발하고 드높고 시원시원하다고 말할 수 있다.' 라는 법문을 읽고 저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을 찾는 데 시간이 길고 짧음이 없고 들고 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중생이 짧음에 역점을 두어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역경보다는 순경, 다시 말해서 내 안위와 물질적인 세계에만 애착을 두어 주인공을 찾다보니 제 마음 속에 있는 주인공이 '에라, 엿먹어라.' 하는 것 같아서 저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중생을 위해서 법문을 부탁드리오며, 오늘 이 법회에 참가한 또 다른 이유는 큰스님의 모습만 보기 위함이 아니고 제 주인공하고 큰스님의 주인공이 둘이 아닌 한마음이라 하시어 오늘 큰스님의 주인공을 훔치고자 하옵니다. 제 것을 찾는 데 게으르면서 남의 것만 탐하는 이 어리석은 중생을 위해서 큰스님의 크나큰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큰스님: 말씀하신 대로 물질계와 정신계가 둘이 아니게 통해야 내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또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데 대해서 그것이 한데 떨어지지 않고 법이 된다는 뜻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간략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정신계 물질계가 같이 혼합이 돼서 돌아가는 시대니까요. 지금 악이다 하면 악도 천차만별입니다. 선도 천차만별이고요. 차원에 따라서 차례차례로 차원이 주어져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악과 선이다 하는 가운데 악도 내버리고 선도 내버리고 그냥 지금 그 가운데 서서 나가는 길이 아닙니까? 지금 가운데 서서 나갑니다. 그런데 가운데 서서 나가다 보면 악도 보이고 선도 보이고 선도 하게 되고 악도 하게 되는 거를 통틀어 거기다 놓고 보면 나도 공했느니라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공한 걸 알고 또 그 믿는 마음이 유독히 생각이 나서 간절히 거기다 놓고 항상 그렇게 해나간다면 바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악이나 선이나 거기 다시 놔야 하고 악은 흡수해서 굴려서 놔야 하고 그래야 얼른 쉽게 말해서 '내 주인공과 네 주인공이 둘이 아닌 까닭에 모두가 하나로 불이 들어올 수 있으니.'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서 되는 일도 아니라고 그러지만 생각이 없다면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체 만법을 자기가 하고 자기 안팎을 잘 다스리고 나간다면 거기에 성과가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묻기는 이렇게 물었는데 대답은 저렇게 했으니, 그것이 거기에서 다 조절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2(남): 저는 요즘 현실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요즘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엉망이고요. 정말 훌륭한 분이 나와서 이 나라를 좀 건져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간절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면 그렇고, 이번에는 정말 훌륭한 분이 나와서 우리나라를 건강하게 좀 이끌 수 있는 그런 분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생각도 없이 나왔습니다.

큰스님: 나라 일이 걱정되십니까?

질문자2(남): 예.

큰스님: 올해 특별히 그 질문을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근본이 일체 만물 만생과도 가설이 돼 있고 일체제불하고도 바로 직결돼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주 삼천대천세계하고도 직결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말로 하고 몸이 움죽거리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함이 없이 하라 이런 소립니다. 함이 없이 하는 도리를 알아서 그렇게 하신다면 남한테 유난히 저주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도리가 있다 이 소립니다.

모든 것이, 이 우주 대천세계에뿐만 아니라 지구 하나도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이 진리를 파악하신다면 우주의 주인이 되고 또 주인이 이끌고 결정을 해서 지구의 심부름꾼을 만들 수도 있죠. 그리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직 하시면서 느끼는 대로 깊이 안으로 하십시오. 잘못 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를 알아야 하고, 또 어떠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나가는가 그걸 알아야 하고 지금 어떤 사람이 되면 우리 국민이 편안할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과거로부터 말입니다. 어저께도 과거니까 과거로부터 해나온 걸 보면 현재에 그 도리가 다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어떻게 돌아갈 건가 한번 생각해서 마음을 깊은 속에서 내십시오. 그럼으로써 바깥으로 끄달리지 않고 생활을 그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3(남):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시험을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이거든요. 그런데 2주 전에 셋째주 법회 들으려고 올라오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시험에 대해서 참 두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고3법회를 했는데 거기서 스님께서 '내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데요. '나를 버려라.' 이런 말씀을 듣고 지금은 내가 없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거든요, 순간순간에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이 너무 행복하고요, 시험도 시험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냥 일과로 생각이 되고, 그냥 편안한 마음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 제 마음에 대해서 스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시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마음 편하게 치룰 수 있게 그렇게 마음 내주기를 바라고 여기 섰습니다. 마음 내주십시오.

큰스님: 마음을 제삼자에게 내달라고 하기 이전에 내 마음을 내면 다 통한다,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즉 말하자면 남한테 마음을 내달라기 이전에 내 마음을 내면 더불어 같이 내진다는 말이에요.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아니고 '생각을 내지 마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것저것 다 버리고 편안하게 하겠습니까만, 편안치 못하든 편안하든 다 버리는 겁니다. 놓는 겁니다. 이 몸뚱이가 고정됨이 없이 바로 화해서 찰나찰나 나투는 까닭에 공했단 말입니다. 어떤 거를 할 때에 내가 했고 어떤 거를 할 때에 내가 안 했고 이게 없다 이 소리죠. 그런 까닭에 주인공 자불이 나의 모든 기능을 합해서 시험을 보는 거니까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잖아. 합격되게 할 수 있는 것도 너뿐이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에 한해서는 자기 보배를 자기가 응용 못하고 바깥으로 끄달리면서 자꾸 내가 무엇이 모자라는데, 내가 무엇이

☞26면으로 계속

343일 조상천도 법회 봉행 안내

1. 조상 꿈을 많이 꾸는 분
2. 병명없이 몸이 자주 아픈 분
3. 부부간, 형제간 가정 불화가 많은 분
4. 집안에 우환 및 사고가 많은 가정
5. 사업이 부실하고 고통이 많은 분
6. 특히 건설업, 운수업을 하시는 분
7. 자손이 귀하거나 탈선하는 가정
8. 관재수나 손재수가 많은 분
9. 입시생, 수험생 자녀가 있는 분
10. 관직, 승진, 선거출마 예정자 등

귀의삼보하옵고

불자님들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길 발원합니다.
저희 지장선원에서는 조상천도, 호국영령, 천재지변,
각종 사고사망, 낙태태아등 돌아가신 영가들을 위하여
343일간 7번의 49재와 천도재 구병시식 법회를 봉행하여
유주무주고혼 애혼각 열위열명영가를 극락세계 상품상생케 할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 우환이나 근심거리가 있으신 불자님들을 위하여
매 49재마다 천도재 구병시식을 함께 봉행합니다.
이 거룩한 법회에 무루 동참하시어 모든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천도공덕으로 가내 두루 평안하고 영원복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기도비 : 49재마다 7만원
(매 49재마다 천도재 구병시식 봉행 오후 3시 시작)

◆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리며 접수순서대로 조상님의 위패를 영단에 봉안하여 기도드립니다.

입재법문 : 현각 큰스님 동국대 선학과 교수

입재 : 2009년 12월 1일(음 10.25) 사재 : 2010년 6월 14일(음 5.3)
초재 : 2010년 1월 18일(음 12. 4) 오재 : 2010년 8월 2일(음 6.22)
이재 : 2010년 3월 8일(음 1.23) 육재 : 2010년 9월 20일(음 8.13)
삼재 : 2010년 4월 26일(음 3.13) 회향 : 2010년 11월 8일(음 10.3)

찾아오시는길



접수문의 : 031) 444-5935~6 / 1588-1936 종무소

조계종 지장선원 안양불교대학
조실 지관 / 회주 세민 / 주지 현호 / 신도회장 심정구 / 수석고문 이필상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임원공고

종 정 정화 총무원장 혜 봉

원로원장 구담 원로위원 덕운
교육부원장 월암 사정원장 법안 비구니원장 아산 비구니위원 자인
총무부장 법륜 문화부장 근홍 사회부장 혜통 규정부장 호산
포교부장 법보 홍보부장 능현 감찰부장 봉정 호법부장 혜원
문화국장 법봉 호법국장 현오 감찰국장 벽송 포교국장 원공
홍보국장 정오 기획국장 도경 교임단장 도견

제10교구종무원장 해광 제6교구동부종무원장 운오 제3교구종무원장 상원
제28교구종무원장 지광 제26교구종무원장 묘진 제13교구종무원장 지광
제6교구서부종무원장 지웅

종 도 혜원 선허 법산 적광 보현 명광 법광 해담 도광
포교원 인덕화 연화행 혜명심 교임단장포교원 대법행
법사
보광 향원 자비행 보광 염상 도일 대운 정법 능오 성문 백상 백연화

종도일동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 경북 포항시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연봉사 전화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buddhanews.com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있다

☞25면에서 계속

모자라기 때문에 누구한테 무엇을 물어봐야 하고, 책을 찾아봐야 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모두를 볼 때엔 모두 자기 할 탓이죠, 아주 간략하게 말해서요. 모든 게 자기 할 탓이다. 자기가 하는 대로 삶도 악도 선도 다 살고 있다. 자기가 할 탓이다 이거죠. 자기가 한 대로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자기네들이 한 탓으로 이렇게 되니까 너희들이 좀 벗어나서 살아라 하고 일러주신 거죠.

예를 들어서 닭이 왜 사람으로 부화를 못하느냐. 닭으로 살던 습이 머리에 쟁여져서 닭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닭의 습성이 있어서요. 돼지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 살던 습성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그 습성을 다 거쳐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올라와서 사람까지 이르렀는데 사람도 천차만별로 차원이 있으니 이것을 어찌 하느냐 이런 소립니다.

그러니까 모두 생각해서 될 것도 아니고 '한생각을 잘하라.' 이런 뜻입니다. 생각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고 한생각, 보는 순간 듣는 순간 한생각 잘하면 그게 법이 된다 이거예요. 법이 되면 한 발짝 떼놓지 않고도 가만히 그 보살 응신들이 다 해결을 해요. 우리가 지금 한 발짝 떼어놓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본래 한 발짝 떼어놓은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직결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한 발짝도 떼어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별나게 사는 걸로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찰나찰나 화해서 나투고 끝없이 돌아가는 이 진리를 파악한다면 우리가 할 거 다하면서도 함이 없이 한 것이 되죠. 내가 항상 말하죠. 여기 올라올 때 한 발 떼어놓으면 한 발 없어지고 한 발 떼어놓으면 한 발 없어진다고요. 우리 생활이 그런 생활이거든요. 그러니 그 발자국 떼어놓는 동안에 어떠한 발자국을 떼어놨다고 말하겠습니까? 어떤 발은 떼어놓을 때 내가 했고 어떤 발은 떼어놓을 때 내가 안 했습니까? 떼어놓은 대로 없어지는 것을요.

찰나에도, 지금 내가 말을 하면서도 과거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기 이전에 미래도, 바로 미래와 과거 교차로에서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음을 먹어도 한마음을 먹기에 달렸다 이겁니다. 내 몸속에도 생명들이 많으니까 한 개체를 더불어 한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할 일이고 진리를 파악해야 할 일이고 진리 속에서, 악과 선 그 가운데서 내가 악에는 어떡하고 선에는 어떡해야 하는지 그 도리를 말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무의 세계에서 용법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거죠. 즉 말하자면 '공법'이라고 해도 되고 '용무'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함이 없이 할 수 있는 도리가 있다면 어떠한 거든지 손색이 없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실천을 항상 해보십시오. 자기가 실천해야지 아무리 부처님이 있고 일체제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실천을 해서 감응이 되고 감응이 되면 한생각 해보시고 '아, 이렇게 가는 거로구나.' 하고, 또 상대를 만나보면 내가 차원이 얼마나 됐는지도 알게 됩니다.

나는 항상 묻는 대로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틀립니까?

질문자3(남): 고맙습니다.

큰스님: 하하하. 부처님 앞에는 길고 짧은 것도 없고 어떤 거든지 다 맞는다고 했습니다. 맞죠. 맞지 않는 게 어딨습니까?

질문자4(남): 저도 앞의 발표자하고 같은 수험생이거든요. 어저께 저 친구를 비롯해서 많은 수험생들이 고3법회를 했는데 거기서 법사스님께서, 아까 발표자도 말했지만 '나를 버려라.'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법사스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래, 정말 나는 없는 거다.'라고 진짜 느끼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또 '정말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스님 법회가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또 이제 내가 있다는 생각이 들데요. 그래서 갑자기 자신감도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믿지 못하고 나를 못 버리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기까지 하는데요.

큰스님: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질문자4(남):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해서요.

큰스님: 그런데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한 발짝 떼어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고 또 한 발짝 떼어놓으면 한 발짝 없어진다고요. 그랬죠?

질문자4(남): 예.

큰스님: 그것이 가만히 편안하게 다 버리고 있으란 말이 아니죠. 어떻게 들었어요? 연방 발이 고정되게 붙어있는 게 아니라 떼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할 때 '나를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불이 하는 거다.' 한다면 나를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간략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버려라.' 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중심, 즉 자불만 믿어라 이 소리거든요. 학생이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없으면 몸은 송장이 되거든요. 내 몸이 없는데 어떻게 자불이 있겠나. 그러니 몸뚱이는 자동차와 같고 자불은 운전수와 같고 기름과 같거든. 그러니 차는 운전수를 믿어야지?

또 딴 걸로 비유한다면 저 나무들이 뿌리 없이 사는 거 봤나요? 본래 자불과 학생의 육신은 같이 집을 삼아서 있어. 저 봐. 나무도 뿌리와 싹과 같이 달려 있지? 본래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가 없이 믿어야 돼. 학생을 리드해 나가고 학생의 보디가드가 돼줄 수 있고 학생을 이끌어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고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자기의 참기사니까. 그러니 시험을 보더라도 이거는 자불 주인공 당신만이 이거, 이런 과목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런 과목을 볼 때 저렇게 할 수 있고 또 뭐, 동그라미를 그린다든가 거길 찍어서 놓는다든가 이런 데도 다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찍고 돌아가야 돼. 모르는 거는. (대중 웃음) 이 안에서 하게 만들어야 돼. 바깥에서 하면 도저히 올팡갈팡이 돼서 잘못돼.

이런 소리를 들었어. 저, 누구 이름 잊어버렸지, 저기 어디? (대중스님 쪽을 보시며) 얘. 허허허 그 중국으로 갔다는 애 처음에는 어디 있었니?

스님: 방콕요.

큰스님: 누가 방콕으로 처음에 갔는데 여기서 시험을 봐도 안된다 그러기에 그리로 가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가서 아마 절정에 도달했던 모양이야. 자기가 말도 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아주 간절하게 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말의 뜻을 바깥으로 자꾸 마음에 내주니까 그 뜻대로 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방콕에서 말을 얼른 얼른 배웠다는 거지. 금방 배워서 거기 졸업을 하고 또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에 가서도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지혜로운 요량에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은 지금 이렇게 시급한 학생들을 놔두고도 그거 한마디 얘기 안 해주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거 뭐 돈이 들으니 못해, 재산이 없어지니 못해, 글쎄. 자손들이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들으면 '너의 주인공과 나와 둘이 아닌 까닭에 다 너에게도 불이 켜질 것이다. 이거를 그저 배우고 또 앞으로는 점점 잘 알게 될 것이다.' 하고 관해줘야 정작 싫다고 하는 사람에게까지도 뜻이 가지. 그리고 따르는 사람한텐 연방 해주고.

어떤 사람은 하도 자기 엄마 말을 안 들어서 밥 먹는 테이블에도 벽에도 붙여놓고 변소 안에도 붙여놓고 그랬더래요. 그랬더니 그저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 했던 모양이지요. 그렇게 해보고 가니까 살면서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 엄마더러 그러더래요. "나는 처음에는 '어디 정말 되나 안되나 보자.'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해주고 가져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시시때때로 그렇게 대치를 하고 보호를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디다." 하고 고맙다고 하더래요.

그랬다는 셈으로 우리가 아무리 싫다 그러더라도 마음으로 관해주고 벽에 붙여놓고 한번 해본다면 그건 진저리 나게 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있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하여튼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먹기에 달린 건데 마음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마음을 제대로만 먹는다면 분란이 날 것도 앞서 대처해서 없애버릴 수 있거든요.

이런 공부는 절의 스님네들만 하고 있는데 전자에 부처님 당시에도 이 공부를 가르쳤고 지금도 가르치고 계시고 우리도 배우고 있고,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음이라고 하면서 그냥 마음으로써 하도록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걱정이죠.

우리가 지금 살면서, 한 생을 사는 동안에 세세생생을 얻을 수 있는 도리예요. 지금 교차로인 중세계에 한 철 살다가 우린 몸을 벗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왜 사람이 살다가 고에서 허덕거리면서 또 늙고 죽어야 하나.' 이런 걸 생각해서 그 도리로 나섰는데 이미 그건 과거로부터 나서게끔 다 해놨어요. 그렇게 돼서 여러분한테 가르치려니까 또 그 길을 걸어야 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줘서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써 번연히 아는 것도 그냥 그 길을 되걸었다 이 소리죠.

보이는 데서는 이 컵이 그대로 있지만 안 보이는 데서는 이 컵이 사람도 될 수 있고 또 군사도 될 수 있고 컵 속의 물이 바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컵이 온갖 천차만별로 화해서 쓸모있는 용도로 쓰이게 되는 것이 또 보현행이에요. 부처님은 그 능력을 배출할 뿐이지요. 그리고 법신은 법신대로 행을 하는 대로 내물리는 거죠. 물려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을 했다 하면 법신이고 몸을 움죽거렸다 하면 보현신이란 얘기죠. 화신으로서 보현신으로서 응신이 되신다 이런 뜻이죠.

우리들이 부처님과 더불어 다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항상 위축돼서 '아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이런 건 도저히 난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다는데 이 속의 생명들의 의식들도 할 수 없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다 하면 이 생명들이 다 할 수 없고 또 이 생명들이 다 할 수 없다면 바로 일체제불에도 먹혀들어가지 않아요. 통하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양면을 다 버리면서 흡수하고 흡수하면서 버리고, 이렇게 처음에는 항상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자불 불성이 있는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참나가 있는 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참나가 있으니까 그걸 믿고 여여한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여여한 줄 알았다면 갖추어가지고 있는 걸 알아야 하고, 갖추어가지고 있는 걸 알았다면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고 아무리 끝없이 해도 함이 없이 하는 도리를 알아야 구경경지에 이른다 이런 소리입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계신 분들을 볼 때 여자 남자로 모습이 다르게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만들어서 그렇게 나온 거지 누구가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나는 왜 죄가 많아서 여자로 태어나서 이런가 하고, 어떤 남자들은 아이구, 죄가 많아서 이렇게 남자로 태어나서 들볶이고 이런다고 하죠. 그 모두 피장파장이에요. 피장파장인데요, 남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가슴이 넓어야 한다. 마음이 넓어야 가슴도 넓어지고 한 가정을 안아서 전 세계를 안아갈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자보다 더 작은 남자가 있고 또 남자보다 더 큰 여자가 있는가 하면 아주 더 작은 여자도 많고 이러니 이건 중구난방이에요.

하여튼 이 한 철 살기에 뭘 그렇게 아둥바둥하게 살려고 애쓰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거 뭐가 딱 떨어져서 깨졌다 하더라도 '아이구, 이걸 깨뜨려서 어떡하우.' 한다면 '그거 뭐, 이 세상에 몸도 깨지고 죽고 하는데 뭐 걱정이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살면 아예 편안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공부 한다고 그래서 닥칠 게 안 닥치는 게 아닙니다. 닥치는 거를 어떻게 능숙하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다음 호에 계속)

우리가 이 마음공부를 한다고 해서 닥칠 게 안 닥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닥치는 거를 어떻게 능숙하게 대처하느냐에 달린 거죠

※위 법문은 1997년 11월 16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당뇨. 비만 Diet
임 상
고치기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맞춤 한방치료로 병력에 관계
없이 혈당이 정상으로 치료되는
최신 방법으로 기쁨과
만족을 선물 받으세요.
임상실험 Test 응하실 분 3일간
평균혈당 확인 후 방문해 주세요.
한솔한의원
031)555-7780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불자 세상보기

김의석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감염내과

거점병원서 본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 A형 인플루엔자(H1N1)가 최근 수도권 학교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동국대 일산병원에도 하루 600~700명 환자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발열진료소를 찾아와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이 중에는 기침과 콧물 등의 단순한 감기 증상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아직 증상은 전혀 없지만 가족 중에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 환자가 있어서 걱정이 돼 오시는 분도 있다. 그러나 상당수는 고열과 기침, 목아픔, 콧물, 기침 등 신종 인플루엔자를 강력히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보이고 있고 확진검사를 시행하면 60~70%가 양성 반응을 나타낸다. 특히 최근 2~3주 사이에 학생들에게 이런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발생한 경우 대부분 신종 인플루엔자로 진단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체 인구의 30% 정도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되거나 백신접종을 통해 면역을 갖게 되면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대유행(판데믹)이 종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년 1월까지 전 인구의 30%가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백신접종을 계획 중이다. 고양시 거점병원인 동국대 일산병원에도 백신이 일부 공급돼 인플루엔자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1차적으로 접종을 시행하였다. 문제는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를 계란에 접종해 배양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의 백신을 생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백신의 효과가 주사 후 10~14일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의 효과가 나타나는 12월 초까지는 인플루엔자의 증가추세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백신접종이 충분히 이뤄지기 전까지는 인플루엔자에 걸린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적극적으로 항바이스제(타미플루, 릴렌자)를 투여해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지역사회 내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춰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도 10월 26일자로 기존에 65세 이상의 노인, 59개월 이하의 영유아, 임신부, 기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등의 고위험군과 폐렴 등의 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도록 하던 지침을 변경해 모든 열성호흡기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초기부터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보건소와 거점병원, 거점약국에만 공급하던 항바이러스제를 일반 약국에도 공급하고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쉽게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 사례는 10월 28일 현재 공식적으로 총 33건이고 이 중 고위험군이 28건(85%)을 차지한다.

신종 인플루엔자가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클 것이다. 그러나 신종 인플루엔자의 사망률이 과거의 대유행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고 인플루엔자가 가장 유행하는 겨울철을 큰 문제없이 잘 극복한 호주의 예를 살펴보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신종 인플루엔자를 막기 위해서는 평소 건강관리를 잘 하고 자주 손씻기, 휴지나 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공공장소에서 침 뱉지 않기 등 일반적인 위생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발생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가급적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후 즉시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도록 한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심한 부작용이 없는 한 약제를 잘 복용하도록 한다.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 이후에도 발열이 3~4일 이상 지속되거나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 거점병원을 찾아서 다른 질환이나 인플루엔자의 합병증이 있는 지 평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광주불자들에게 배워라

2009년 빛고을아카데미가 10월 27일 시작됐다. 12월 1일까지 6주 동안 매주 화요일 열리는 빛고을아카데미에는 800명의 지역 불자들의 접수했다고 한다. 올해로 다섯 번째인 빛고을아카데미가 지역불교행사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광주지역 불자들은 봉축행사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빛고을아카데미를 평가하고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꼽는 것이 기획력이다. 해마다 적절하고 현실적인 주제를 선정해 주제에 가장 부합하는 강사 스님들을 섭외하는 것이 지역불자들에게 어필 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사암연합회의 결속력이 지역불자들을 자랑스럽게 하고 있다. 거기에 지역 사찰과 단체에서 일하는 재가자들이 중심이 된 운영위원회의 실무진이 한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하는 모습에서 든든함을 느낀다고 한다.

광주지역 불자들이 얼마나 화합과 지혜로 뭉쳐 있는가를 대변하는 것이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어느 지역이든 스님들이 결속하고 재가자가 화합하여 함께 지혜를 모으면 얼마든지 '큰 일'을 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부산 대구 등 이른바 불교세가 강한 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포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결속하지 못하는 사암연합회도 많고 단합하지 못하는 재가단체도 많다. 그래서 스스로 '각각등보채'라고 말하며 자조하기도 한다. 그런 지역불자들에게 권하고 싶다. 광주를 배우라고. 물론 광주도 빛고을아카데미 하나를 성공시키기에 5년이란 세월동안 속 아픈 사연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함께 손잡고 의논하며 극복해 오늘의 빛고을 아카데미를 밝혔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포교사단의 도약을 바라며

조계종 포교사단 단장이 새로 선출됐다. 포교사단의 살림꾼으로 이름을 넓혀 온 임희웅 포교사가 제6대 단장이 된 것. 서울경기지역 단장을 겸하게 된 그는 단장에 선출된 후 포교사단의 100년 대계를 역설했다. 내부의 갈등을 일소하고 각종 정관을 개정 보완하여 포교사단의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어느 조직이나 가장 중요한 것이 내부결속이다. 그리고 조직을 움직이는 법령(정관)이 깔끔해야 하고 목적달성을 위한 시스템이 분명해야 한다.

임희웅 포교사가 10년 역사를 정리하고 조직 재정비를 하겠다는 것은 포교사단의 환골탈태를 선언한 것이다. 내년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그는 누구보다 포교사단의 안과 밖을 잘 알기에 철저한 준비를 할 것으로 믿는다.

조계종 포교사단의 역할은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종단으로부터 받는 지원이나 '대접'은 충분치 않은 게 사실이다. 출가와 재가의 사이에 놓인 장벽이 높은 것도 현실이다. 그런 가운데 포교 원력을 잃지 않고 포교사단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포교사들은 누가 뭐래도 이 시대의 '원력보살들'이다.

그 원력의 빛이 바래지 않고 더욱 밝게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제6대 회장 임희웅 포교사를 중심으로 도약하는 포교사단이 될 것을 믿는다. 포교에는 이유가 없고 조건이 없는 것이다.

현불만평 박구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삼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10월의 테마-시간

행복한 시간을 떠올리며…

해군 순항훈련이라면 많은 이들이 생소하게 느낄 것이다. 해군에서 군종법사로 근무하는 내게도 순항훈련이 낯설기는 마찬가지였다. 해군 순항훈련은 졸업을 앞둔 해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들을 위한 졸업여행 겸 교육훈련으로 해군 함정을 타고 세계 각국을 방문하는 행사이다. 이 행사에는 법사, 목사, 신부의 군종장교도 함께 파견된다.

출발준비부터 어수선한 것이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른 채 함정에 오르게 됐다. 창문도 하나 없는 답답한 공간, 여기저기 그물처럼 연결된 전선들이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곳에서 어찌 100일이나 되는 시간을 보내야 할까? 참 막막한 심정이었다.

배멀미 속에서도 수없이 반복되는 회의와 과업들로 점점 지쳐가고 있을 무렵 나에게 하나둘씩 찾아드는 인연이 있었다. 함께 훈련에 참가한 불자 해군사관생도들이었다. 처음 법회로 인연된 것이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힘이 되어주는 관계로 발전했다. 그랬더니 힘들기만 하던 시간이 점점 행복한 시간들로 변해가는 것이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좁은 방에 모여 옹기종기 차를 마시며 시작한 것이 많은 이들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계기가 됐다. 사관생도 122명중 70여 명이 법회에 참석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인연들의 배려 속에 잘 이겨나갈 수 있었다.

함정에는 좁은 공간에 수백 여 장병이 함께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따로 법당과 법사의 방이 마련돼 있지 않다. 함께 방을 사용하던 불자 장교는 몰려드는 인연들 덕분에 방에 들어오지 못하고 훈련 내내 이곳저곳 방황하며 시간을 보내는 어려움을 감수하기도 했다.

낯선 나라를 방문하면서 한국불교를 홍포하고 있는 스님들을 만났다. 필리핀 불국사 포교원 법관 스님, 스리랑카 탄경 스님, 싱가포르 연화원 일안 스님을 비롯해 각국 불자님들이 주신 아낌없는 지원은 순항훈련단의 모든 법우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주었다. 각 사찰에서 준비한 법회와 공양, 지역관광안내, 맛있는 간식들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젊은이들과 함상에 모여 바다와 하늘을 보며 나눠 먹는 열대과일의 맛을 누가 알겠는가!

우리는 언제나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는 습관이 있다. 이 순간만 지나면, 이번 고비만 넘기면 이라고 말하며 다음을 기다린다.

군에서 포교하는 법사님들에게는 복무로 힘겨워하는 장병들에게 이 순간 어떻게 자신의 행복을 찾아갈 것인가 함께 고민해야하고 답을 찾아갈 의무가 있다. 육군에 근무하시는 선배법사님 방에 쓰여 있던 임제 스님의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住 立處皆眞)'이라는 말씀이 생각난다. 그 법사님 스스로도 순간순간 주인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인연되는 모든 불자들도 자신의 삶에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다짐을 빗댄 것일게다.

마음을 열고 보시를 행하며 자비심으로 타인을 위해 봉사한다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너무나 행복했던 순항훈련의 기억을 떠올리며 지금 이 순간 나는 부처님의 제자이며 내 삶의 주인인가 다시 한 번 돌아본다.



실원 스님
해군본부 군종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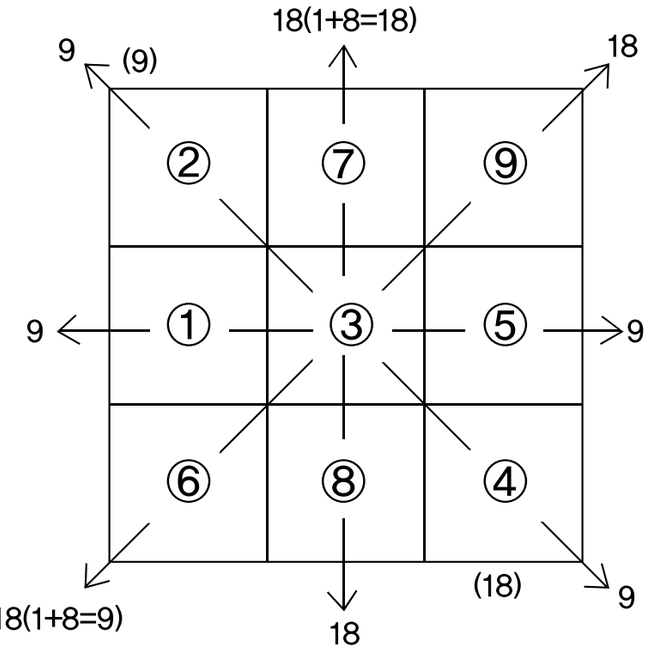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책임 10일 완성
저자 : 법화(정흥교)큰스님 직강!!



■ 손으로 짚어 5분 안에 길흉, 일의 성패, 직업, 성격, 적성, 혼인, 부귀, 이사방위, 신통법, 조상천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함.
■ 초보자 환영 10일이면 최강자가 될수있음
■ 사찰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개강 : 화·수요일반 …오후 2시~5시
목·금요일반 …오후 2시~5시
토·일요일반 …오후 1시~5시



[구단구궁 원리도]

◈ 년비결문구수가 ④ ③ ②가 나왔을 때 월·일·시의 해당 구궁문구수를 알아보는 그림

※월(月)운을 나타내는 비결문구수

해당월(月)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해당비결문구수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일(日)운을 나타내는 비결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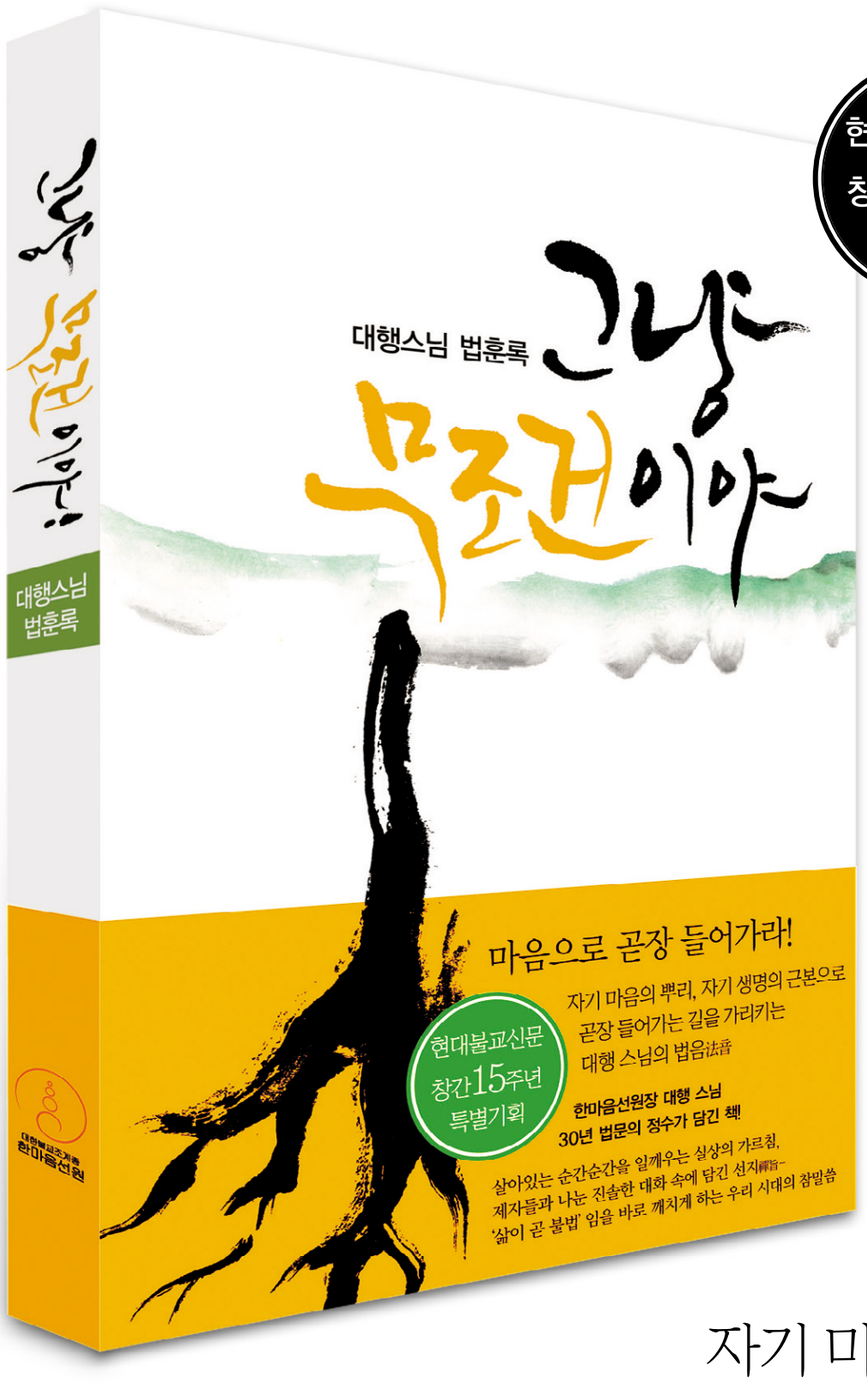
날 짜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결문구수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날 짜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비결문구수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날 짜	25	26	27	28	29	30						
비결문구수	③	④	⑤	⑥	⑦	⑧						

※시(時)운을 나타내는 비결문구수

비결문구수	②	⑦	⑨
해당 시간	19~21시	11~13시	15~17시
비결문구수	①	③	⑤
해당 시간	17~19시	21~23시	
비결문구수	⑥	⑧	④
해당 시간	09~11시	13~15시	23~01시

부산불교전법대학 – 구단구궁연구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1212-23번지 ☎(051)467-4665 010-7725-1024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현대불교신문 창간15주년 특별기획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5 / F. 02)737-0696